

2019년도 문화재위원회

## 제9차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록

- ▣ 회의일시 : 2019. 9. 19(목), 14:00 ~ 17:30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 출석위원 : 김봉렬, 김창준, 윤 균(오심), 이정수, 이찬희,  
임영애, 정명섭, 천득염 (이상 8명)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 목 차

## 【심의사항】

1	경산 팔공산 관봉 석조여래좌상 주변 케이블카 설치	공개
2	칠곡 기성리 삼층석탑 주변 교량 설치(재심의)	공개
3	부안 내소사 대응보전 주변 템플스테이 전용관 신축	공개
4	여주 신록사 조사당 주변 방문자 편의시설 설치(2차)	공개
5	서울 동관왕묘 주변 청년주택 신축(4차 재심의)	공개
6	남원 용담사지 석조여래입상 주변 원천천 하천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2차 재심의)	공개
7	청주 용화사 석조불상군 주변 전통문화전수관 건립(변경허가)	공개
8	봉화 서동리 동·서 삼층석탑 주변 단독주택 및 창고 신축	공개
9	안동 하회 충효당 생활편의시설 설치	공개
10	울주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 주변 숙박시설 신축	공개

## 【검토사항】

11	예천 용문사 대장전 및 윤장대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재검토	공개
12	공주 계룡산 중악단 주변정비사업(공양간 개축 및 선방 개수) 검토	공개

## 【보고사항】

13	창경궁 명정문 보수공사 추진계획 보고	공개
14	<p>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처리결과 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봉화 북지리 마애여래좌상 주변 생활권 마을숲 조성사업</li> <li>- 안동 이천동 마애여래좌상 주변 축사 양성화</li> <li>- 안동 석빙고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소매점)</li> <li>- 예산 수덕사 대응전 주변 후원 증축</li> </ul>	공개

- 청도 석빙고 주변 축사 양성화
- 울진 구산리 삼층석탑 주변 단독주택 신축(변경허가)
- 구미 황상동 마애여래입상 주변 공장 증축(엘리베이터)
-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주변 농로포장공사
- 강진 월남사지 삼층석탑 주변 축사 증축
- 청주 계산리 오층석탑 주변 농막 설치
- 천안 봉선홍경사 갈기비 주변 공장 신축
- 양산 통도사 대응전 및 금강계단 주변 경비실 정비사업
- 함양 교산리 석조여래좌상 주변 함양중·고등학교 주변 도로환경 개선사업
- 울주 천전리 각석 주변 농막 설치
- 안동 조탑리 오층전탑 주변 하천 재해예방 사업
- 청도 석빙고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변경허가)

## 【심의사항】

안건번호 건축 2019-09-001

### 1. 경산 팔공산 관봉 석조여래좌상 주변 케이블카 설치

#### 가. 제안사항

경북 경산시 소재 보물 「경산 팔공산 관봉 석조여래좌상」 주변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개별심의”에 해당됨.
- ※ ‘13년 문화재위원회 제8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3.08.22.) : 부결
  - 역사문화경관 훼손 우려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경산 팔공산 관봉 석조여래좌상
  - 소재지 : 경북 경산시 와촌면 갓바위로 81길 176-64, 선본사(대한리)
  - 지정일 : 1965. 09. 0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대구 동구 진인동 산1-1번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220m

○ 사업내용 : 케이블카 설치

구분		'13.8.22.(부결)	금차
케이블카 상부 승강장	건축면적 (연면적)	528m <sup>2</sup> (894m <sup>2</sup> )	798.22m <sup>2</sup> (954.50m <sup>2</sup> )
	구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층수, 최고높이	2층, 12.58m	2층, 12.6m
케이블카 (삭도) 사양 및 지주대	총 선로길이	1,282m	1,200m
	시간당 수송능력	1,500p/h	1,500p/h
	운전속도	5.0m/s	5.0m/s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지주대	1개소(총 4개소)	0개소(총 2개소) C1 : 15m C2 : 20m
데크로드		L=200m	L=302.35m, W=2.0m (방부목재)
연결다리		L=50m	L=32m, W=2.0m (H형강, 방부목재)
전망데크		2개소	A=36m <sup>2</sup> , W=2.0m, 3개소(H형강, 방부목재)

라. 참고사항

- '13년도 현지조사의견('13.07.29, 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케이블카를 설치함으로써 노약자, 장애인 등에게 참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장점은 있음.
  - 다만 승강장, 접근로, 지주대 등의 설치로 인한 팔공산의 지형과 경관 훼손은 팔공산과 석조여래좌상의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원회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마.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종교적 상징성, 경관 저해, 문화재 보존문제 등)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부결 8명

## 2. 칠곡 기성리 삼층석탑 주변 교량 설치(재심의)

### 가. 제안사항

경북 칠곡 소재 보물 「칠곡 기성리 삼층석탑」 주변에 교량을 설치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교량을 설치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개별심의”에 해당됨.
- ※ ‘19년 문화재위원회 제8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9.08.22.) : 보류
  - 칠곡군 문화재 정비 계획 확인 필요
  - 교량과 교대부 상세도면 제출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칠곡 기성리 삼층석탑
  - 소재지 :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기성리 1028번지
  - 지정일 : 1969. 06.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기성리 945-2번지 외 2필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95m
  - 사업내용 : 교량 설치
    - 길이 : 18.7m, 폭 : 7.0m
    - 구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교량 양 단부 기초하부(말뚝) 공사 시 진동이 없는 공법으로 시행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조건부가결 8명



### 3. 부안 내소사 대응보전 주변 템플스테이 전용관 신축

#### 가. 제안사항

전북 부안군 소재 보물 「부안 내소사 대응보전」 주변 템플스테이 전용관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 보호구역 내 템플스테이 전용관을 신축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내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 : 부안 내소사 대응보전
  - 소재지 : 전북 부안군 진서면 내소사로 243, 내소사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전북 부안군 진서면 석포리 261임, 산82-1임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 내
  - 사업내용 : 템플스테이 전용관 신축
    - 건축면적 : 94.5㎡
    - 층수/최고높이 : 1층/6.95m
    - 양식 : 5×2칸, 5량가, 팔작지붕
    - 기타 : 거친돌 석축형 배수로 설치(H=1.2m, L=34m)

##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지형 변경 최소화, 배치 조정 후 시행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조건부가결 8명

## 4. 여주 신륵사 조사당 주변 방문자 편의시설 설치(2차)

### 가. 제안사항

경기 여주시 소재 보물 「여주 신륵사 조사당」 주변에 방문자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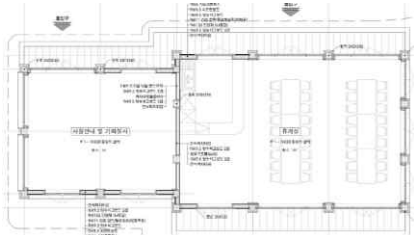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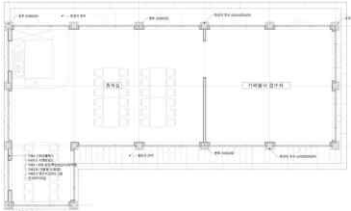


###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방문자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개별심의”에 해당됨.
- ※ ‘19년 문화재위원회 제3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9.03.21.) : 부결
  - 역사문화경관 저해 우려(규모, 양식, 위치 부적절)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 : 여주 신륵사 조사당
  - 소재지 : 경기 여주시 천송동 282 신륵사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기 여주시 천송동 283-2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62m

○ 사업내용 : 방문자 편의시설 설치

구분	'19.3.21.(부결)	금차
이격거리	보호구역에서 49m	보호구역에서 62m
건축면적(연면적)	100.98m <sup>2</sup> (100.98m <sup>2</sup> )	108.90m <sup>2</sup> (108.90m <sup>2</sup> )
구조, 양식	한식목조, 팔작+맞배지붕	한식목조, 맞배지붕
층수 / 최고높이	1층 / 6.4m	1층 / 6.0m
평면도		
정면도		

- 기타 : 기존 가설물인 문화재안내소, 기와불사건물 철거

## 라. 의결사항

- 보류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후 재심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보류 8명

## 5. 서울 동관왕묘 주변 청년주택 신축(4차 재심의)

### 가. 제안사항

서울 종로구 소재 보물 「서울 동관왕묘」 주변에 역세권 청년주택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청년주택 신축이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2구역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별표 1에 따른 문화재 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에 따름”에 해당됨.
    - ※ 높이기준(4대문밖) : 보호구역 경계선 7.5m높이에서 양각 27°선 이내.
  - 허용기준 공통사항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에 따라 심의대상 사업임.
    - ※ ‘19년 문화재위원회 제4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9.04.18.) : 보류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후 재심의
    - ※ ‘19년 문화재위원회 제5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9.05.16.) : 부결
      - 역사문화경관 저해
    - ※ ‘19년 문화재위원회 제6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9.06.20.) : 부결
      - 진입부 역사문화경관 저해
    - ※ ‘19년 문화재위원회 제7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9.07.18.) : 부결
      - 진입부 역사문화 경관 저해(높이 축소 조정 필요)
    - ※ ‘19년 문화재위원회 제8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9.08.22.) : 보류
      - 관계전문가 추가 현지조사 후 재심의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서울 동관왕묘
  - 소재지 : 서울 종로구 승인2동 238-1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서울 종로구 승인동 240-1 외 2필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60m
  - 사업내용 :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

구분	'19.05.16.(부결)	'19.06.20.(부결)	'19.07.18.(부결)	금차
대지면적	979.5m <sup>2</sup>	좌동	좌동	좌동
건축면적 (연면적)	655.03m <sup>2</sup> (9,300.94m <sup>2</sup> )	655.03m <sup>2</sup> (8,396.05m <sup>2</sup> )	좌동	655.03m <sup>2</sup> (8,093.46m <sup>2</sup> )
층수 (최고높이)	지하2층/지상16층 (49.4m)	지하1층/지상15층 (45.55m)	좌동	지하1층/지상14층 (43m)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좌동	좌동	좌동
기타	-	-	입면계획 변경	좌동

**라. 참고사항**

- 현지조사 의견(2019.05.01. / 문화재위원 ○○○·○○○)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2구역) 내에 지어지는 10층을 넘는 고층 건물로서, 향후 보존지역 내에서의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 현지조사 의견(2019.09.09. / 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신청부지는 동관왕묘의 정·측면에 해당되는 위치로 신청건물이 들어설 경우 문화재의 왜소성과 조망성의 저해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마. 의결사항

- 부결
  - 진입부 역사문화경관 저해(높이 축소 조정 필요)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부결 8명

## 6. 남원 용담사지 석조여래입상 주변 원천천 하천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2차 재심의)

### 가. 제안사항

전북 남원시 소재 보물 「남원 용담사지 석조여래입상」 주변에 원천천 하천 정비 및 친수공간을 조성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하천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이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개별심의”에 해당됨.
- ※ ‘19년 문화재위원회 제5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9.05.16) : 부결
  - 역사문화경관 저해 우려(자전거교 신설 위치 변경 필요)
- ※ ‘19년 문화재위원회 제8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9.08.22) : 보류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후 재심의, 교량 설계도서 보완 필요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남원 용담사지 석조여래입상
  - 소재지 : 전북 남원시 주천면 원천로 165-12 (용담리)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남원시 신촌동 ~ 주천면 고기리 일원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100m



○ 사업내용

가. 하천정비사업 정비구간(용담교 직하류~개미교 직상류, L=1,500m)

- 자전거교 신설 : L=56.3m, B=4.2m

- 제방보강 : 신촌우1지구(보축 353m, 여유고 H=0.8m),  
원천좌1지구(보축 239m, 여유고 H=0.8m)

나. 친수공간 조성 : 버스승강장 주변(580m<sup>2</sup>)

※ 자전거교 신설 위치를 하류쪽으로 54m 이동시켰으며, 더 이격시키기에는 교량설치로 인해 상류부 수위상승과 이에 따른 계획제방고가 높아져 추가적인 사유지 편입, 지장물 저축 등 발생.

라. 현지조사 의견(2019.09.05.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신청계획안은 자전거도로가 사역과 접하여 지나가고 있어 사지의 환경과 경관 훼손의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자전거다리(교량)는 용담사지를 휘돌아가는 용담천의 경관 훼손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 경관 저해 우려(사역과 접하는 자전거 도로, 신설하는 교량)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부결 8명

## 7. 청주 용화사 석조불상군 주변 전통문화전수관 건립(변경허가)

### 가. 제안사항

충북 청주시 소재 보물 「청주 용화사 석조불상군」 주변 전통문화전수관 건립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 보호구역 내 전통문화전수관 건립 변경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내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청주 용화사 석조불상군
  - 소재지 : 충북 청주시 서원구 무심서로 565
  - 지정일 : 1989. 04. 10.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충북 청주시 서원구 무심서로 565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 내
  - 사업내용 : 전통문화전수관 건립

구분	기존 허가안	변경안
건축면적(연면적)	414.72㎡(1,658.88㎡)	397.44㎡(943.92㎡)

구분	기존 허가안	변경안
구조, 양식	철근콘크리트조, 한식기와지붕	좌동
층수 / 최고높이	지하2층, 지상2층 / 11.6m	지상2층 / 11.6m
기타	기존 종무소 철거	기존 종무소 사용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원안가결 8명

## 8. 봉화 서동리 동·서 삼층석탑 주변 단독주택 및 창고 신축

### 가. 제안사항

경북 봉화군 소재 보물 「봉화 서동리 동·서 삼층석탑」 주변에 단독주택 및 창고를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단독주택 및 창고를 신축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개별심의”에 해당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봉화 서동리 동·서 삼층석탑
  - 소재지 : 경북 봉화군 춘양면 서원촌길 8-14(서동리)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봉화군 춘양면 서동리 101-2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60m
  - 사업내용 : 단독주택 및 창고 신축
    - 단독주택
      - 건축(연)면적 : 89.27㎡
      - 구조 : 경량철골구조
      - 층수/높이 : 지상1층 / 5.1m

- 참고
  - 건축(연)면적 : 28.0m<sup>2</sup>
  - 구조 : 경량철골구조
  - 층수/높이 : 지상1층 / 5.35m

#### 라. 의결사항

- 부결
  - 진입보 역사문화경관 저해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부결 8명

## 9. 안동 하회 충효당 생활편의시설 설치

### 가. 제안사항

경북 안동시 소재 보물 「안동 하회 충효당」에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에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당해 문화재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안동 하회 충효당
  - 소재지 : 경북 안동시 풍천면 종가길 69(하회리)
  - 지정일 : 1964. 11. 14.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안동시 풍천면 종가길 69
  - 사업내용 : 생활편의시설 설치
    - 안채 : 문간채 광2개소 → 욕실 2개소
      - 면적 13.08m<sup>2</sup>
    - 행랑채 : 정지1칸, 광1칸 → 욕실 2개소
      - 면적 13.0m<sup>2</sup>

## 라. 참고사항

○ '09년 문화재위원회 제8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내용

- 신청내용 : 수세식 화장실 겸 샤워실 신축

• 위치 : 안채 우측 텃밭

• 내용

· 연면적 : 17.10m<sup>2</sup>

· 구조 : 목조 / 기와 / 맞배지붕 / 1층

· 높이 : 4.52m

※ '09년 안동시 고택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전통문화체험장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임.

- 심의 결과 : 조건부가결(설계도서는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완하여 시행하도록 함.

## 마. 의결사항

○ 부결

- 원형을 변경하지 않는 방식으로의 시행을 권고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부결 8명

## 10. 울주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 주변 숙박시설 신축

### 가. 제안사항

울산 울주군 소재 보물 「울주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 주변 숙박시설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숙박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 : 울주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
  - 소재지 : 울산 울주군 상북면 등억알프스리 512-1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울산 울주군 상북면 등억알프스리 514-7번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 인접
  - 사업내용 : 숙박시설 신축
    - 건축면적(연면적) : 649.3㎡(1,648.2㎡)
    - 층수 / 높이 : 지상 3층/ 13.85m
    - 구조 : 철근콘트리트조



##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층고 등 높이 축소 후 시행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조건부가결 8명

## 【검토사항】

안건번호 건축 2019-09-011

### 11. 예천 용문사 대장전 및 윤장대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재검토

#### 가. 제안사항

경북 예천군 소재 「예천 용문사 대장전 및 윤장대」에 대한 국가지정 문화재(국보) 지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경북 예천군 소재 「예천 용문사 대장전 및 윤장대」를 국가지정문화재(국보)로 지정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 받고자 하는 사항임.
- ※ '19년 문화재위원회 제4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9.04.18) : 보류  
- 동산분과 검토를 거친 이후 재검토토록 함.
- ※ '19년 문화재위원회 제4차 동산문화재분과 보고결과(2019.06.13) : 원안접수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경상북도지사
- (2) 대상문화재 : 보물 제145호 「예천 용문사 대장전」,  
보물 제684호 「예천 용문사 윤장대」
  - 소재지 : 경북 예천군 용문면 용문사길 285-30(내지리 391번지)
  - 지정일 : 1963. 01. 21. / 1980. 09. 16.
- (3) 신청내용 :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신청
  - 명 칭 : 예천 용문사 대장전 및 윤장대(醴泉 龍門寺 大藏殿 및 輪藏臺)
  - 소유자(관리자) : 용문사(용문사)
  - 소재지 : 경북 예천군 용문면 용문사길 285-30(내지리 391번지)
  - 조성연대 : 조선시대/고려시대
  - 지정면적 : 135.6㎡(보호구역 14,060.4㎡)
  - 구조/형식 : 대장전(목구조/오량가/맞배지붕), 윤장대(목구조/불교공예/팔각지붕)

라. 건축분과 현지조사의견(2018.10.31. / 문화재위원 ○○○, ○○○, 문화재  
전문위원 ○○○)

- 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가치 있음.
- 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윤장대 지정가치 있음. 대장전 논의 필요.
- 문화재전문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가치 있음.

마. 동산분과 현지조사의견(2019.07.17. / 문화재위원 ○○○·○○○, 문화재  
전문위원 ○○○·○○○)

- 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가치 있음.
- 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가치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가치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가치 있음.

바. 지정조사보고서 : 붙임 참조

[붙임1] 건축분과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조사보고서

[붙임2] 동산분과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조사보고서

사.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명칭은 “대장전과 윤장대”로 하여 국보로 승격 추진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원안가결 8명

[붙임1] 건축분과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조사보고서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2.29.>

(앞쪽)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18. 10. 30.	대상문화재	예천 용문사 대장전 및 윤장대 (보물 제145호 / 보물 제684호)		
조사자	성명	○○○	전공 분야	건축사	
	소속		직위(직책)	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문화재 명칭	예천 용문사 대장전 및 윤장대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9 년 4 월 10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1 예천 용문사 연혁

예천 용문사는 경북 예천군 용문면 용문사길 285-30(내지리 391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고찰로, 지금은 대한불교 조계종 제8교구 직지사(直指寺)의 말사이다. 용문사에 관한 문헌 자료로는 重修龍門寺記(1185), 續龍門事蹟記(1726), 醴泉龍門山昌期寺大藏殿重修上樑文(1767), 龍門寺記(1818), 金龍寺本末寺志(1839), 용문사 수리보고서 등이 있으며, 이들 자료를 중심으로 연혁을 살펴본 바는 다음과 같다.

용문사는 신라 말에 杜雲禪師가 창건했다고 전해오는 고찰로,<sup>1)</sup> 용문사 사적기에는 그가 748년에 용문사에 암자를 지었다고 하나 분명하지 않다. 1185년에 한림학사 이지명이 지은 『중수용문사기』<sup>2)</sup>에 두운선사가 범일국사와 함께 당(唐)에 가서 법을 받아 돌아와 이곳에 초암을 짓고 오랫동안 정진하였다는 내용이 있다.<sup>3)</sup> 범일국사는 889년에 입적했으므로 두운선사가 용문사를 창건한 고려 초와는 다소 시간차가 있다.

후삼국 때 왕건이 두운선사의 이름을 듣고 그를 만나려고 찾아왔을 때 골짜기 입구의 바위 아래에서 진짜 용이 나타나 그를 맞았다고 한다. 이후 사명(寺名)을 ‘용문(龍門)’이라 했다고 하며,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고 재물을 보내 모두 30칸의 건물을 지어주고 아울러 인근 고을의 조세를 거두어 매년 150석을 공양 비용으로 삼게 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사적기에는 두운선사가 용문사 터에 암자를 짓고 수도를 한바 있고, 그후 왕건이 이곳을 지나다가 절에 들어가려 하니 용이 나타나 사명(寺名)을 ‘용문’이라 했다는 기록이 보인다.<sup>4)</sup> 이를 통해 용문사는 두운선사가 정진하던 암자에서 시작하여 후대 큰 사찰로 발전했음을 알 수 있다. 고려 중기에 이르러 영련이 30년 동안 용문사 주지를 맡아보다가 대선사 조응에게 전하였다고 한다.

다른 문헌인 <김룡사본말사지>와 <동국여지승람>에도 전술한 용문사의 창건 설화가 남아있다. <김룡사본말사지>에는 杜雲禪師가 870년(신라 경문왕 10)에 開山했다는 것과 두운선사가 산 입구에 이르렀을 때 바위 위에서 용이 마중 나왔다 하여 산을 용문산이라 하고 절을 지었다는 내용이 있다. 또 용문사를 건립할 때 나무둥치 사이에서

- 1) 용문사에는 중수비와 3책의 사적기가 있으며, 이 중 가장 오래된 이지명의 <중수용문사기, 1185> 기록이 이차적인 전거(典據)가 된다.
- 2) 용문사에는 3책의 사적기와 여러 종류의 상량문, 불화 화기, 교지, 완문, 기일록 등이 남아 있다. 사적기는 《용문사사적-유용건》에 <여지승람>, <속용문사적기>, <중수용문사기>, <용문제영>이 수록되어 있고, 《용문유적-불용》에는 <속용문사적기(일부)>, <용문제영>이 수록되어 있으며, 《용문사사적-불용건》에 <용문사기>가 수록되어 있어 세 사적기의 내용이 서로 중복되어 있다. 이들 종합하면 사적기는 이지명의 <중수용문사기, 1185>, 박세대의 <속용문사적기, 1688>, 이광직의 <용문사기, 1818> 3종이 있고, <용문제영>과 태실 관련 사실 등이 중요한 자료로 편집되어 있다. 이밖에 2종의 불상복장기, 27종의 화기, 6종의 상량문, 2종의 단청기 등이 남아 있다. 사적기의 내용은 대체로 충실하나 <중수용문사기>를 수록하면서 昔新羅 다음에 ‘景文王七年戊子’라고 비문에 없는 내용을 추가하는 등 사실의 변경(變改)도 눈에 띈다.
- 3) 이를 기려 조선 후기에 용문사에는 ‘두운암(杜雲庵)’이라는 이름을 가진 암자가 있었다.
- 4) 이 지명, <중수용문사기, 1185>; 박세대, 《속용문사적기, 1688》; 이광직, 《용문사기, 1818》 이들 사적기에서는 태조가 암자의 이름을 ‘용문’이라 하였다는 것이 ‘용문사’의 유래로 추정된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산을 중시하여 유래를 권24 경상도 예천군 용문산편에 게재했다.

무게 16냥의 은병(銀瓶)이 나와 공사비에 충당했다는 내용도 전해지고 있다. <동국여지승람>에도 왕건이 신라 정벌을 위해 남으로 내려올 때 두운선사의 명성을 듣고 그를 만나고자 절을 찾을 때 운무가 자욱한 가운데 어디선가 청룡 두 마리가 나타나 길을 인도했다고 하여 사명(寺名)을 ‘용문사’라 했다는 기록이 보인다.

1163년 도량당 뜰에 9층 청석탑을 세울 때 탑의 4층에 오색구름이 서려 있다가 얼마 뒤에 사라졌다는 얘기가 전해오고 있다. 이 같은 상서로움은 태자의 태실(胎室)이 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하여 조응선사는 조정에 청해 사명(寺名)을 ‘창기사’로 바꾸었다고 한다. 이러한 내용은 1185년에 세운 중수용문사기에 남아 있다. 하지만 이 비의 비명(碑銘)을 창기사라고 새기지 않고 그 전처럼 ‘용문사’라 한 것을 보면 창기사는 별칭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청건이후 용문사에는 두운의 법맥이 이어져 왔으며, 특히 영련대사(英練大市)는 이곳에서 30여 년 수도하다가 조응선사(祖膺禪師)에게 법을 전했다. 1165년(의종 19)에 조응은 용문사를 93소에 이르는 대찰로 중창했다. 조응은 1천리나 떨어진 연봉사에 주석하고 있으면서 제자 자엄선사(資嚴禪師)에게 쌀 300석을 보시하고 그로 하여금 용문사를 중창하게 했으며, 이때의 중창 불사는 1165년부터 1179년까지 15년에 걸쳐 진행되었다. 당시 중창 불사를 이끈 자엄은 1165년(의종 19)부터 도량당(道場堂)과 승방, 주방, 창고, 9층 청석탑(靑石塔) 등을 짓고 불반(佛盤)과 번당(幡幢), 향로 등을 갖추었다. 도량당이 중심 전각으로 짐작되는 것 이외에는 당시의 가람 구조를 알 수 없으나 1179년에 공사를 완료하고 구산선문(九山禪門)의 승려를 모아 담선법회(談禪法會)를 개최한 것으로 보아 이때 용문사의 규모와 사세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1171년(명종 원년)에 이르러 용문사 문밖 좌비봉이 태자의 태(胎)를 봉안할 장소로 정해지자 절에서는 왕의 장수를 기원하는 법회를 열고 절의 토지 30경(頃)과 인근 10개 사찰의 노비 2명씩을 용문사에 소속시켰다. 용문사가 왕실의 지원을 받게 된 것은 용문산의 태실(胎室) 때문이며 무인정변으로 즉위한 명종은 용문사 외에 용수사와 상주 용암사 등과도 연관을 맺고 이들을 비롯한 몇몇 사원의 경제력을 세력 기반으로 삼았다. 용문사는 무인 집정자들의 견제 때문에 개경 주변에 자신의 기반을 마련할 수 없었던 명종이 지방 사원(寺院)을 지원하고 이를 자신의 기반으로 삼았던 한 사례가 된다.<sup>5)</sup>

1173년(명종 3)에 조응<sup>6)</sup>이 발원하여 3만 명의 승려에게 고양하는 재(齋)를 열고 2좌

5) 한기문, <예천 "중수용문사기" 비문으로 본 고려중기 선종계의 동향 : 음기의 소개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사학회 문화사학 제 24호 (2005) pp.73-105

6) 조응은 해조 국사의 제자인 영보선사에게 출가하여 대신사에 오른 인물. 조응은 해주최씨로 공신의 후예였는데 14세에 출가하여 1125년에 승과에 급제하고 일곱 사원의 주지를 지냈다. 1153년에 삼중대사가 되고 1169년에 선사가 되었으며 1170년에 대신사가 되어 명봉사에 주석하였다. 그는 1179년 용문사 중창을 마치고 담선법회를 열어 《전등록》, 《능엄경》, 《인악집》, 《설두염송》을 강론하게 하였는데, 모두 고려중기에 이자현이 거사선풍을 고취하며 중시한 선종의 전적들이었다. 조응은 이자현에서 해조국사로 이어지는 법맥과 사상을 계승하여 무신집권기에 선풍을 일으켰던 인물이다.

의 윤대장(輪臺藏)을 만들고 이를 봉안할 3칸 규모 건물을 지었는데, 이것이 영문사 대장전의 전신으로 추정된다. 1179년(명종 9)에 중창 불사를 완료하고 이를 기념하여 구산문 학도 500인을 모아 50일간 담선법회를 열고 단속사의 효돈 선사를 초청하여 3년간 경전을 강의하였다. 1185년(명종 15) 4월에는 국난 극복과 합사 중건의 낙성을 기념하는 뜻에서 〈重修龍門寺記〉를 새긴 비석을 세웠으며, 이 비는 현재 회전문 아래 비석 군에 남아 있다.

조응은 선종(禪宗)은 물론 교종(敎宗)에도 능통했으며, 그는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는 모임을 주재하였다. 선종계 저명한 사찰이었던 단속사에 있던 효돈에게 500인의 담선법회를 주재하게 하고, 화엄종계 명찰이었던 개태사의 영치에게 300인의 법회를 주선하는 등 선종과 교종 승려에게 각각 법회를 맡겼다<sup>7)</sup>. 조응은 1161년에는 개성 북쪽의 대흥사를 중수하고 승려들의 모임을 주선하고, 좌선 법규를 확립하고 시행했으며, 1179년에는 용문사가 소재한 보주 두천원을 중수하기도 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용문산에 세종의 왕비인 제헌왕후의 태실이 건립되었다. 이에 세조는 1457년(세조 3) 용문사에 교지<sup>8)</sup>를 내려 용문사의 잡역(雜役)을 면제해 주도록 했다. 조선 전기에 용문사는 왕실의 지원을 받아 전반적인 불교 사세(寺勢)의 위축 경향 속에서도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용문사의 사원 규모는 당시 명사들이 남긴 시를 통해 추정할 수 있다. 서거정(1420-1488)과 조우인(1561-1625) 등이 용문사를 찾아 시를 남겼는데,<sup>9)</sup> 당시 용문사는 수백 칸의 대찰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윤목(1571-1629)의 용문사 시에 나오는 “惆悵往事非 寂寞山容是 大刹數百間 殘僧三四已…”이라는 구절이 이를 반증한다.<sup>10)</sup>

1688년(숙종 14)에 박세대가 지은 〈續龍門事蹟記<sup>11)</sup>〉는 임란이후 용문사의 중창 사적을 정리한 문헌으로 1608년부터 1688년 사이 용문사에서 조성되었던 전각과 불상 조성에 참여한 스님과 장인들을 상세히 정리한 문서로 1689년에 마친 불사까지 기록했다. 이 사적기를 비롯 사중의 여러 기록들은 17세기이후 용문사의 연혁을 이해하는데 귀중한 자료이다.<sup>12)</sup> 〈속용문사적기〉에 따르면 1608년(선조 41)에 호남 승려 혜명

7) 허홍식, <고려 불교사 연구>, 일조각(1986), p.479 및 p.674

8) 이 교지의 내용은 “경상도 용문사는 일찍이 감사와 수령에게 지시한대로 다시 심사하여 더욱 보호하고 잡역을 영구히 없애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조선전기의 승유역불 정책에도 용문사가 유지될 수 있었던 중요한 배경이 왕실의 지원에 있었음을 알려주는 자료로, 보물 제729호로 지정되어 있다.

9) 《용문유적-불용》, <용문제영>

10) 《용문유적-불용》, <용문제영>, (국역) 쓸쓸해라, 지난 일은 글렀고. 적막하여라, 산의 모습 이것이 옳으리. 절은 커서 수백 칸, 남은 스님 서넛 뿐...

11) 현재 남아 있는 이 <속용문사적기〉에는 저자가 명기되어 있지 않은데, 이를 덧붙인 신재산인의 부기에서 박세대의 저술임을 알 수 있다.

12) 현재 2종의 복장기, 6종의 상량문, 2종의 단청기, 27종의 화기 등이 남아있다. <용문사 보광명전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 발원문, 1515>, <용문사 금당 시장 복장기, 1684>, <예천 용문산 창기사 대장전 중수상량문, 1767>, <예천 용문산 창기사 응진전 상량문, 1785>, <용문사 비진 중건상량문, 1846>, <상향각 상량문, 1857>, <예천 소백산 용문사 자운루 상량문, 1872>, <예

이 제하당(霽霞堂)을 중수하는 것으로 중창 불사가 시작되어 요사채로 짐작되는 당우부터 먼저 중수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용문사 중수에는 인빈궁(仁嬪宮)의 원당(願堂)이라는 점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선조의 후궁인 인빈(1555-1613)은 원종으로 추존된 정원군을 비롯한 4남 5녀의 왕자와 공주를 낳았다. 인조가 원종(정원군)의 장자로 왕위에 오르자 조모의 원당인 용문사 중창 사업은 이를 배경으로 활기를 띠었다.

예천 용문사의 건축 연혁

NO	내 용		출 처
<b>통일신라 / 고려시대</b>			
1	870년(경문왕10)	두운(杜雲) 선사 창건	김룡사본말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2	936년(태조 19)	중건	김룡사본말사지
3	1165년(의종 19)	중수(대중창)	
4	1171년(명종 1)	태자 태실 봉안, '창기사' 개명	
5	<b>1173년(명종 3)</b>	<b>3칸 대장전 건립, 윤장대 2좌 설치</b>	중수용문사기비
6	1179년(명종 9)	사찰 공사 완공	
7	1185년(명종 15)	중수용문사기비 건립	
<b>조선시대</b>			
8	1457년(세조 3)	감역교지 하사	용문사 감역교지
9	1478년(성종 9)	제현왕후 태실 봉안	태실비
10	1608년(선조 41)	제하당(霽霞堂) 중수	숙용문사기
11	1636년(인조 14)	적묵당(寂默堂) 건립	
12	1637년(인조 15)	범종루(泛鍾樓) 건립	
13	1649년(인조 27)	광명전(光明殿) 건립	
14	1670년(현종 11)	지장전(地藏殿), 응향각(凝香閣), 원통전(圓通殿), 삼삼전(卍三殿), 응진전(應眞殿), 미타전(彌陀殿) 건립 삼강실(三綱室), 만월당(滿月堂), 대장전(大藏殿) 수리	
15	1681년(숙종 7)	만세루(萬歲樓) 건립	
16	1682년(숙종 8)	시왕전(十王殿) 건립	
17	1683년(숙종 9)	금당(金堂) 건립	
18	1684년(숙종 10)	축수전(祝壽殿) 건립	
19	1686년(숙종 12)	청심당(淸心堂) 명월료(明月寮) 건립	
20	1680년대	천왕각(天王閣) 건립	
21	1680년대	일주문(一柱門), 향적전(一柱門) 건립	
22	1783년(정조 7)	세자 태실 봉안,寺名을 '소백산 용문사'로 고침	
23	1835년(헌종 1)	화재	김룡사본말사지
24	1839년(헌종 5)	화재 피해 복구공사 완료	
<b>현대 이후</b>			
25	1984년	화재(보광명전, 해운루, 응향각, 영남제일강원, 요사, 종무소 등 230여평 소실)	2004년 용문사 대장전 수리보고서
26	1996년	회전문 중수	
27	1999년	명부전, 동향각 수리	
28	2001~--2004년	자운루, 윤장대, 진영각, 강원, 윤장대, 대장전 수리, 일주문 수리, 화장실 신축	

친 용문산 창기사 만세루 상량문, 1785>, <용문사 십육전 개채여 단화기, 1884>, <용문사 명부전 개채여 단화기, 1884> 등이 있다.



병자호란이 발발한 1636년(인조 14)에 용문사의 승려 학문(學文)이 적묵당(寂默堂)을 지었고, 이듬해 두인(杜印)이 그 남쪽에 범종루(泛鍾樓)를 건립했다. 또 1649년(인조 27)에는 광인(廣印)이 제하당(霽霞堂)과 적묵당(寂默堂)을 비롯 북쪽에 광명전(光明殿)을 지어 범종루와 연결했는데, 그 형상이 새가 날개를 펼친 것과 같았다고 한다. 영칙(靈則)이 그 서쪽에 지장전(地藏殿)을 짓고, 도오(道悟)가 그 동쪽에 응향각(凝香閣)을 지었다. 이렇게 반세기 만에 용문사는 가람의 기본형식과 필요한 당우를 두루 갖추었다. 즉 주불전인 광명전을 중심으로 앞에 범종루, 좌우로 제하당과 적묵당으로 ‘口’자형 가람배치를 갖추고, 여기에 중심 사역의 외곽 동서에 각각 지장전과 응향각을 배치했던 것으로 보인다.

임란 직후에도 용문사의 중창 불사는 계속 이어져 1670년에 영준(靈俊)이 원통전(圓通殿), 행변이 삼삼전(卅三殿), 학문(學文)이 응진전(應眞殿), 혜일(惠日)이 미타전(彌陀殿)을 각각 중수했다. 1670년(현종 11)에 해징(海澄)과 취성(就性)이 제하당 남쪽에 삼강실(三綱室)을, 태상(太祥)과 각철(覺哲)이 동 북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 만월당(滿月堂)을 각각 지었다. 이 같은 중수활동의 결과 17세기말에 이르러 용문사는 관음·미타신앙의 전당과 조사당, 요사채 등을 두루 갖춘 대가람으로 발전했던 것으로 보인다.

전술한 중창 불사가 진행되던 1670년에 의섬(義暹)과 의탄(義坦)이 대장전(大藏殿)을 중수했다. 1681년(숙종 7)에는 법률(法律), 희인(希印), 대규(大奎), 밀언(密彦), 법견(法堅) 등이 만세루(萬歲樓)를 지었으며, 1682년에는 두관(斗寬), 법청(法淸), 형영 등이 시왕전(十王殿)을 건립했으며, 이듬해인 1683년에는 처영(處英), 심보(心寶) 등이 金堂을 지었다. 1684년에는 축수전(祝壽殿)을 건립했는데, 이는 용문사가 고려후기 이래 왕실의 태실 보호하는 사찰과 원당 사찰로써 왕실의 후원을 받아온 사찰이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승(僧) 신경(神鏡)은 시왕전에 모실 시왕상과 금당에 봉안할 불상을 조성했다.

이어 1687년에 주지 성충은 시왕전 앞에 청심당(淸心堂), 적묵당 오른쪽에 명월寮(明月寮)를 각각 지었다. 1688년(숙종 14)에 처원과 삼옹이 범종루 남쪽에 천왕문을 크게 세웠으며, 내부의 사천왕상 4구는 원선과 공신이 만들어 봉안했다. 1689년에는 일주문과 향적전을 지었으며, 용문사의 이로써 중창은 일단락되었다. 임란 후부터 숙종 전반에 이르기까지 80년 동안 용문사는 지속적인 중창 사업을 계승하여 모두 80칸에 이르는 26개의 당우를 중수하거나 건립했다. 이밖에 용문사에는 3개의 부속암자가 있다. 즉 가람 서쪽에 영칙이 창건한 서전, 북쪽에 혜진이 세운 비전이 있고, 비전 아래에 양로암이 자리 잡고 있다.

## 2 대장전 및 윤장대 연혁

직지사 말사인 용문사는 870년(신라 경문왕 10)에 두운선사(杜雲禪師)가 창건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후 수차례 중창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용문사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왕실의 태실(胎室)을 보호하는 사찰로 왕실과 관련이 있는 사찰로, 사찰에는 윤장대 외에 大藏殿(보물 제45호), 敎旨(보물 제729호), 목불좌상 및 목각탱화(보물 제989호), 八相幀(보물 제1330호), 慈雲樓(문화재자료 제169호) 등의 많은 문화유산이 보존되어 있다.

용문사 윤장대의 초창시기와 조성 연유를 살펴볼 수 있는 기록으로 1185년에 작성된 『重修龍門寺記』와 1972년 수리시 발견된 『醴泉龍門山昌期寺大藏殿重修上梁文』이 있다. 『중수용문사기』에는 1173년(고려 명종 3)에 ‘동북면 병마사였던 김보당이 난을 일으켰을 때 국난 극복을 위해 資嚴大師가 발원하여 三萬僧齋를 개최하고, 3칸의 대장전을 지어 그 안에 윤장대 2기를 별도로 안치하고, 학승 300여명을 모아 七日法會를 열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현존하는 용문사 대장전과 내부의 윤장대는 12세기말 처음 건립된 것으로 이는 『중수용문사기』에 당초 2좌의 윤장대를 갖추었다는 사실과 윤장대를 설치하여 국난을 극복하려 했다는 조성의 목적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sup>13)</sup> 또 『예천용문산창기사대장전중수상량문, 이하 창기사대장전중수상량문』에도 1173년(大定 17,癸巳)에 대장전과 윤장대가 건립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대장전 중수상량문에 ‘인도 고승 구담(瞿曇)이 팔만대장전을 용궁(龍宮)에 안치했다는 고사에 따라 용이 나타난 용문사에 대장전을 짓고, 전륜지의(轉輪之義)를 표하기 위해 한 쌍의 윤장대를 만들어 설치했다’는 기록도 대장전과 윤장대를 설치한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sup>14)</sup> 위 기록으로 보아

윤장대 관련 기록

관련 기록	시기	내 용
重修龍門寺記	1185년	…癸巳年 國朝多亂大禪師發願設三萬僧齋又別置輪大藏二座及堂三間作七日法會聚學者三百餘人請開泰寺僧統穎緇講演以落之以救國難焉…
醴泉龍門山昌期寺大藏殿重修上梁文	1767년	…昔之西域瞿曇氏所說八萬大藏典藏置於龍宮 故因以作大藏殿以標轉輪之義 殿內作雙輪 藏此殿之初那則去大定 十七年癸巳也…
중수기록 목서	-	한국의 고건축 12호(1990)에 기록되어 있음, 현재 원본 자료 망실, 목서 명 내용에서 천계(天啓) 원년(1621)에 중수되었다는 내용이 발견됨

용문사의 대장전과 윤장대는 1173년(癸巳)에 초창된 것으로 보인다.<sup>15)</sup>

13) 『重修龍門寺記』는 국난 극복과 합사 중건의 낙성을 기념하는 뜻에서 1185년에 李知命이 써서 비석에 새긴 것으로, 현재는 회진문 아래에 세워져 있다. ‘…癸巳年 國朝多亂大禪師發願設三萬僧齋又別置輪大藏二座及堂三間作七日法會聚學者三百餘人請開泰寺僧統穎緇講演以落之以救國難焉…’

14) <예천용문산창기사대장전중수상량문(醴泉龍門山昌期寺大藏殿重修上梁文)> 1767년(乾隆 32년 丁亥, 英祖 43년). ‘…昔之西域瞿曇氏所說八萬大藏典藏置於龍宮 故因以作大藏殿以標轉輪之義 殿內作雙輪 藏此殿之初那則去大定 十七年癸巳也…’

대장전은 그 후 있었던 수차례의 중수 기록이 비교적 분명한데 비해 윤장대는 수리, 중수 등에 관한 문헌기록이 소략한 편이다.<sup>16)</sup> 1990년에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대장전을 조사하면서 윤장대에 대한 조사도 병행했는데, 그 결과 윤장대 내부에서 1621년(天啓 원년)에 중수한 사실을 기록한 묵서명이 발견<sup>17)</sup>되어 17세기 이전부터 윤장대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용문사 윤장대는 대장전이 초창된 1173년(고려 명종 3)에 만든 후 1621년에 중수하여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 대장전와 윤장대의 연혁

- 870년(신라 경문왕 10) 두운 조사 개산
- 936년(고려 태조 19) 용문사 1차 중건
- 1165년(고려 의종 19)~1179년(고려 명종 9) 2차 중건
- 1171년(고려 명종 원년) 용문사를 창기사로 개명
- **1173년(대정 13) 대장전 중수**
- 1467년(天順 11) 대장전 중수
- 1534(가정 3) 대장전 중수
- 1597년(만력 26) 대장전 중수
- 1608년(만력 무신)~1687년(강희 26) 용문사 3차 중건
- 1665년(강희 4) 대장전 중수
- 1670년(강희 9) 대장전 중수
- 1767년(건륭 정해) 대장전 중수
- 1835년(헌종 원년)1839년(헌종 5) 화재로 4차 중건
- 1962년 : 대장전 번와 보수
- 1963년 1월 21일: 대장전, 보물 제145호로 지정
- 1972년 12월 : 대장전 번와 보수 및 부식재 교체
- 1973년 : 대장전 외부 단청공사
- 1979~1980년 : 대장전 기단 및 계단 보수공사, 자운루 보수공사
- 1984년 5월 9일 : 화재 발생 다수 전각 소실 대장전은 무사
- 1990년 5월-8월 : 대장전, 보광명전 석축 및 전면계단 공사
- 1996년 10월-1997년 7월 : 대장전 보수(배면 지붕기와 보수), 회전문 중수
- 2001년 7월-2002년 6월 : 자운루 보수, 주변 석축 및 계단 보수, 보광명전, 대장전 앞 석축 하부 배수로 설치
- 2001년 1월-2002년 7월 : 목불좌상, 목각탱 보수
- 2001년 1월-2003년 2월 : 윤장대 보수
- 2001년 1월-2004년 6월 : 대장전 완전 해체 수리
- 2005~2006년 : 대장전 주변정비공사
- 2010년 : 용문사 윤장대 해체 수리

15) <중수용문사기>에는 1173년(명종 3년, 계사년)에 초창되었다고 되어 있지만 <중수상량문>에는 대정 17년 계사로 기재되어 있어 1972년 12월 작성되었던 <상량문>에도 대정 17년으로 그대로 표기되었다. 따라서 이 중 가장 먼저 작성된 <중수용문사기>가 합사 중건을 마치고 기록한 것으로 대장전과 윤장대의 초창시기와 그리 멀지 않은 1185년에 작성되었으며, 계사년으로만 기록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가장 믿을만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예천 용문산 창기사 대장전 중수 상량문>과 <상량문>은 대정 13년 계사를 대정 17년으로 오기(誤記)한 것으로 보인다.

16) 현존 자료상에 보이는 중수기록은 1467년 대장전 중수, 1534년 대장전 중수, 1597년 대장전 중수, 1608 용문사 3차 중건 착수, 1665년 대장전 중수, 1670년 대장전 수리, 1687 3차 중건 완료, 1767 대장전 중수가 있으며, 이후도 계속된 중수가 있었고, 1835년에 큰 불로 폐허가 되었다가 1839년 중건되기도 했다. 또 1984년에도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大藏殿은 소실을 면했음.

17) 김봉건, <용문사 대장전> 《한국의 고건축》 12호(문화재관리국, 1990), p. 23.

대장전은 예천 용문사에서 가장 오래된 전각으로 주불전인 普光明殿과 나란히 배치되어 있다. 대장전은 경전을 봉안하는 전각으로, 내부에 2座의 輪藏臺가 있어 더욱 가치 있다. 대장전 및 윤장대는 초창부터 중창까지의 연혁이 잘 남아 있다. 이 건물의 이력을 알려주는 기록으로는 『重修龍門寺記(1185)』와 『續龍門事蹟記(1688)』, 『醴泉龍門山昌期寺大藏殿重修上梁文(1767)』, 이하 창기사대장전중수상량문』 등이 있다.

1972년에 있었던 대장전 수리시 발견된 중수상량문에 대장전과 윤장대의 설치 연유가 밝혀져 있으나 현재 이 상량문의 원본은 남아있지 않고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간행한 『한국의 고건축 제12호』에서 대장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창기사대장전중수상량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윤장대의 설치 이유를 인도의 고승이 대장경을 용궁에 소장하였다는 고사에 유래를 두고 용의 전설이 있는 용문사에 윤장대를 설치하여 國泰民安을 기원했다는 것이다.

1767년 대장전 수리시 발견된 상량문을 통해 창건 후 1467년, 1534년, 1597년에도 대장전을 각각 수리한 것을 알 수 있다.<sup>18)</sup> 임란 직후인 1608년부터 시작하여 용문사 전각들을 대대적으로 중창 중이던(3차) 1665년에 대장전도 중수(또는 중건)했으며<sup>19)</sup> 이는 현존 대장전의 건축양식과도 부합한다.

대장전 및 윤장대와 관련된 건축기록만을 간추려 보면 1173년(대정 13)에 윤장대 2좌를 ‘堂三間’에 별치하고 법회를 열었다(중수용문사기)는 기록으로 보아 이때 처음 건축했음을 알 수 있다. 2차 중수는 1467년(천순 14), 3차 중수는 1534년(가정 13), 4차 중수는 1597년(만력 25), 5차 중수는 1665년(강희 4), 6차 중수는 1670년, 7차 중수는 1767년(건륭 정해)에 있었다<sup>20)</sup>. 이 중 1665년에 대장전을 중수했다는 기록의 경우 『속용문사적기』에는 1670년으로 기록되어 있는 등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이는 1665년과 1670년에 있었던 별도의 보수공사를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속용문사적기』에 1670년에 있었던 대장전 수리 내용을 ‘치각여와수(治栴與瓦修)’라고 기록한 것으로 보아



용문사 대장전 전면(조선고적도보, 1932)



용문사 대장전 전면(국보도록, 1968)



용문사 대장전 정면(현황)

18) 《한국의 고건축》 12(국립문화재연구소, 1990), pp.17-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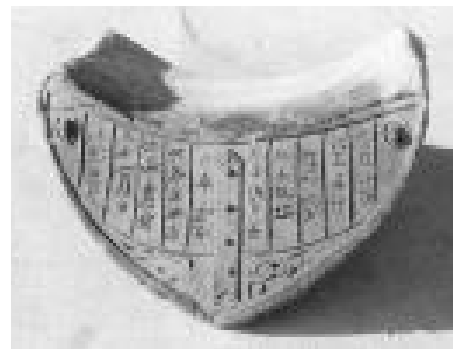
19) 당시 대장전 중수 시기는 상량문에 1665년으로 되어 있으나 당대 기록인 박세대의 <속용문사적기, 1688>에는 1670년으로 기록되어 있다.

1670년에도 추녀와 그 주위의 기와를 해체하고 수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로 2003년 대장전 수리시 수습된 명문이 있는 암막새 기와가 있다. 1666년(강희 5)에 만든 막새기와의 드림새에는 조성시기와 불사에 참여한 사람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 기와의 명문을 통해 1666년(강희 5)에 편수 보협과 장일선(張日善)이 기와를 만들었으며, 화주는 의탄(儀坦), 응엄(應嚴), 시주자는 선행(善行)이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중수상량문>의 1666년은 대장전 중수가 있던 해로 이에 관해 『속용문사적기』에는 "1670년(경술)에 의섬(義暹)과 의탄(義坦)이 서까래와 기와를 고치고 대장전을 수리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속용문사적기』와 전술한 암막새 명문에 기록된 승려 의탄(儀坦)은 동일인으로 보이며, 이것으로 보아 1670년은 대장전의 수리가 마무리 된 해로 보인다.

대장전에는 17세기말에 있었던 중수시 건축형식, 기법과는 거리가 있는 이전 시기의 건축형식도 보이나 전반적인 공포형식 및 건물 내외부에 연꽃을 주제로 한 장식이 많다는 점, 고주 처리가 주로 후대에 사용되는 수법이라는 점에서 조선후기의 건축양식을 따른 건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없다. 또한 2001~2004년의 대장전 해체수리시 있었던 목재 연륜연대조사에서 19세기에도 수리한 것이 확인되었다.

대장전은 내부의 윤장대와 특징적인 건축수법 외에 건물 내외에 베푼 용과 물고기 장식이 특징이다. 용과 물고기 장식은 “일찍이 서역의 구담(瞿曇)씨가 팔만대장경 전장을 용궁(龍宮)에 안치하였는데 이로 인해 대장전이 세워졌다”(昔之西域瞿曇氏所說八萬大藏經典藏置於龍宮故因以作大藏殿)는 중수상량문의 내용과 상통한다. 1767년 중수시에도 현재와 같은 대장전 형태와 구조를 그대로 유지했을 것으로 보이며, 이 같은 수 차례의 수리과정에서 다양한 시기의 부재와 조영수법이 잔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명문기와  
(2004년 용문사 대장전 수리보고서)

현대의 대장전 수리는 1962년에 옥개부 전면 해체 보수를 한바 있고, 그 후에도 수차례 수리한바 있다. 즉 1972년에 번와 및 부연 교체 공사, 1973년에 단청 공사, 1979년에 대대적인 보수공사가 있었다. 용문사는 1984년 5월 9일에 창고에서 난 화재시 보광명전, 해운루, 응향각, 영남제일강원, 요사, 종무소 등 230여 평의 건물이 소실되었으며, 이때 대장전의 연소를 막기 위해 보광명전과 대장전 사이에 있던 단하각(丹霞閣)과 응향각(應香閣)을 허물어 대장전이 연소되는 것을 막았다<sup>21)</sup>.

21) 예천 용문사에 불, 9일 오전 7시 15분경 예천군 용문면 용문사에서 원인모를 불이나 대웅전 등 사찰건물 5동을 태웠으나 이 절에 보관중인 보물 145호 대장전 등 3점의 문화재는 무사.(동아일보(1984. 5.10일자)

### 3. 건축특성

#### 1) 가람 배치

용문사는 신라 말 두운선사에 의해 창건된 후 10세기, 12세기, 17세기, 19세기 등 4번의 대대적인 중창 불사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창건 당시의 가람규모는 알 수 없으며, 10세기에 30칸(間)의 건물이 있었다는 것 외에는 가람의 규모와 배치를 알 수 없다. 12세기 자엄선사에 의한 가람 중창시 93개 건물이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寺域이 매우 컸음을 알 수 있으나 승방, 주방 및 당(堂) 삼칸만 언급되어 있어 구체적인 가람 배치는 알 수 없다. 다만 堂 三間에 윤장대 2좌를 설치했다는 기록으로 보아 12세기말에 윤장대를 가진 초기 대장전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용문사 전경(조선고적도보 12, 1932년)



용문사 전경(1980년대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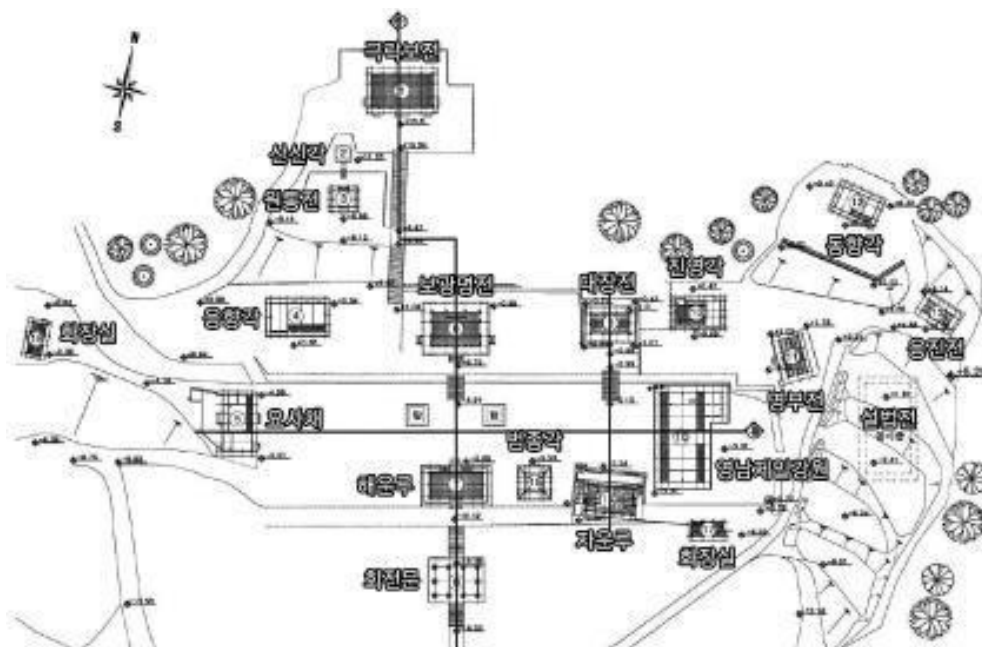
사찰의 배치를 개략적으로나마 추정할 수 있는 것은 17세기에 80여년에 걸친 사찰 중건에 관한 기록이다. <속용문사적기>에 기록된 전각 명칭은 출입문 2동(일주문, 천왕문), 누각 2동(범종루, 만세루), 전각 12동(광명전, 지장, 응향, 원통, 응진, 미타, 관음, 대장전, 십왕전, 금당, 축수전 및 향적전), 기타 건물 7동(적묵당, 제하당, 삼강실, 만월당, 一龕, 청심당, 명월료), 암자 3동(서전, 비전, 양로암) 등이다. 이 기록을 토대로 당시 가람배치를 추정해 보면 일주문을 지나 천왕문, 범종루, 광명전에 이르는 긴 진입과정을 거치는 산지가람의 배치기법을 채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에는 제하당, 적묵당의 북쪽에 광명전을 짓고, 적묵당 남쪽에 범종루를, 제하당 남쪽에 요사 또는 강당으로 추정되는 삼강실 및 만월당을 지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광명전과 범종루가 마주하고 있으며 양쪽을 제하당, 적분당, 삼강실 및 만월당 건물이 에워싸는 ‘口자형’의 가람을 형성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의 누각인 만세루는 현재의 紫雲樓로 추정되며, 현존하는 大藏殿의 명칭도 거론되어 있으나 현재와 같이 대장전과 자운루가 마주보는 배치였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한편 <속용문사적기>에 거론되는 시왕전은 현존 명부전, 神鏡大師의 영정을 모신 一龕을 현존하는 眞影堂으로 가정해본다면 적묵당 우측에 명월료, 자운루, 대장전, 대장전과 一龕, 十王殿, 축수전, 청심당으로 연결되는 또 하나의 영역을 가정해 볼

수 있다. 이밖에도 광명전 東에는 응향, 서에는 지장전이 있었다고 했는데, 1984년 화재시 불이 대장전으로 번지지 않도록 보광명전 동측에 있던 응향각을 철거하였다고 하는데서 응향의 존재는 확인되었다.



용문사 전경(Daum지도, 2012년)



2010년대 용문사 배치도(2010년 건축문화재 해체수리 자료집-사찰건축편)

여기서 하나 주목되는 것은 광명전, 관음, 미타, 금당 등의 건물 명칭이 1개 사찰 내에 모두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불교 교리의 분화로 각각의 소의 경전에 따라 주불전의 명칭이 다르다는 원칙에서 보면, 이 사찰은 17세기에 혹은 그 이전에 이미

通佛敎的인 성격을 띤 종합 사찰이었음을 알 수 있다. 건물 명칭에서 볼 수 있는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은 金堂이란 명칭을 17세기에 사용했다는 사실이다. 金堂이란 원래 금으로 칠한 불상을 봉안한 건물에서 유래한 것으로, 조선시대에는 이미 대웅전이란 명칭으로 변했음에도 용문사에서 계속 사용되었음은 흥미롭다.

이상의 고찰에서 12세기 93개 건물이 있던 대규모 가람이 황폐되었다가 17세기에 다시 대대적인 중창을 하여 문루를 거치는 긴 진입과정, 2개의 누각과 보광명전, 대장전을 중심으로 한 2개 영역의 형성, 광명전 일곽의 ‘口’자형 배치 등 현 가람배치의 골격이 이때 존재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이때는 앞에서 설명한 기본배치 외에도 많은 건물이 복잡하게 가람을 구성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2院 병렬형 배치는 고려시대 사찰인 안동 봉정사의 가람배치 등을 고려해볼 때 12세기 資嚴에 의한 중수시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17세기 때 중창된 가람은 19세기에 다시 화재를 만나 소실되었고, 1984년까지 여러 건물 등이 황폐화되어 17세기 가람의 기본골격만 남은 축소된 가람배치를 유지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용문사 경내에는 극락보전, 대장전, 동향각, 두운암, 명부전, 범종각, 보광명전, 산신각, 선경당, 설법전, 성보박물관, 영남제일강원, 원통전, 응진전, 응향각, 자운루, 진영당, 해운루, 화장실 4동 등 총 22동의 건물이 남아 있다. 오랜 세월을 전각이 화재로 소실되거나 용도가 바뀌는 등의 변천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으며, 현 용문사 가람 배치의 골격은 임란이후 이루어진 17세기말의 중창불사 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용문사의 가람배치는 1995년 이후 10여 년간 지속된 중건 및 보수 공사로 인해 가람은 크게 일신되었다. 1995년에 붕괴 위험이 있는 회전문을 해체하여 1997년에 당초 규모와 양식에 맞추어 중수하고, 1997년에는 대장전의 배면 지붕을 수리했다. 1999년에 명부전, 동향각을 수리했고, 2001년에 자운루 동측의 옛 건물이 있던 터에 화장실 1동을 신축했다. 2002년부터 2004년에는 자운루를 수리한바 있고, 2002년에 진영각과 강원 및 목불좌상 및 목각탱을 보수했다. 2003년에 윤장대, 일주문 및 대장전을 전면 해체 수리했으며, 이밖에 요사채 서측 옛 건물터에 화장실 1동과 식당 1동을 건립했다.

용문사의 현 가람배치는 회전문-해운루-마당-보광명전을 가람의 주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광명전 동측에 자리 잡고 있는 대장전은 남측의 자운루와 대향하여 배치되어 있으며, 자운루의 서측에는 범종각이 자리잡고 있다. 대장전의 동측에는 진영당이 있고 그 동편에 서향하게 명부전을 배치하고, 그 뒤쪽에 설법전이 자리잡고 있다. 대장전 앞 중정 동측에 영남제일강원이 배치되어 있다. 명부전의 동북쪽 떨어져 언덕 위에는 동향각과 응진전이 자리 잡고 있다. 보광명전에서 떨어진 북쪽 언덕에 극락보전이 남향하고 있고 그 앞남서편에는 산신각과 원통전이 자리 잡고 있다. 보광명전 서측에 남향하는 응향각이 자리잡고 있으며, 그 남측에 ㄱ자형 평면의 성보박물관이 건립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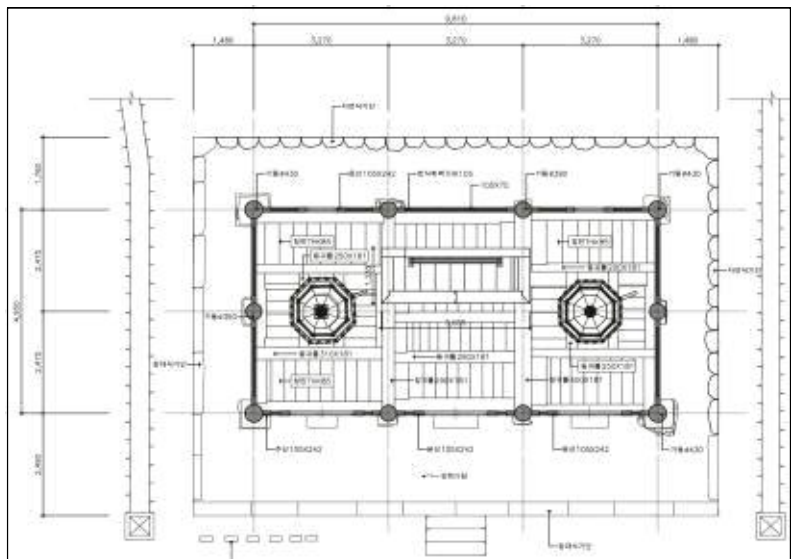
있다. 성보박물관의 서북측의 별도 영역에 두운암이 자리하고 있다.

용문사의 가람 배치는 보광명전과 대장전을 축으로 하는 병렬구조에 하나의 별원이 조합된 형식으로, 가람은 크게 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해운루를 중심으로 하는 서쪽의 보광명전 영역, 동쪽의 대장전과 자운루를 축으로 하는 대장전 영역, 보광명전 뒤쪽의 극락보전 영역이 그것이다. 이 같은 가람배치는 19세기 전반에 발생한 대화재와 1984년에 발생한 화재로 변화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17세기말에 형성된 가람의 기본 틀을 토대로 조금씩 변모시키면서 오늘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sup>22)</sup>

## 2) 평면

대장전은 단층 맞배지붕의 多包系 건물이다. 정면 3칸(32.73曲尺), 측면 2칸(16.33曲尺)으로 정면과 측면의 비는 2:1에 가까워, 전체적으로 세장한 느낌을 준다. 건물의 기단은 장대석을 세벌대로 쌓고 갑석으로 마감하여, 일반 사찰 건물의 기단을 갑석 등으로 쌓은 것에 비해 비교적 격식을 갖춰 쌓은 古式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용문사가 대규모 가람이었던 관계로 경제력이 풍부하였고, 대장전 속에 놓인 운장대의 중요성을 감안해 소규모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격식을 갖춰 축조한 것으로 보인다. 기단의 동측과 후면은 자연석 허튼층쌓기로 바뀌었으며, 기단 중앙에는 계단을 두었고 기단 上面에는 본래 전돌을 깔았으나 현재는 강회를 다져 마감하였다.

기단고와 지붕고의 比는 8.3으로 기단이 건물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이것은 대장전 아래의 석축 높이가 6m로 높아 대장전 아래 마당에서 건물을 바라볼 때 기단을 낮게 조성해도 이미 높은 기단 위에 건물이 놓여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지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된다. 초석은 자연석의 상면을 방형으로 평평하게 다듬어 사용하였다. 건물 초석의 가공법도 일반 사찰에서 자연석을 가공치 않고 사용하는 예와 비교해 볼 때, 대장전의 중요성을 고려한 의도적인 것으로 보인다.



예천 용문사 대장전 평면도

초석 위에는 원형의 평주 8개를 세우고, 측면에는 2개의 고주를 세웠다. 우주는 평주에 비해 직경이 다소 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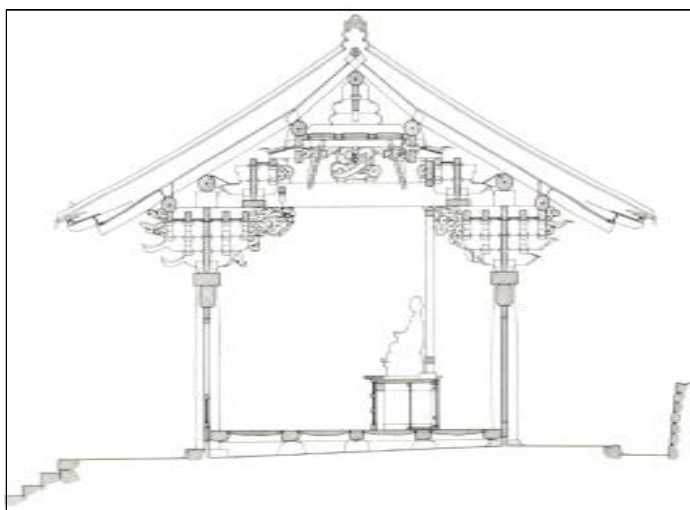
22) 홍병화(2006), 앞의 책, p.316

다. 평균 평주 길이의 주칸 거리에 대한 비율은 0.82로 다포계 건물의 특성을 보여 준다. 전후면의 네 귀에는 751mm의 귀솟음이 있으나, 안솔림 여부는 架構의 변형이 심하여 확인하기 곤란하다. 기둥 사이는 창방으로 연결하였다. 창방뿔목에는 봉황, 용, 물고기, 당초문과 연봉 등을 조각하였다. 창방 위에 평방을 놓았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측면 평방의 처리 기법이다. 다포 맞배지붕 건물에서는 불영사 응진전과 같이 측면에도 공포를 배열할 경우에는 평방이 전체에 걸쳐지나, 측면에 공포를 배열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림사 대적광전과 같이 평방을 걸쳐거나, 용문사 대장전과 같이 평방을 짧게 끊어 흔적만을 남기는 단평방 수법으로 구분된다. 평방뿔목은 장식 없이 직절했으나 평방과 평방이 맞대는 부분과 평방 마구리에는 花紋, 靑龍, 靑龍 조각을 붙여 건물의 장식성을 더하고 있다.

건물 내부에는 우물마루를 깔았으며, 청관의 끝에 흙을 두었다. 마루 바닥은 보수한 것이나 일부는 자귀자국 등이 남아 있는 古式의 것도 보인다. 측면의 高柱를 연결하는 선에서 약간 뒤로 물리선 위치에 불단을 설치했다. 불단은 현대에 만든 것으로 보인다. 별도의 내부 고주를 두지 않고 불단 위에 목각탱을 설치하였는데, 이 목각탱은 1684년(강희 23)에 제작된 것으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작품으로 보불 제 989호로 지정되어 있다. 불단에는 3구의 불상을 봉안하였다. 불단의 좌우에는 팔각형의 윤장대 2좌를 측면 高柱線에 맞추어 배치하였다. 한편 기둥 상부와 하부에 대하여 각각 주칸 거리를 실측하여 추정 完尺으로 산출한 기둥 상부의 영조척은 311.71mm이고 하부는 311.35mm로 나타났다.

### 3) 상부가구

용문사 대장전의 상부가구는 5량가로, 고주 없이 4분 변작(變作)하는 가구법을 사용하여 대들보를 얹은 중대공 위에 뜬창방을 끼워서 천장의 반자틀을 지탱하게 했다. 도리는 모두 원형 단면의 굴도리이고, 대들보는 전후면 공포의 사제공 위에 얹혀 있다. 양 측면의 경우 대들보의 중간지점에 고주를 세워 대들보를 지탱하게 했다. 대들보 위에는 두 개의 동자주를 세워 중보를 받도록 했으며, 동자주上部에는 초각한 보아지를 끼워 보강했다. 양측면의 동자주는 간략한 방형 단면의 부재이나 건물 내부



용문사 대장전 종단면도

에는 꽃병과 유사한 향아리형 동자주를 사용했다. 이런 향아리형 동자주를 사용한 사례는 찾기 힘들다, 우물반자를 어칸에만 시설함에 따라 노출되는 부분을 의식한 의장상의 고려로 보인다. 대들보 및 종보의 단면 형태를 살펴보면, 대들보의 경우 부석사 조사당의 대량과 봉정사 극락전의 종보와 유사한 향아리형 단면의 古材를 사용하는데 특징이 있다. 이는 대장전에 공포의 조성시기보다 앞서는 고려말 내지 조선 초기 건축수법이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종보 아래에는 장혀와 뜯장혀를 놓고 그 사이 소로를 끼워 건물을 횡 방향으로 연결시켜 주고 있다. 종보 위에는 판대공을 세워 중도리를 지지하였다.

건물 내부의 대량 상부에 사용된 판대공은 끝을 둥글게 굴린 판재를 중첩한 형태(운궁형)이고, 이와 달리 양 측면에는 간략한 제형판대공을 사용했다. 중도리와 중도리 사이에는 장연을, 그리고 중도리와 외목도리 사이에는 단연을 걸었으며, 연목의 끝은 가늘게 훑는 수법으로 치목했다. 전후면 서까래 위에 부연을 걸어 모두 겹쳐마로 처리하였다. 부연은 마구리를 사절하고 下端을 둥글린 형태로, 이러한 기법과 함께 옆면을 훑는 古式의 기법도 사용되었다.

내부 천장은 층급 천장과 연등천장을 혼합한 형식으로, 어칸의 중도리 하부의 內陣에는 장귀틀과 동귀틀을 걸치고 그 사이를 반자청판으로 막은 우물천장을 시설했다. 우물반자 귀틀에는 초각한 小爛을 대어 치장했다. 이에 반해 좌우 협칸의 內陣에는 연등천장을 시설했다. 건물 내부 이중포의 출목 첨차와 중도리 장혀 사이를 경사지게 막아 빗천장을 형성했으며, 이 빗천장은 건물 전후면에 시설되어 있다. 공포 내 외부의 出目 사이를 순각판을 이용하여 막았으며, 건물 내부의 이중포의 출목 사이에도 순각판을 사용했다.

어칸과 달리 건물의 양 퇴칸을 연등천장으로 처리한 것은 하부에 설치되어 있는 윤장대의 양감과 화려함 장식성으로 인해 별도의 천장을 구성하여 장식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며, 별도의 천장을 시설할 경우 협소한 내부공간이 번다해질 것을 고려하여 생략한 것으로 보인다. 대장전 천장에는 별도의 단집을 시설하지 않고, 어칸의 불상 위를 장식함으로써 단집을 역할을 대신 하도록 했다. 즉 대들보와 종보 사이에 꿈틀대는 용의 형상을 조각한 부재를 후·좌·우의 삼면에 장식하는 것으로 단집을 대신했다. 이 기법 역시 내부 공간의 협소함을 숨씨 있게 처리하기 위해 고안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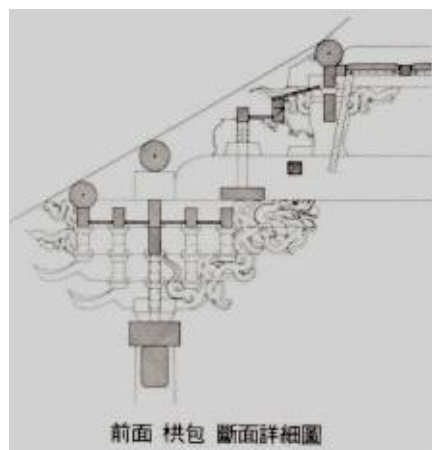
지붕은 맞배지붕으로 용마루와 내림마루를 두고, 양 측면에는 풍판을 설치하지 않고 박공판만 시설하여 마감했다. 전면 일부 수키와에는 백자로 만든 연봉이 남아 있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대장전은 다포계 맞배지붕의 절충 형태의 건물로, 대들보 및 종보의 향아리형 단면형태 등에서 초기 수법을 일부 발견할 수 있으나, 전면 공포 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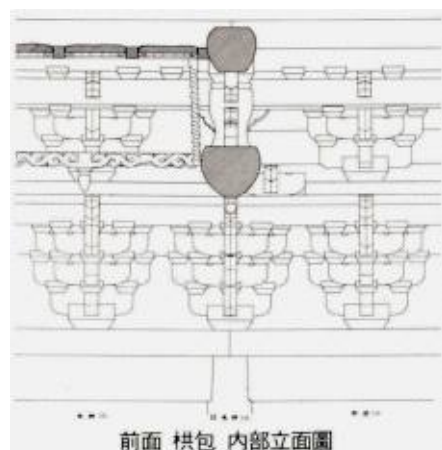
端이 원호를 그리며 올라가는 수법, 1, 2제공 내단이 교두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3, 4 제공의 내단이 초각되는 조선중기의 특징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 건물 내외부의 조각들이 조선후기의 나약함이 아닌 정교함을 나타내 17세기말의 건물로 판단된다.

#### 4) 창호 및 공포

건물 전면(前面) 매 칸에는 두 짝의 교살 분합문을, 후면 양 퇴칸에는 외짝 세살문을 각각 달았다. 반면 좌우 측면에는 창호를 시설하지 않았다. 전면 매칸에는 폭 216~254mm의 문선을 설치하고, 상방 및 하방을 이용하여 문얼굴을 구성했다. 상방과 문선은 반연귀맞춤으로, 문선과 하방은 장부맞춤으로 결구했으며, 문선과 주선 사이의 가로울거미는 제비초리맞춤을 하였다. 상방과 주선 및 문선에는 쌍사를 넣어 치장했다.



전면 매 칸에는 궁창널이 있는 두 짝의 교살문을 달았는데, 세로 울거미는 안쪽을 변탕하여 모접이 한 것으로, 문살은 12×51mm인 부재를 古式의 투밀이 기법을 사용 치목한 것이다. 후면의 양 퇴칸에는 평균 214.5mm 폭의 문선을 세우고 상방과 인방을 이용하여 문얼굴을 만들고 거기에 궁창널이 있는 외짝의 띠살문을 달았는데, 문짝의 크기는 750×1,730mm 또는 753×1,725mm이다. 세로울거미는 단면이 59×66mm인 부재의 안쪽을 변탕 모접이하어 사용했다. 가로 울거미는 60×60mm 단면의 부재를 변탕 모접이한 후 쌍사로 치장했다.



대장전의 공포는 전후면 모두 내외 2출목의 포작을 한 것으로, 공포 위에 대들보를 얹어 상부 하중을 지지하도록 했다. 공간포는 매칸 2구씩 배열했다. 전면과 후면의 공포는 제공살미의 형태가 다르며, 귀포는 모두 전면 공포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 정면과 측면에서 건물을 볼때 공포의 형태가 동일하게 보이도록 했다.

건물 내부 전후면 공포의 사제공 위에 얇은 평방형 부재를 걸치고 1출목의 공포를 매 칸마다 2구씩 배열한 점이 독특하다. 대개 판재를 중첩하고 그 사이에 벽체로 마감하나, 용문사 대장전과 같이 공포로 대신하는 경우 내부공간의 의장효과가 더욱 돋보이게 된다. 이러한 수법은 청도 운문사 대웅전과 산청 울곡사 대웅전 등에도 사용되었다.

주두와 소로는 多包系의 일반적인 기법을 따라 굽을 사절한 형태이다. 첨차는 마구리는 직절(直切)한 교두형이다. 첨차의 공간은 주심첨차를 제외한 출목첨차에만 두었는데, 소로 가까이 조그맣게 원호형으로 따낸 독특하다. 전면 공포의 초제공과 이제공 쇠서는 약한 양서형으로 그 끝이 원호를 그리면서 올라가는 조선중기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삼제공은 수서 밑에 연봉을 조식한 형태이고, 사제공은 당초문을 초각한 수서형으로 외2출목도리를 받는 받침재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전면공포의 초제공과 이제공 內端은 공간포의 경우 교두형을 유지하고 있으나 삼제공과 사제공은 초각을 하는 등 조선후기에 공포의 제공살미 내단이 운공 등으로 화려하게 장식화하는 수법과는 다른 중기적 특징을 잘 보여준다. 건물 후면의 초제공과 이제공 살미의 外端은 삼분두형으로 관룡사 대웅전의 삼제공, 사제공과 비슷하다. 이러한 형태는 후면 공포를 전면에 비해 간략하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삼제공과 사제공 끝부분의 치목 수법이 전면 공포와 같아 조선초기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건물 내부 공간포의 초제공과 이제공살미를 교두형으로 처리한 것은 전면과 같은 수법이다. 다만 전후면 주상포의 경우 초제공에서 사제공까지 당초문, 연봉, 용 등을 화려하게 초각하여 장식했으며, 건물 내부에 놓인 공포의 초제공 內端은 마구리를 직절하고 밑을 사절(斜切)한 형태이고, 外端은 후면 공포의 초제공처럼 삼분두 형태로 되어 있다. 이제공의 내단은 초각하여 장식했으며, 外端은 아래를 반턱 따낸 특이한 모습을 하고 있다. 내부의 이중포(4제공 상부의 공포)에도 외부와 같은 형태의 공간을 따냈다.

## 5) 단청

대장전의 외부 단청은 1973년 보수 공사시 새로 채색한 것이나 내부에는 옛 단청이 퇴색한 상태로 남아 있다. 내부 단청을 살펴보면 창방에는 병머리초에 별지화로 용을, 평방에는 십자금으로 끝을 장식하고 그 다음에 반연화머리를 아래 위로 빗겨서 결련하였다. 계풍에는 범어(梵語)를 적어 놓았다. 대들보에는 연화머리초에 별지화를 용으로 장식하였다. 전후 포벽에는 보살화를 그렸다. 이중포의 상벽에는 회사벽으로 마감한 채 별도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 천정의 반자 청판에는 봉황을 그렸다. 종다라니초는 중앙에 주화, 주변에는 곱팡이 문양 및 휘를 돌렸다.

건물 外部 단청의 색조는 1973년 보수시 새로 개칠한 것이나 단청 문양은 퇴색된 당시 문양을 그대로 살렸으므로 현존 문양을 옛 단청의 문양으로 볼 수 있다. 기둥 상부에는 致尊柱衣를 드리웠으며, 창방에는 장구머리초에 별지화로 청황룡을 그렸다. 평방에는 연화머리초에다 계풍에 십자금을 장식한 것으로, 중간에는 비천도를, 도리에는 연화머리초에 십자금에 주화를 장식했다.

주두에는 향아리에 녹화를, 소로에도 주두와 같은 문양을 시채했다. 첨차의 경우 몸에는 직휘를 긋고 端部는 향아리와 녹화 외에 휘를 들렀으며, 마구리에는 육매화 점을 찍었다. 제공 살미에는 당초문을 그렸다. 전면과 달리 반면 후면의 주두, 소로 및 첨차에는 긋기만 했으며, 창방과 평방의 머리초 문양은 前面과 같으나 계풍에는 별지화 없이 긋기만 했다. 前面 서까래에는 연화머리초와 반주화머리초에 솟을죽대 금으로 장식하였으나 후면의 서까래에는 솟을죽대금 없이 그냥 긋기만 간단히 처리했으며, 서까래 마구리에는 겹연화 머리를 시채했다. 전면의 부연 머리에는 녹화에 휘를 긋고 보상화무늬를 배풀었다. 반면에 후면 부연에는 녹화에 긋기만으로 간략히 처리했다. 개판에는 고리죽대솟을금을 그렸다. 전면 외부의 불벽에는 각종 花草紋을 배풀었다.

용문사 장전의 단청은 금당청의 형식을 띠고 있으나, 외부의 양 측면과 배면은 간략한 문양을 사용한 모로단청으로 시채 되어있다. 이는 재료 수급과 사찰의 재정 상황을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현재 대전의 내부단청은 수차례 수리공사에도 불구하고 고단청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이며, 외부 단청은 1973년 보수공사시 새로 채색하였으며, 2004년 해체공사 시 교체 부재에 한해서 부분적으로 고색단청을 하였다.

금단청으로 시채된 내부 단청은 녹색을 주조색으로 하여 삼청과 육색, 황색 등을 배색하고 변엽곱팽이를 사용하였다. 초빛과 이빛의 비율은 等比에 가까우나 곱팽이의 경우 초빛이 조금 더 크고, 연화의 경우 이빛을 초빛보다 크게 시채하였다. 대량과 창방의 계풍에는 용을 장식하였으며, 포벽에는 여래좌상을 도채하였다. 내부의 단청은 시기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전체적으로 조선중기의 단청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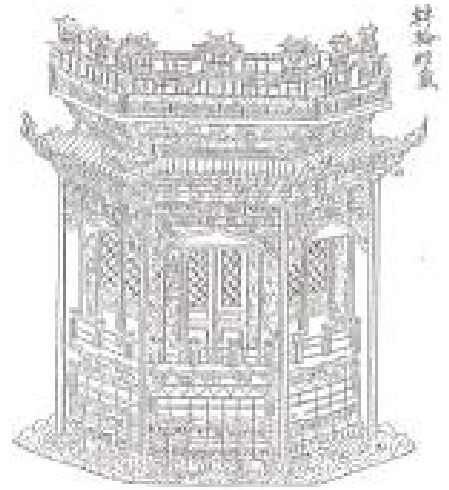
## 6) 윤장대

용문사 대장전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2좌의 윤장대(보물 제684호)는 불교 경전을 보관하는 회전식 경장(經藏)으로 불단을 중심으로 좌우 양쪽에 대칭으로 1기씩 놓여 있다. 윤장대는 높이 4.2m, 둘레 3.15m의 규모의 팔각형으로 치밀하면서도 정교하게 짠 공포(栱包)를 놓고 겹처마의 팔작지붕을 올린 다포(多包)계 건물의 모습이다.

윤장대는 중국 남북조시대에 포교의 수단으로써 창안되어 경전(經典)을 숭앙하는 경전신앙(經典信仰)의 대상으로 신봉되어 왔다. 특히 宋代에 성행했던 중국의 윤장대가 고려전기에 전해져 용문사 뿐 아니라 당시 왕실과 관련이 있던 대찰에 조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존 자료에 따르면 조선전기까지는 고려 때 만든 윤장대가 여러 사찰에 남아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송유억불의 정책을 추진한 조선시대에는 새로운 윤장대가 거의 조성되지 않았고, 남아 있던 고려 윤장대도 임진왜란 등 전란을 겪으면서 용문사의 윤장대를 제외하고는 멸실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윤장대는 「龍門寺重修碑」에 1173년(명종 3)에 자엄대사(資嚴大師)가 대장전과 윤장대를 건립했다는 기록으로 보아 12세기말에 처음 만든 것으로 보인다. 윤장대 내부 墨書銘에 ‘天啓元年(1621년)重修’라는 기록이 있어 17세기 초에 수리한 것으로 보이고, 이밖에 事蹟記에 1670년(현종 11)에 수리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지금의 윤장대는 17세기 초와 말에 중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조선중기의 화려하고 정교한 목공 예술과 조형미를 잘 보여준다.

윤장대는 팔경을 소장하는 불교의식 용구로 일종의 불감(佛龕)으로 볼 수 있다. 송(宋)의 이명중이 쓴 『영조법식』에 「轉輪經藏圖」가 보이는데, 이름과 형태가 2유사하다. 윤장대는 하대, 몸체부 및 옥개부의 세 부분으로 구분되는데, 중앙에 원형 기둥을 세워 하부는 석재로 만든 둔대에 끼워 고정했으며



전륜경장, 《영조법식》 권 11 <소목작제도>

몸체부에는 팔각형의 평면에 따라 기둥을 세우고 창호를 설치하였다. 서측 윤장대는 내소사 대웅전 등에서 볼 수 있는 꽃살문을, 동측 윤장대는 교살문을 달고, 내부에 경전을 보관하였다. 몸체부의 상부에는 퇴칸을 달아냈는데, 여기에 기둥, 창방, 평방 등을 두어 목조 건물을 그대로 형상화했다. 기둥과 창방 사이는 낙양각 등으로 화려하게 장식했다.

용문사 대장전 내부의 윤장대

평방 위에는 외6출목의 화려한 다포계 공포를 올렸는데, 공포는 주상포 외에 매칸 3구의 공간포를 배치한 형식이다. 귀포는 출목이 교차하는 부분마다 제공을 두어 화려하게 구성하지 않은 간략한 초기수법을 잘 보여 준다. 윤장대의 지붕은 서까래와 부연을 둔 겹처마의 팔모지붕 형태이다.



좌측 윤장대(좌)

우측 윤장대

### 한중일 삼국의 윤장대 비교

구 분	한국 <sup>23)</sup>	중국 <sup>24)</sup>	일본 <sup>25)</sup>
명칭	예천 용문사 윤장대 (醴泉 龍門寺 輪藏臺)	용흥사 전륜장전 (隆興寺 轉輪藏殿)	안국사 경장 (安國寺 經藏)
윤장대 (윤장, 전륜장)			
대장전 (전륜장 전,경장)			
지정종목	대장전(보물 제145호) 윤장대(보물 제684호)	국가중점문화보호단위 1차 (고건축/역사기념건축물)	국보 제213호(건조물)
지정일	대장전(1963.01.21) 윤장대(1980.09.16)	1961.03.04	1963.07.01
수량	2기	1기	1기
윤장대 규모	높이 4.2m, 둘레 3.5m	직경 7m, 높이 8m, 팔각누각 한 번 2.6m	-
대장전 규모	3×2, 단층	3×3, 중층	3×3, 중층
소재지	경북 예천 용문사	허베이성 스자좡시 (河北省 石家庄市 正定县)	기후현 타카야마시 안코쿠지 (岐阜県 高山市 安国寺)
시대	1173년(고려 명종 3) 1621년 윤장대 중수	969년 건립 1365년 이전(북송 중기)	1408년(무로마치, 応永15)
특징	한국 최고, 동양 유일의 쌍륜장	현존 최고, 용흥사 전체가 국 가중점문화보호단위	일본 최고 윤장(輪藏)을 포함한 건물 전체가 국보

윤장대는 1173년에 초창된 후 1621년에 중수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전각형의 기본 형태와 회전 몸체를 갖춘 기본 구조는 중국 송대 전륜장과 유사하나 그 보다 규모가 작고 한국의 조형특성을 잘 표현한 귀중한 불교관련 문화유산이다. 보존상태로 볼 때 초석과 회전축은 초창시의 원형 그대로일 가능성이 높으나 옥개와 난간, 창호 등은 중수기록과 부합되는 조선중후기 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형도 당초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중수 시 외부 조형도 그 원형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중수 당시의 새로운 양식과 수법을 적절히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교 경전을 보관하는 전륜장전(經藏)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중국의 용흥사 전륜장전

23) 문화재청 문화유산데이터베이스(<http://www.cha.go.kr/>) 자료 정리 인용

24) 중국 하북성, 요녕성의 고건축\_국립문화재연구소 자료 정리 인용

25) 일본문화청 문화유산데이터베이스(<http://bunka.nii.ac.jp/>) 자료 정리 인용



(969년)과 한국의 용문사 대장전(1173년 창건), 일본의 안국사 경장(1408년)이 있다. 중국과 일본의 經藏은 공히 중층 건물인데 반해 용문사 대장전은 단층 건물이긴 하나 내부에 2좌의 경장을 구비하고 있다. 위 사례 모두 경장의 평면형태가 팔각형으로 되어 있다는 점은 공통점이다.

고려·조선시대 경장 건축 사례(이경미, 2007)

명칭	규모 (칸)	명칭	규모 (칸)	명칭	규모 (칸)
범어사 대장전(고려전기)	3	부인사 경판고(미상)	5×4	각립사 문루(1417)	-
직지사 대장전(1190전후)	-	용암사 신전(1318)	-	운각사 해장전(1465)	-
직지사 전륜전(고려)	3	문수원 전경대	-	해인사 장경판당(1491)	15×2
직지사 해장전(고려)	5	승천사 대장경각(1323)	13	유점사 해장전(1632)	-
정림사 대장(1028)	-	보광사 해장(1343)	-	보현사 대장전(1634이후)	-
혜음원 건물지(1122)	3×1	장안사 경장(1345)	-	금산사 대장전(1635)	3×3
흥왕사(1124)	-	승련사(1364)	-	신광사 해장전(1720)	-
<b>용문사 당삼간(1173)</b>	3	회암사 대장전(1376)	3×2	송광사 대장전(1725)	3×3
지족사 건물지(1157-1158)	1×1	용문사 대장전 (지평, 1378)	3	광흥사 해장전(1760)	-
금산사 대장전	3×3	신록사 대장각(1382)	-	해인사 구광루(조선후기)	-
금산사 해장전	50	연복사 사리탑	-	송광사 화엄전(1800 중수)	-
봉정사 극락전(1250 추정)	3×4	흥천사 사리각(1399)	-	봉은사 판전(1855)	-
수선사 경판당(1197-1204)	3	덕안전 정전(1401)	-		

용문사 윤장대는 작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전통 목조건축을 그대로 축소하여 옮겨 놓은 것처럼 그 표현이 매우 정교하고 세련된 수작(秀作)이다. 또한 용문사의 윤장대는 중국의 크고 화려한 단독 윤장대에 비해 아담하면서 고아한 단청과 함께 나무의 목리(木理)를 그대로 표현하는 등 소박한 조형미가 특징이다. 용문사의 윤장대는 동북아시아 불교문화의 귀중한 유산이자 국내 유일의 전통 윤장대라는 점에서 학술적,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크다. 하지만 오랜 세월에 노후하여 파손또는 망실된 부재를 수리하면서 오히려 문화재의 진정성과 원형을 다소 훼손된 점은 아쉬우며 앞으로 충분한 연구를 통해 원형대로 복원해야할 필요가 있다.

#### 4. 조사자 의견

용문사 대장전 및 윤장대는 1173년에 함께 초창되었으며, 윤장대 내부에서 발견된 묵서 명에서 1621년(천계 원년) 중수했다는 것으로 봐서 17세기 초에 윤장대를 수리한 것으로 보인다. 용문사의 대장전과 윤장대는 고려시대에 일체형 구조로 건립되어

현재까지 원래 용도와 기능을 충실하게 보전하고 있는 국내 불교 경장건축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대장전은 1972년 수리시 <예천 용문산 창기사 대장전 중수상량문, 1767>이 발견되어 1173년(대정 17)에 초창한 이후 1467년, 1534년, 1597년, 1665년까지 다섯 차례의 보수가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그 후 1670년, 1767년에도 중수한바 있으며, 현대에는 1962년의 변화 보수를 시작으로, 1972년에도 지붕 변화 보수가 있었고, 1973년에 외부 단청공사, 1970년에 기단 및 계단 보수, 1996년에 배면지붕 기와 보수, 2001년에 전면 해체수리, 2010년에 윤장대 해체 수리가 있었다. 이 같은 수리공사로 인해 구조부를 제외한 상당한 부식재를 교체하고, 외벽을 새로 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종합해보면 대장전은 다포계 맞배지붕의 절충 형태의 건물로서 대들보 및 종보 단면 형태 등에서 초기의 수법을 일부 발견할 수 있으나, 전면 공포 外端이 원호를 그리며 올라가는 수법, 1, 2제공 내단이 교두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3, 4제공 내단이 초각되는 조선중기의 특징을 강하게 보이고 있으며, 건물 내외부의 조각들이 조선후기의 나약함이 아닌 정교함을 나타내 17세기말의 건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 대장전은 십여 차례이상 수리한 건물이나 윤장대를 보관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특징적인 경장건축이라는데 타 불전과 구별되는 독특한 가치가 있다. 대장전 내부에 보존되어 있는 2좌의 윤장대는 전통목조건축의 조형 원리를 치밀하게 적용하여 만든 경장으로, 옥개, 난간, 창호 등 외부 조형에서 중수 기록과 부합되는 조선중기 목조건축의 양식적 특성이 잘 남아 있어 학술적,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크다.

현재 대장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건물로 초창이후 ‘당삼칸’은 큰 변화 없이 지속 되어왔다. 가구는 5량가로 대들보 위에 동자주를 세워 종보를 받고 있으며, 창방 뺨목과 평방마구리는 용, 화문 등의 조각으로 장식성을 더하였다. 대들보와 종보의 단면 형태 중 일부가 향아리형으로 되어 있다. 이 부재는 조영 당시의 부재가 남아 있는 것이거나 중창 시 기법을 따른 것으로 고려 말 내지 조선초기의 수법으로 보인다.

대장전의 상부가구와 공포형식 및 세부 수법을 살펴보면 쇠서가 유연하게 올라가기 시작하고, 공포를 비롯해 건물의 내외부에 연꽃의 장식요소가 강조되어 있다는 점에서 17세기말의 건축으로 볼 수 있으며, 그러나 측면 대량 하부에 고주를 사용하여 받친 수법 등은 후대에 주로 쓰이는 수법이라는 점에서 조선후기에 수리하면서 개변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공포와 상부가구 및 내부단청에서는 타 불전과 구별되는 특징이 보이지만 외벽구성과 창호형식 등에서는 뚜렷한 특징을 찾기 어렵다. 하지만 내부에 윤장대를 설치하여 불경을 봉안하기 위해 12세기말에 건립되어, 여러 번 중수를 거치면서도 원래의 규모와 용도를 유지해온 윤장대가 설치된 법보전의 유일한 사례라는 점이 용문사 대장전의 가장 큰 가치라고 할 수 있다.

대장전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윤장대의 경우 전각형의 기본 형태와 회전체 등 기본적

인 구조는 중국 송대 전륜장 형식, 구조와 유사하며, 현재까지 큰 변화 없이 원형이 보존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용문사 대장전의 윤장대는 고려시대에 초창되어 여러 번 중수한 경장으로, 당초 용도와 기능을 잘 간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선중후기의 조형 특징도 잘 가지고 있다. 특히 세부 조각기법과 고아한 단청, 목리의 이용 등에서 보이는 예술적 가치는 우리나라 불교 공예품의 정수로서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 《조선고적도보, 1932》, 《국보도록, 1968》에 당시 사진이 남아있어 불교 건축은 물론 공예적 원형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재의 진정성과 완전성도 높은 편이다.

이처럼 용문사 대장전 및 윤장대는 당시의 불교 경장 건축의 원형과 시기적 변천 특징이 기록 요소와 함께 잘 남아있고, 동아시아 불교문화의 귀중한 자료라는 점에서 역사적·학술적·건축적·예술적·기술적 가치가 크다. 특히 국내 유일이라는 절대적 희소성과 상징성을 고려해 볼 때, 국보로 승격시켜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국보 지정 명칭은 예천 용문사 대장전 및 윤장대로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18. 10. 30.	대상문화재	예천 용문사 대장전 및 윤장대 (보물 제145호 / 보물 제684호)	
조사자	성명	○○○	전공 분야	건축사
	소속		직위(직책)	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문화재 명칭	예천 용문사 대장전 및 윤장대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9 년 3 월 4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1. 예천 용문사의 입지와 창건 연혁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내지리 391번지에 위치한 용문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8교구 직지사의 말사이다. 현재 용문사에는 이번 지정 조사의 대상이 되는 대장전(보물 제145호)과 그 내부의 윤장대(보물 제 684호) 외에도, 감역교지(보물 제729호), 목조아미타삼존좌상(보물 제989-1호), 목조아미타여래설법상(보물 제 989-2호), 팔상탱(보물 제1330호), 영산회괘불탱(보물 제 1445호), 목조아미타여래좌상(보물 제 1637호), 천불도(보물 제 1644호) 등 7점의 국가급 문화재가 있으며, 천불도와 중수용문사기비, 자운루 등은 경상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서, 건축과 회화, 공예, 전적의 전 분야에 걸쳐 뛰어난 불교문화 유산을 소장하고 있는 유서 깊은 사찰이라 할 수 있다.

용문사의 연혁과 관련하여서는, 사찰에 전하는 사적기를 우선 참고할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오래된 기록이라 할 수 있는, 이지명(李知命)의 ‘중수용문사기(重修龍門寺記, 1185)’에는 신라 경문왕 7년 戊子年(748) 두운(杜雲)선사와 범일(梵日)국사(810-889)가 당에서 돌아와 이곳에 초암을 짓고 정진하였다고 하는데, 경문왕 7년은 867년 丁亥年이고, 또 범일국사의 생몰년을 생각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 경문왕대의 戊子年은 경문왕8년(868)이 된다.

한편, 전술한 이지명의 ‘중수용문사기’와 함께 절에 전하는 다른 두 개의 사적기 즉, 박세대의 ‘속용문사적기(續龍門事蹟記, 1688)’과 이광직의 ‘용문사기(龍門寺記, 1818)’ 모두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으로, 고려 태조가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이곳에 이르러 두운 선사를 만났고, 통일 후 조서를 내려 건물을 짓고 공양비를 마련해주었다고 한다. 이 기록을 믿는다면 범일과 관련되어 草庵을 지어 수양하던 단계를 거쳐, 사찰의 면모를 갖춘 것은 고려초의 일로 볼 수 있다.

한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 따르면, ‘김룡사본말사지(金龍寺本末寺誌, 1839)’와 『신증동국여지승람』을 인용하여, 두운 선사는 용문산에 수도하며, 870년(경문왕10)에 용문사를 창건하고, 883년(현강왕9)에 회방사를 창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 직선거리로 5km남짓 떨어져 인근에 자리한 명봉사(鳴鳳寺) 역시 두운선사에 의하여 신라 현강왕 원년(875)에 창건되었다고 전한다. 회방사와 용문사 사이도 직선거리로 20km남짓에 불과하여, 이 절들이 모두 두운선사와 관련되며, 또 모두 한 지역권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동해안을 나란히 내달리던 백두대간이 태백산에서 내륙으로 방향을 꺾어 뺏어나가면서 소백산-월악산-속리산의 줄기를 만들어 영남 지역을 한반도내 다른 지역과 구분하는데, 그 소백산과 월악산 사이의 산 아래쪽에 이들 사찰이 모두 위치한다. 그러므로 이들 사찰들은 먼저 개창된 풍기의 부석사나 문경의 김룡사를 좌

우로 두고, 백두대간의 줄기 아래에 위치하는, 교통의 요지이자 군사적 요충에 자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사전의 사적기들과 관찬 지리지의 기록, 입지 조건과 창건주의 활동 등을 감안하면, 예천 용문사가 신라말 초암의 단계로 개창되어, 늦어도 고려초에는 본격적인 사찰의 면모를 갖추었다고 보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용문(龍門)이라는 사호를 말하는 설화 역시 고려 태조와 관련되어 있다.

## 2. 예천 용문사의 건축 연혁

고려시대 용문사의 연혁 가운데 주요한 것은, 의종19년(1165)부터 명종9년(1179)까지의 15년 동안 조응(祖鷹)선사의 시주와 그의 제자 자엄(資嚴)선사의 주도로 크게 중창 불사가 이루어져서, 도량당과 승방, 주방, 창고, 9층의 靑石塔 등 93개소를 짓고 각종 불구와 생활도구를 갖추었다는 기록이다. 그 사이 명종원년(1171)에는 태자의 태를 절의 문밖 좌비봉(左臂峰) 봉우리에 봉안하고, 용문사에서 왕의 장수를 축원하는 대법회를 열고, 절에 토지 30경과 노비 2명을 용문사에 소속시켰다고 한다. 고려 제19대 왕인 명종은 1170년 무신의 난 이후 무신들에 의해 옹립된 왕으로써, 이때 용문사는 문벌귀족과 연결된 개경 중심의 사찰들을 대신하여, 무신과 관련된 왕실의 후원에 의하여 성장하여 왕실의 경제적 기반이 되는 상호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물인 윤장대 2기는 이러한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윤장대는 명종3년(1173) 명봉사에 주석하고 있던 대선사 조응의 발원으로 완성되는데, 이 해는 의종의 복위를 도모하여 문신 중심으로 일어난 김보당(金甫當)의 난이 있었던 해로서, 난은 실패로 끝나고 경주에 유폐되어 있던 전왕 의종은 살해된다. 정권을 차지한 무신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끊이지 않아서, 이고(李高, ?-1171), 채원(蔡元, ?-1172), 이의방(李義方, ?-1174) 등이 차례로 살해되고 정중부(鄭仲夫, 1106-1179)와 경대승(慶大升, 1154-1183) 등도 단기간의 집권에 그치면서, 1196년 마침내 최충헌(崔忠獻, 1149-1219)이 정권을 차지하고, 그 이듬해 명종을 퇴위시킬 때까지 명종의 즉위 26년은 극심한 혼란의 시기였다. 윤장대의 조성은 이와 같은 국가적 혼란의 와중에 불교의 힘으로 민심을 통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진 일로 볼 수 있다.

한편, 대규모의 중수 공역이 끝난 후인 명종15년(1185)에는 한림학사 이지명이 지은 ‘중수용문사기’를 담은 비석이 세워져 있는데, 현재 전하는 사찰 내의 가장 오래된 금석문이 된다. (그림 1.)

조선시대에 들어서 처음 등장하는 기사는 세종의 왕비인 제헌왕후의 태실과 관련된 것이다. 세조3년(1457) 세조는 교지를 내려 용문사의 잡역을 면하게 하였는데, 그 내용을 담은 ‘명역사패교지’와 ‘교지함’은 보물 제729호로 지정되어 있다.(그림 2.) 제헌왕후의 태실비는 성종9년(1478)에 세워졌다.

중종 10년(1515)에는 역시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보광명전의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의 중수가 이루어졌음을 복장 발원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임진왜란 이후 용문사의 여러 전각들에 대한 자세한 연혁은, 숙종 14년(1688) 박세대가 지은 ‘속용문사적기’에 자세하다. 여기에는 임진란이 끝난 직후인 1608년부터 사적기가 쓰여지는 1688년 사이의 중창 불사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



그림 26 중수용문사기비



그림 27 번역사패 교지와 교지함

되어 있다. 1608년의 제하당, 1636년의 적묵당, 1637년의 범종루, 1649년에는 광명전과 지장전, 응향각 등이 차례로 중창되었다. 또 원통전, 삼삼전, 응진전, 미타전, 삼강실, 만원당 등도 지어졌으며, 또 그 사적기 이후인 1670년에는 대장전을 중수하였다는 기록이 등장한다. 1681년에도 만세루의 건립이 있었고, 1682년에는 시왕전을, 1683년에는 금당(미타전으로 추정)을, 1684년에는 축수전을 세움과 함께 시왕전의 시왕상과 금당의 부상을 조성하였다. 또 1687년에는 청심당과 명월료를 세웠고, 1688년에는 천왕문을, 1689년에는 일주문과 향적전을 지었다.

얼핏 보아도, 1608년부터 1689년까지 80여 년 동안 26채의 건물들이 새로 지어지거나 중수하고, 부근에 암자도 짓는 등 공사가 끊이지 않고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단지 건축 불사에 그치지 않고, 불상과 탕화 등의 조성도 함께 이루어졌다. 용문사의 전성기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이며, 조선시대에 들어 이와 같은 대규모의 중창 불사가 일어나는 것은 드문 일이다. 이러한 중창 불사에는, 후에 인조의 조모가 되는 선조의 후궁 인빈궁(仁嬪宮)의 시주가 컸고, 또 권(權)씨 등 예천 일대의 유력 가문이 아미타삼존불좌상의 대시주로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들 유력 재지사족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건물의 이름으로 보아서, 광명전, 미타전(금당), 대장전 등이 주법당으로 생각되며, 원통전, 지장전, 응향각 등의 부전각과 함께, 강당과 종루, 산문을 두루 갖춘 대규모 사찰이 이 시기에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8세기가 되면, 건축 불사보다는, 불화의 조성이 활발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705년에 조성된 괘불은 현재 용문사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불화이며, 이어서 1709년에 제작된 팔상탱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팔상탱으로 중요하다. 건축 공사와 관련해서는 1767년에 대장전의 중수가 있었음을 상량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18세기와 19세기에 걸쳐서도 용문사에 관련된 각종의 기록들이 남아있어, 당시의 용문사의 위세와 활동을 살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특별히 왕실의 후원과 관련된 단확(단청) 불사의 기록들, 왕실을 위시하여, 승과 속의 많은 인원들의 기일을 적어놓은 ‘기일록’ 등은, 조선후기 사찰의 운용과 왕실 및 재지 사족과의 관계를 연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용문사 가람배치는 보광명전과 해운루를 중심축으로 하는 서쪽의 보광명전 영역, 대장전과 자운루를 중심축으로 하는 동쪽의 대장전 영역, 보광명전의 뒤쪽에 별도로 구성된 극락보전 영역 등 3곳의 불전 영역으로 구분된다.

이와 같은 가람 배치 형태는 19세기 전반 대화재와 1984년 화재로 피해를 입은 후 복구되거나 확장되었지만, 전반적으로는 17세기에 형성된 기본 틀이 지속된 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재 건물의 총수는 극락보전, 대장전, 동향각, 두운암, 명부전, 범종각, 보광명전, 산신각, 선경당, 설법전, 성보박물관, 영남제일강원, 원통전, 응진전, 응향각, 자운루, 진영당, 해운루, 화장실 4동 등 총 22동이 된다. (그림 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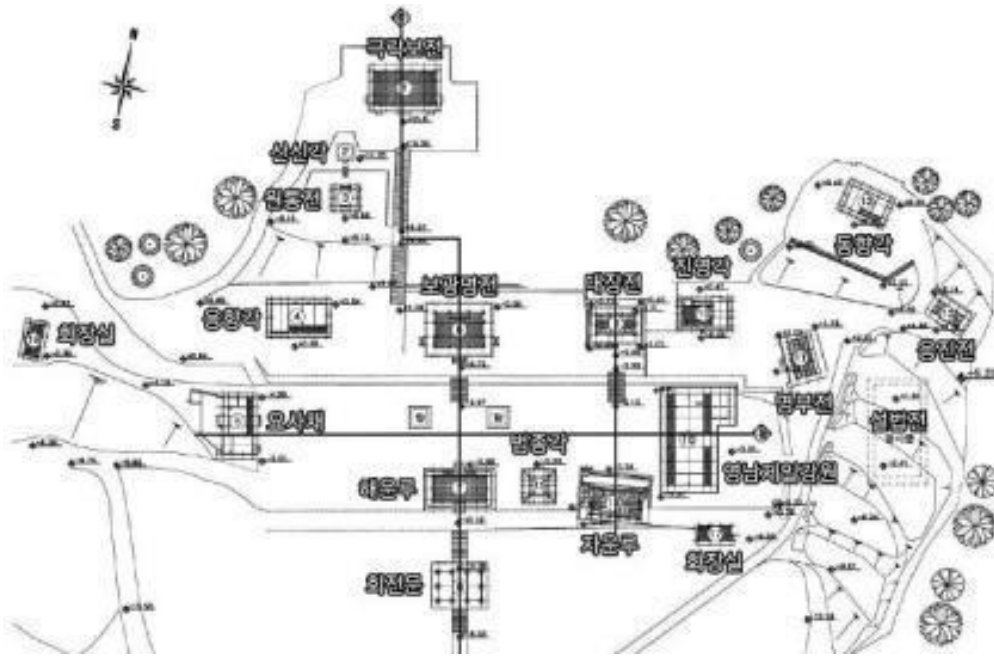


그림 3. 용문사 배치도(2010년 건축문화재 해체수리 자료집-사찰건축편)



그림 4. 용문사와 대장전의 위치

### 3. 대장전과 윤장대의 연혁

윤장대의 구성과 관련된 자료로서는 전술한 이지명 찬의 ‘중수용문사기(1185)’와 1972년 대장전 수리공사시 발견된 ‘예천 용문산 창기사 대장전 중수 상량문’<sup>26)</sup>이 중요하다. 여기서 창기사는 조선 중기에 용문사를 부르던 다른 이름임이 여러 자료에서 거듭 확인된다.

먼저 ‘중수용문사기’에는,

‘…癸巳年 國朝多亂大禪師發願設三萬僧齋又別置輪大藏二座及堂三間作七日法會聚學者三百餘人請開泰寺僧統穎緇講演以落之以救國難焉…’

라 하여, 癸巳년에 윤장대 2좌와 당우 3칸을 함께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다. 여기서 이 기록이 쓰여진 1185년에서 가장 가까운 계사년은 1173년(명종3년)이다.

또, 건륭32년 정해(1767)년에 쓰여진 ‘중수 상량문’에는

‘…昔之西域瞿曇氏所說八萬大藏典藏置於龍宮 故因以作大藏殿以標轉輪之義 殿內作雙輪藏此殿之初那則去大定 十七年癸巳也…’

이라 하여, 그 초창이 대정17년 계사라 하였다. 大定은 金나라 世宗대의 연호로서, 대정17년은 1177년 丁酉년이 된다. 그러나 계사년의 간지명이 부합하고, 또 1185년의 ‘중수용문사기’의 기록이 조성 시기와 더 가까운 기록인 점을 감안하면, 대정 17년이 계사년인 대정 13년(1173)의 오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즉, 이상의 기록을 바탕으로 윤장대와 그를 담는 건물의 초창 연대를 용문사의 대규모 중창 불사가 이루어지던 기간 중인 1173년(고려 명종 3년, 금 대정 13년)으로 보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이후 대장전의 중수와 관련해서는, ‘중수상량문’을 따르면, 1467년(세조 13)<sup>27)</sup>, 1534년(중종29), 1597년(선조30) 등에 중수가 있었고, 임란 이후 이루어진 중창 불사의 과정에서 대장전도 1665년 중수되었으며<sup>28)</sup>, 위 상량문이 쓰여진 1767년에도 다시 중수가 있었다. 또 윤장대 내부에서 발견된 天啓 元年(1621)의 중수 묵서명도 남아있어, 윤장대 역시 이 시기에 중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속용문사적기’에는 1670년의 중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치각여와수(治梅與瓦修)’라 하여, 지붕부에 대한 부분적인 개수의 수준이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두 기록의 기사를 모두 인용한다면, 1665년의 중수가 본격적인 중수의 공사이고 1670

26) 현재 그 원문은 전하지 않고, [한국의 고건축]에 조사시에 기록한 전사본이 전할 뿐이다.

27) 1467년이 맞다면, 보고서에 천순14 라기 표기(51쪽)는 천순 11의 오기이거나, 성화3으로 고쳐야할 것이다.

28) ‘속용문사적기’에는 1670년이라 적고 있다.

년의 중수 공사는 지붕부 대한 부분적인 보수공사로 볼 수 있다. 다른 한편 만일 구체적인 ‘속용문사적기’의 내용을 그대로 따른다면, 1665년의 중수는 1670년의 오기이거나 중수 공사의 시작년을 적은 것일 가능성도 있다.<sup>29)</sup> 한편, 2003년 대장전 수리공사시에 발견된 암막새에 새겨진 명문에는, ‘강희5년’(康熙伍年, 1666)이라는 연기가 뚜렷하여, 이 시기에 지붕부에 대한 개수공사가 있었던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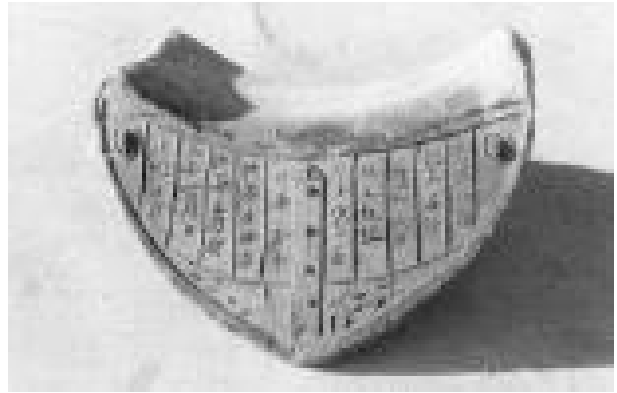


그림 5. 대장전 강희 5년명 암막새

이후에도 중수는 이어져, 앞의 중수기가 쓰여진 1767년(건륭 정해)의 중수 기록이 있고, 2001-4년 사이에 진행된 연륜연대조사방법에 의한 목재의 치목연대 조사에서는 19세기에 치목된 부재도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후에도 중수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근래에 이루어진 대장전 및 윤장대의 보수 연혁은 다음과 같다.

- 1962년 : 옥개부 전면 해체보수
- 1972년 : 번와 및 부연 교체
- 1973년 : 외부단청공사
- 1979-1980년 : 기단 및 계단보수공사
- 1990년 5월-8월 : 대장전석축 및 전면계단 공사
- 1996년 10월-1997년 7월 : 배면 지붕기와 보수
- 1999년 10월-1999년 12월 : 명부전 보수, 동향각 보수
- 2001년 1월-2003년 2월 : 윤장대 보수
- 2001년 1월-2004년 6월 : 완전해체수리
- 2005년-2006년 : 주변정비공사
- 2010년 : 윤장대 해체수리공사

이상과 같이, 기록으로 확인되는 대장전의 창건과 중수 년대를 다시 정리하면, 창건은 1173년이고, 1467년과 1534년, 1597년에 중수가 있었으며, 1665년(1670년 기와 중수 기

29) 보고서에서는 둘 다 인용하는 견해를 취하고 있는데, 중수한지 겨우 5년만에 서까래와 기와 등의 지붕 공사를 새로 하는 것은 어색하다. 용문사는 임란 때 피해를 하였다고 하여도, 1597년의 중수 공사 기록이 있고, 이것은 피해를 입은 용문사의 여러 전각 가운데 대장전을 가장 먼저 중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1670년은 임란후의 중수로부터 100여년이 지난 시점이므로, 지붕 공사를 새로 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다.

록포함)에 다시 중수되었고, 1767년 중수 기록이 마지막이다.

그런데, 대장전 안에 봉안되어 있는 아미타삼존불과 목각탱은 1683년 신축하는 금당에 봉안하기 위하여 제작되었다는 기록이 발견됨으로써, 아미타삼존불과 목각탱이 그 후에 대장전으로 이안한 것을 감안한다면, 마지막 중수인 1767년을 현황이 조성된 시기로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윤장대에 관련해서는, 1173년에 당삼간에 윤장대 2좌를 별치하고 법회를 열었다는 기록이 처음이고, 1621년에 중수되었다는 목서명이 윤장대 내부에서 발견됨으로써 상대적으로 형상의 변경이 적은 채로 원형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4. 양식적 특징

대장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건물로, 다포계의 공포를 가진 팔작집이다. 창건을 알려주는 1185년의 ‘중수용문사기’에 당삼간(堂三間)을 지어 윤장대 2좌를 설치하였다’는 기록에 나오는 그 당삼간 건물이 현재의 건물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정면이 3칸이라는 점에서 그 규모는 비슷하였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 내부에 따로 고주를 두지 않은 무고주 5량가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양 측면에서는 대량의 하부를 바로 받치는 고주를 중앙에 두어 2칸으로 나누었다. 대개 이런 경우, 측벽 고주의 상부에 주두 등을 두고 대량을 받치게 하는데 반해, 여기서는 고주와 만나는 부분의 대량 아래 부분을 깎아내고 바로 만나게 하는 소략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기단은 전면에는 3단의 장대석 기단으로 쌓았고, 양 측면은 부분적으로 경사에 따라 장대석 기단을 두었으며, 후면은 자연석 기단으로 쌓았다. 고적도보의 사진과 비교하여 볼 때, 동측 기단의 장대석이 자연석으로 바뀌는 등 부분적인 변형이 있었다. 또 2002년의 주초 조사과정에서 현재의 기단보다 건물 쪽으로 다가선 곳의 기단 아래에서 자연석의 석렬(石列)이 발견되어서, 원래의 건물이 현황보다 작은 규모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창호는 전면에는 3칸 모두 기둥과 횡부재로 구획된 벽 가운데 문얼구미를 따로 두고 2짝의 쌍여닫이문을 다는 고식을 보여주고, 그 옆으로 기둥과의 사이에는 골판벽을 두었다. 양 측면은 모두 흙심벽에 회벽마감이고, 배면은 좌우의 협칸에만 중앙에 외여닫이문을 달고, 나머지 부분은 흙심벽으로 마감하였다. 이러한 창호의 배열은 창건 당시의 것이라기 보단 후대의 변형이 가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짝은 모두 하부의 1/3 정도 궁판을 두고 위로 살문을 두었는데, 정면의 창호는 빗살문, 후면의 창호는 보다 간략한 띠살문으로 하였다.



조선고적도보 사진(1932)



국보도록 사진 (1968)



현황사진 (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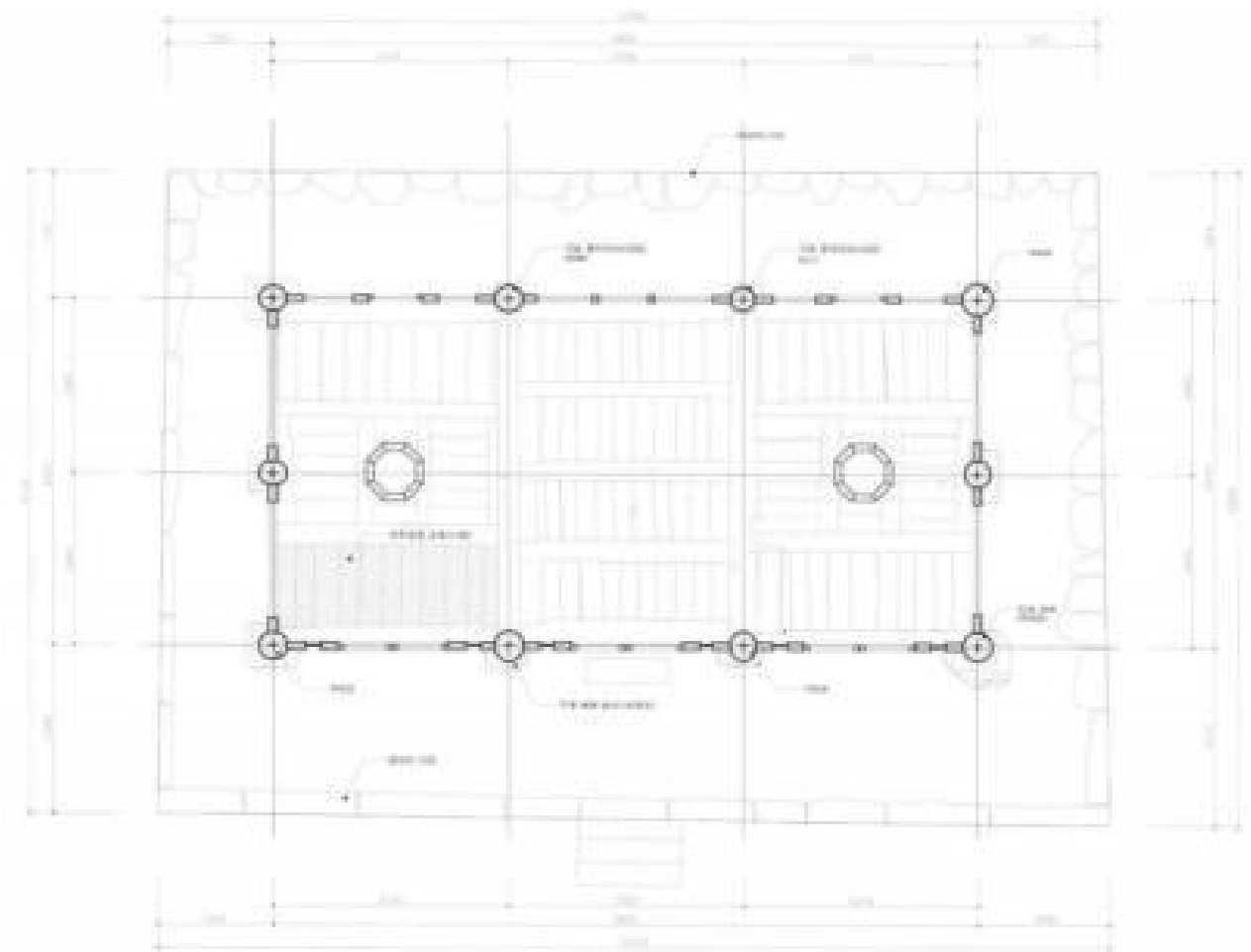
현황사진 (배면)

공포는 전면과 후면에만 두었는데, 3칸의 각각에 주간포를 2구씩 설치하여, 모두 20구의 포를 가지고 있다. 내외 2출목의 조선 중기적 기법을 보여준다. 특히 어칸의 주상포는, 초제공과 이제공의 살미 외단은 양서형으로 하고, 내부는 당초문을 초각하고 상하의 제공이 한 몸으로 엮여 있다. 삼제공의 외단은 이제공의 양서형 외단과 반대 방향으로 굽은 곡선의 당초문을 초각하였고, 내부에서는 용두를 초각한 4제공 내단과 한 몸으로 3제공 내단에도 용의 몸 부분을 초각하였다. 장식화되어가는 제공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한편 우주의 주상포는 초제공, 이제공의 내단을 교두형으로 간략히 처리하고, 삼제공과 사제공의 내단 역시 보다 간략한 당초문을 초각하였다. 외단의 모습은 어칸의 주상포와 비슷하다.

배면에서는 훨씬 더 간략한 공포 초각을 보여준다. 외단은 초제공부터 사제공까지 모두 다른 초각을 보여주는데, 간략화된 익공의 모습과 유사하다. 내단은 전체를 한 몸으로 엮은 당초문을 초각하였다. 역시 배면에서도 우주의 주상포에서는 제공의 내단을 교두형으로 간략히 처리하였다.

주간포의 구성은, 전반적으로 전면과 배면에서 각각 우주의 주상포 형식을 따르고 있다.

이와 같은 차이가 조성 시기의 다름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의장적 중요성에 따른 구분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전체적으로 구조적 역할을 하는 공포의 구성에서는 전면과 배면, 주상포와 주간포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며,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제공의 내외 단부의 초각부분이다. 장식의 화려함으로 순서를 매긴다면, ①전면 어칸 주상포 > ②전면 주간포 및 우주 주상포 > ③배면 어칸 주상포 > ④배면 주간포 및 우주 주상포의 순으로 볼 수 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②번과 ③번의 순서는 바뀔 수 있겠는데, 건물 외부에서 보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 ②가 앞서고, 건물 내부에서 보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③이 앞선다고 볼 수 있다.



용문사 대장전 평면도-수리 후(2004 용문사 대장전 수리보고서)

이처럼 어칸과 양 측면 칸에서 의장적으로 차이를 두는 상황은, 중도리를 받치는 대공, 종도리 대공에서도 그대로 반복된다. 즉 어칸 좌우의 중도리 대공은 향아리 모양으로 한 데 비해, 양측벽의 중도리 대공은 간단히 사각기둥 모양으로 하였고, 종도리 대공 역시 어칸 좌우에는 운형 대공모양인데 비하여, 양측벽에서 사용된 종도리 대공은 좀 더 간단한 사다리꼴의 판대공을 두었

다.

다만 대들보의 치목 기법은 어칸 좌우와 양 측면벽으로 구분되지 않고, 어칸 서측의 대량이 방형으로 가공되어 다른 대들보가 단면을 향아리형으로 가공한 고식 기법을 띠고 있는 것과 구분되는데, 이것은 아마도 수리 과정에서 바뀐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신청서에서는, 이 향아리형 대들보의 형태를 근거로, 대장전의 현황 조성 연대를 마지막 중수 연대인 1767년이 아니라 그 이전의 중수 연대인 1665년(1670년 기와 중수 기록포함)으로 보고 있다.

천장은 전체적으로 연등천장으로 하고, 어칸 중도리 사이에 가로 5칸, 세로 3칸의 구획을 갖는 소란우물반자 천장을 두고, 중도리와 공포 내출목단 상부 사이에는 빗천장을 설치하였다.

한편, 장식화의 경향과 관련해서 눈에 띄는 것은, 평방의 마구리 처리이다. 전면의 양쪽 우주 상부에서 물고기를 입에 문 청룡문 장식판이나 연꽃을 입에 문 황룡문의 장식판을 붙여 단평방의 마구리를 가리고 있다. 또 어칸 좌우의 평주 위에서는 실제로 직교하는 단평방이 없음에도 평방에 연화문의 장식판을 덧대어 장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장식판을 이용한 장식화의 수법은 임란 이후의 다포계 건물들에서 발견되는 수법이다.

내부에는 양 협간의 중앙에 운장대를 각 1구씩 2구를 두고, 어칸에는 목조아미타여래삼존불상을 대좌 위에 나란히 두고, 후불벽에 기대어 목각탱을 두었다. 불대좌의 크기는 어칸의 폭을 넘어 좌우로 넘어가 있다.

한편,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사진 자료인 『조선고적도보』의 사진과 비교하여 가장 눈에 띄는 근래의 변화는 내부의 벽화 부분이다. 대장전의 내부 전체는 개채 없이 고단청이 남아있는 상태이지만, 서측벽의 경우 고적도보 사진에서는 있던 벽화가 1968년의 보고서 사진에서 이미 사라졌다.

이상과 같은, 전반적인 양식적 특성을 고려할 때, 현재 남아있는 대장전 건물의 현황 조성 시기를 임란 이후의 조선중기로 보는 것에 무리가 없으나, 1665년과 1767년의 두 중수 시기 가운데 어느 쪽으로 보아야하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이후에도 부분적인 변형이 계속되었고, 또 신구의 부재들이 뒤섞여 있기 때문이다. 그 어느 경우든, 현재의 상황이 1173년 운장대를 조성하면서 함께 만든 당우와 규모 상으로 큰 차이를 가지지 않고 같은 자리에서 이어져 온 것은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운장대는 몸통부가 팔각형의 평면을 가진 건축물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불경을 보관하기 위한 몸통부를 세로로 길게 만들고, 상부는 화려한 지붕을, 아래로는 난간대를 두른 다음 폭이

좁혀지는 팔각추형으로 가공하여, 결국 지붕의 정상부와 하대 팔각추의 꼭대기부분이 돌림대의 축이 되도록 하였다. 난간대와 지붕은 몸통부보다 밖으로 한 단씩 튀어나가게 하였다.

팔각형 평면의 몸통부에는 각 면에 창호를 주칸 가득 넣고, 그 가운데 하나를 열리게 하여, 내부에 설치한 선반에 불경을 넣고 꺼낼 수 있게 하였다. 창호의 문살은 좌측의 윤장대와 우측의 윤장대가 서로 다른데, 조 윤장대에서는 화려한 꽃문살과 하였고, 우측의 것은 간략한 교창으로 처리하였다. 그리고 좌우 윤장대 모두 몸통부의 아래쪽으로 윤장대를 돌리는데 필요한 손잡이 겸 막대를 하나씩 두었다.

윤장대는 단지 불경을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돌리는 것이 중요한 것인 만큼, 이 전체가 회전할 수 있도록 회전축이 되는 중심축이 원형 기둥의 형태로 상하를 관통하고 있고, 위아래에 이 회전축에 맞는 둔테를 만들어 실제 회전할 수 있게 하였다. 이와 같은 윤장대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것으로 그 역사적 의미가 막중하다.

특히 윤장대가 조성된 12세기 후반의 시점과, 실제로 경전을 읽고 이해하기 힘든 사람들이라도 윤장대를 돌리기만 하여도 공덕을 쌓을 수 있다는 신앙적 의미를 함께 고려하면, 불교가 대중 속으로 확산되는 과정 혹은 무신 정권기의 새로운 불교 중흥 운동과 관련하여서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다.

이와 같은 신앙적 의미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차례 윤장대의 조성이 이루어져, 轉輪臺 혹은 轉輪大藏 등의 조성 기록이 남아있고, 화암사지, 영국사지, 혜음원지 등에서 윤장대의 하부 받침돌로 보이는 석재가 출토되기도 하였지만, 실물로 남아있는 것은 용문사의 윤장대가 유일하다.

현황 조성 시기와 관련해서는 1173년에 처음 만들었다는 기록과 윤장대 내부에서 발견된 1621년의 중수 기록이 있어 비교적 명확하다. 다만 근대 이후의 조사기록들을 서로 비교해보면, 창호의 장식과 처마 아래 달동자와 난간대, 하부 팔각추형의 받침대, 그리고 고정 철물 등에서 부분적인 변형과 보수 상황이 확인된다.

돌림축의 조성 방식 등은 중국 송대의 윤장대와 비슷하여 초창기의 것을 이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윤장대 상부의 지붕과 공포부재 등의 초각은 17세기 중후반에 건립된 신륵사 극락전의 단집이나 불갑사 대웅전의 단집 등과 유사하여, 17세기 중수시의 조성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의 유사 사례인 용흥사 전륜장이나 운암사 비천장 등의 공포대 역시 비슷하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상부의 형태 역시 초창 때의 것을 17세기에 부분적으로 보수한 것으로 볼 가능성도 남아 있다.



## 5. 종합 검토 의견

용문사 대장전과 윤장대는 불교의 경전 신앙의 한 파생 형태인 윤장대라는 독특한 가치를 갖춘 구조물로서 우리나라에서 다른 사례가 없는 것으로서 큰 가치를 갖는다. 다만, 대장전과 윤장대를 구분하여 보면 그 가치에 상당한 차이를 둘 수밖에 없다. 즉, 윤장대는 유일성과 역사성, 양식적인 완성도의 측면에서 독보적인 가치를 갖는 것으로 국보로 지정하는데 아무런 저항이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대장전의 경우 좀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우선 대장전은 여러 차례 중수를 거듭하면서 구재와 신재가 뒤섞여 정확한 조성 시기를 판정하기 어렵고, 고주를 갖지 않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소규모 단층 맞배집으로서 건축적 위계가 높지 않고, 대장전의 성격과 합치되지 않는 - 그렇지만 그것 자체로서 훌륭한 가치를 갖는, 목조아미타삼존여래상과 목불탱을 여칸 중앙에 안치하기 위하여 내부 공간에 변화가 생긴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연 대장전과 윤장대를 묶어서 국보로 지정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윤장대만을 국보로 승격 지정하고, 대장전은 그대로 보물의 등급을 유지하는 것이 적당한지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18. 10. 30.	대상문화재	예천 용문사 대장전 및 윤장대	
조사자	성 명	○ ○ ○	전공 분야	한국건축사
	소 속		직위(직책)	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문화재 명칭	예천 용문사 대장전 및 윤장대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붙임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붙임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붙임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붙임 참조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붙임 참조		
종합의견		붙임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9년 4월 5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1.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 환경

용문사는 용문면 용문사길 285-30(내지리 391)에 위치한 대한불교조계종 제 8 교구 직지사의 말사이다. 예천군청에서 17.4km 거리에 있는데 용문면 방향으로 928번 도로(용문경천로)를 따라 가면 금곡천을 따라가게 되고, 금당실마을을 지나 용문사삼거리에서 우회전하여 용문사 방향으로 3.5km 정도가면 다시 용문사삼거리가 나오고 0.7Km 들어가면 용문사가 위치한다. 용문사삼거리에서 0.5Km 가면 일주문이 자리하며 200m 정도가면 주차장이 자리한다. 용문사는 소백산 줄기로 북쪽의 매봉에서 남서쪽으로 뻗어 내리다가 다시 틀어서 남쪽으로 흐르는 자락과 남동쪽으로 흐르는 자락으로 갈라지고, 남동쪽 자락은 다시 갈라져 남쪽 자락과 남동쪽 자락으로 길게 흐르고 감싸 도는데 남쪽 자락에 자리하고 있다. 매봉에서 남동쪽으로 흐르는 자락은 다시 남쪽으로 감아 돌며 용문사 동남쪽까지 감싸고 있다.

용문사는 윤장대가 있는 대장전과 자운루 등의 고풍의 전각과 보광명전, 산신각, 응진전, 영남제일강원 등의 새로운 전각들이 주위를 에워싼 산세와 어울려 아름답고 편안한 배치를 하고 있다.<sup>30)</sup> 현재의 가람은 (극락보전), 보광명전, 해운루, 회전문을 잇는 축을 중심축으로 동쪽으로 대장전, 자운루를 잇는 부축을 형성하고 있다. 원래 17세기 중창 이전의 대장전과 자운루를 기본축으로 가람이 형성되었으나 17세기 중창 이후에 광명전, 해운루, 회전문의 부축이 형성되면서 현재와 같은 모습이 된 것이다.

문화재현황을 보면 부동산으로 보물 제145호인 대장전, 보물 제684호인 윤장대, 문화재자료 제476호인 자운루, 유형문화재 제460호인 중수용문사기비, 기념물 제174호인 폐비윤씨 태실, 기념물 제173호인 문효세자 태실 등이 있고, 동산으로 예천 용문사 감역교지(보물 제729호), 예천 용문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보물 989-1호), 예천 용문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보물 989-2호), 예천 용문사 영산회괘불탱(보물1445호), 예천 용문사 팔상탱(보물 제1330호), 예천 용문사 천불도(보물 제1644호, 동국대박물관) 등이 있다. 또한 용문사 주변은 예천군의 문화회랑으로 예천권씨초간공파 종택(국가민속문화재 제210호), 예천권씨 초간종택 별당(보물 제457호), 예천 초간정원림(명승 제51호), 예천 초간정(유형문화재 제475호), 예천 함양박씨 희이재사(국가민속문화재 제285호), 예천 금당실 송림(천연기념물 제469호), 예천 남악종택(국가민속문화재 제248호), 예천 야옹정(보물 제1917호), 예천권씨병암정 및 별묘(문화재자료 제453호), 예천권씨 영사당고택(문화재자료 제454호), 금당실마을 내 예천 상금곡동 사괴당고택(유형문화재 제179호), 반송재고택(문화재자료 제262호) 등이 산재해 있다.

용문사와 관련된 역사 관련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룡사본말사지(金龍寺本末

30) 현재의 용문사 가람배치는 중수 및 보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극락보전, 대장전, 동향각, 두운암, 명부전, 범종각, 보광명전, 산신각, 선경당, 설법전, 성보박물관, 영남제일강원, 원통전, 응진전, 응향각, 자운루, 진영당, 해운루, 화장실 4동 등 총 22동의 건물이 있다.

寺志, 1839)에는 870년(경문왕 10) 두운 조사 창건과 936년, 1165-1179년, 1835-1839년 등의 중건 기록 등이 확인<sup>31)</sup>되고, 태실을 봉안하고 여러 번의 개칭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24권(1530)에도 창건과 개칭, 서거정(徐居正)의 시, 이규보(李奎報)의 시 등이 기록되어 있다. 중수용문사기비(重修龍門寺記, 1185)에는 용문사의 창건과 고려 초기 왕실의 후원, 12세기에 조응(祖膺)선사와 자엄(資嚴)선사가 일으킨 불사(佛事)와 조응선사의 행장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용문사사적(龍門寺事蹟)에는 <용문사사적-유용건(龍門寺事蹟有用件)><sup>32)</sup>, <용문유적-불용(龍門遺蹟不用)><sup>33)</sup>, <용문사사적-불용건(龍門寺事蹟不用件)><sup>34)</sup>이라는 3책의 사적기가 전하여 용문사의 역사적 변천을 살펴보는 데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제헌왕후(1395-1446)의 태실비(1478)는 용문사에서 300m 떨어진 동쪽 봉우리에 세워져 있는데 사가에서 출생한 왕비의 태실비가 세워진 것이다.<sup>35)</sup> 면역사패교지·교지함(免役賜牌教旨·教旨函, 1457)은 세조가 펼쳤던 불교옹호정책을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sup>36)</sup> 그 외에 용문사 완문(完文, 1900)과 전장기(傳掌記, 1867) 등이 있다.

용문사 유물기록 자료로는 용문사 십육전 개채여 단확기(龍門寺十六殿改綵與丹穫記, 1884), 용문사 명부전 개채여 단확기(龍門寺冥府殿改綵與丹穫記, 1884), 용문사 금당 시창 복장기(龍門寺金堂始創腹莊記, 1684), 재일축원책(齋日祝願冊, 1884), 대장전 기일록(大藏殿 忌日錄, 1879), 금당 기일록(金堂 忌日錄, 1864) 등의 기록이 있다. 대장전 강희 5년명 암막새(大藏殿 康熙伍年 銘瓦當, 1666)는 2003년 대장전 수리 때 수습된 것으로 암기와 의 드림새에는 계선을 치고 1666년(강희 5)에 편수 보협과 장일선(張日善)이 기와를 만들고, 화주 의탄(儀坦), 응엄(應嚴)과 시주자는 선행 등 불사에 참여한 이들을 기록하고 있다. 예천 용문산 창기사 대장전 중수상량문(昌期寺 大藏殿 重修上梁文,

31) 870년(경문왕 10)에 두운 조사가 창건하여 용문사라 하였고, 936년(태조 19)에 조정에서 중건 칙령과 용문산 용문사 현판을 내렸다. 1165년(의종 19)에 칙령으로 수선하였고 다음 해에 합사하여 중건에 착수하였다. 1171년(명종 1)에 태자의 태를 좌비봉(左臂峰)에 안장하고 용문산 '창기(혹은 작기)사'라고 개칭하였다. 15년 동안 계속된 중건이 1179년(명종 9)에 낙성하였다. 1478년(성종 9)에 제헌왕후 태실을 봉안하고 성불산 용문사라고 개칭하였다. 1783년(정조 7)에 문효세자 태실을 봉안하고 '소백산 용문사'라 개칭하였다. 1835년(헌종 1) 8월에 화재가 일어났고 역과 강백(檟坡 講伯)과 상민, 부열 등 승려가 중건하여 1839년(헌종 5) 7월에 중건하였다.

32) <여지승람(輿地勝覽)>, <시영(詩詠)>3편, <속용문사적기(續龍門事蹟記)>, <중수용문사기(重修龍門寺記)>, <용문제영(龍門題詠)> 5편 등이 수록되어 있다. <중수용문사기>는 1185년(명종 15)에 이지명(李知命)이 왕명을 받들어 지은 중수기를 옮겨 적은 것이며, <속용문사적기>는 1668년에 주지 희욱(希旭)의 요청으로 박세대(朴世大)가 1608년부터 1688년 사이에 조성되었던 중창불사를 정리하고 1689년에 완공할 불사까지 적고 있어 사료적 가치가 크다.

33) <용문제영>에는 서거정(1420-1488), 조우인(1561-1625), 정윤목(1571~1629) 외에도, 후에 지은 대은 호영, 대운 동고(1846년 <용문사 중건상량문> 지음), 이광직(《용문사사적-불용건》 정리) 등 12인이 지은 시들이 실려 있다.

34) 이광직(李光直)의 <용문사기(龍門寺記)>에는 초창부터 조선 후기까지의 역사가 연대기 순으로 정리되어 있다.

35) 소헌왕후(昭憲王后) 태실비라는 견해도 있으나 성종실록 기록(권75, 성종(成宗) 8년 1월 5일, “중궁태실(中宮胎室), 재경상도례천(在慶尙道禮泉)”)과 서삼릉 출토 지식(景泰六年閏六月初一日生 王妃尹氏胎成化十四年十一月十二日午時藏)으로 보아 태주는 폐비 윤씨임을 확인할 수 있다.

36) 1457년(세조 3) 8월 14일에 세조가 용문사에 내린 사패교지(賜牌教旨)로 “경상도 예천의 용문사를 감사와 수령에게 이미 전지(傳旨)한 대로 더욱 살펴 환충 완호(完護)하고 잡역(雜役)을 영구히 없애줄 것”이라는 명을 내리고 세조의 수결(手決)이 있다. 태실비는 1478년 11월 12일에 세워졌다.

1767)은 1972년 수리과정 중 발견된 것으로 대장전과 운장대는 대정(大定) 17년 계사(癸巳)년에 창건, ‘…昔之西域瞿曇氏所說八萬大藏典藏置於龍宮 故因以作大藏殿以標轉輪之義 殿內作雙輪 藏此殿之初那則去大定 十七年癸巳也…’<sup>37)</sup>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 외에도 예천 용문산 창기사 응진전 상량문(醴泉 龍門山 昌基寺 應眞殿 上樑文, 1785), 용문사 비전 중건상량문(龍門寺碑殿重建上樑文, 1846), 상향각 상량문(上香閣上樑文, 1857), 용문사 자운루 중건상량시 방함록(龍門寺慈雲樓重建上樑時芳啣錄, 1872), 예천 소백산 용문사 자운루 상량문(醴泉小白山龍門寺慈雲樓上樑文, 1872), 예천 용문산 창기사 만세루 상량문(醴泉龍門山昌基寺萬歲樓上樑文, 1785) 등이 있다.

## 2. 연혁·유래 및 특징

용문사는 신라 말 경문왕 10년(870)에 두운선사(杜雲禪師)가 창건<sup>38)</sup>하였고, 고려 태조가 이곳을 지나다가 절에 들어가려 하니 용이 나타나 이름을 ‘용문(龍門)’이라 하였다<sup>39)</sup>고 기록하고 있다. 이는 두운선사가 초창하여 수도하던 곳을 태조가 후삼국을 통합한 후 찾아 격식을 갖춘 절로 확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1185년에 작성된 <중수용문사기(重修龍門寺記)>에는 고려 명종(明宗) 3년(癸巳, 1173) 동북면 병마사 김보당이 난을 일으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자엄대사(資嚴大師)가 발원하여 삼만승재(三萬僧齋)를 열었고 3칸의 대장전을 지어 그 안에 운장대 2기를 별도로 안치하였다고 한다. 대장전과 운장대의 초창과 본래 2좌라는 사실 그리고 국난을 극복하기 위한 대장전과 운장대 조성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다.<sup>40)</sup> 또한 1972년 수리공사 시에 발견된 <예천 용문산 창기사 대장전 중수 상량문(醴泉龍門山昌期寺大藏殿重修上樑文)>에 대장전과 운장대는 대정(大定) 17년 계사(癸巳)년에 창건되었고 인도의 고승 구담(瞿曇)이 팔만대장전을 용궁에 안치하였다는 고사에 따라 용이 나타난 용문사에 대장전을 지어 전륜지의(轉輪之義)를 표하기 위하여 한 쌍의 운장대를 제작 안치하였다고 대장전과 운장대의 설치

37) “...인도의 고승 구담(瞿曇)이 팔만대장전을 용궁에 안치하였다는 고사에 따라 용이 나타난 용문사에 대장전을 짓고, 전륜지의(轉輪之義)를 표하기 위하여 한 쌍의 운장대를 제작, 안치하였다...”

38) 용문사의 중수비와 3책의 사적기(이지명, <중수용문사기(重修龍門寺記), 1185> ; 박세대, <속용문사적기, 1688> ; 이광직, <용문사기, 1818> ) 중 가장 오래된 이지명의 <중수용문사기, 1185>가 이차적인 전거가 된다.

39) 위의 3책 사적기에는 태조가 암자의 이름을 ‘용문’이라 하였다는 것이 ‘용문사’의 유래였던 느낌이 크다. <신동국여지승람>에는 산을 중시하여 이 유래를 권24 경상도 예천군 용문산에 실고 있다. <김릉사본말사지>에는 두운선사(杜雲禪師)가 870년(신라 경문왕 10)에 개산(開山)하였다고 한다. 두운선사가 이 산의 동구에 이르렀을 때 바위 위에서 용이 마중 나왔다고 하여 산 이름을 용문산이라 하고 절을 지었다고 전해진다. <동국여지승람>에는 고려 때 태조 왕건이 신라 정벌을 위해 남쪽으로 내려올 때 두운선사의 이름을 듣고 그를 만나고자 이 사찰을 찾다가 운무가 자욱하여 지척을 분간치 못하던 차에 어디선가 청룡 두 마리가 나타나 길을 인도하였다고 하여 ‘용문사’로 불렀다가, 고려 명종 때는 절 왼쪽에 있는 봉우리에 세자의 태(胎)를 안치한 뒤 ‘창기사’로 이름을 고쳤다고 한다.

40) 이지명, 앞의 책, ‘...癸巳年 國朝多亂大禪師發願設三萬僧齋又別置輪大藏二座及堂三間作七日法會聚學者三百餘人請開泰寺僧統穎緇講演以落之以救國難焉...’

연유를 밝히고 있다.<sup>41)</sup> 이와 같이 용문사 대장전과 윤장대는 계사년(癸巳年) 1173년에 초창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sup>42)</sup>

용문사 대장전은 여러 번의 중수 기록이 있으나 윤장대의 수리, 중수 등에 관한 문헌 기록이 많지 않다.<sup>43)</sup> 문화재연구소의 대장전 조사할 때 윤장대를 조사하면서 윤장대 내부에서 천계(天啓) 원년(1621) 중수 기록의 목서명견<sup>44)</sup>을 통해 17세기 이전에 이미 윤장대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용문사 대장전과 윤장대는 명종(明宗) 3년 계사년인 1173년에 초창되어 1621년에 중수된 이후에도 현재까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수리기록은 1173년(대정 13)에 윤장대 2좌를 당삼칸에 별치하고 법회를 열었다는 <중수용문사기>와 대장전 건립에 대한 <예천 용문산 창기사 대장전 중수 상량문>을 시작<sup>45)</sup>으로, 2차 중수는 1467년(천순 14), 3차 중수는 1534년(가정 13), 4차 중수는 1597년(만력 25)<sup>46)</sup>, 5차 중수는 1665년(강희 4)<sup>47)</sup>, 6차 중수는 1670년, 7차 중수는 1767년(건륭 정해)에 중수<sup>48)</sup>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해체수리과정의 연륜 연대조사에 따라 19세기에 보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sup>49)</sup>

최근에는 1962년에 옥개부 전면 해체 보수, 1972년에 번와 및 부연교체 공사, 1973년 단청공사, 1979년에는 대대적인 보수공사가 있었다. 1984년의 화재로 보광명전, 해운루, 응향각, 영남제일강원, 요사, 종무소 등 230여 평의 건물이 소실되었으나 대장전의 소

41) <예천용문산창기사대장전중수상량문(醴泉龍門山昌期寺大藏殿重修上梁文)> 1767년(乾隆 32년 丁亥, 英祖 43년). ‘…昔之西域 瞿曇氏所說八萬大藏典藏置於龍宮 故因以作大藏殿以標轉輪之義 殿內作雙輪 藏此殿之初那則去大定 十七年癸巳也…’

42) 이지명, 앞의 책, 계사년(癸巳年) 1173년(明宗 3년)에 초창되었다고 되어 있지만 <중수상량문>에는 대정 17년 계사로 기재되어 있어 1972년 12월 작성되었던 <상량문(上梁文)>에도 대정 17년으로 그대로 표기되었다. 따라서 이 중 가장 먼저 작성된 <중수용문사기>가 합사 증건을 마치고 기록한 것으로 대장전과 윤장대의 초창 시기와 그리 멀지 않은 1185년에 작성되었으며, 계사년으로만 기록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가장 믿을만하다고 하겠다.(…癸巳年 國朝多亂 大禪師發願設三萬僧齋又別置輪大藏二座及堂三間作七日法會聚學者三百餘人請開泰寺僧統穎縉講演以落之以救國難焉…) 따라서 <예천 용문산 창기사 대장전 중수 상량문>과 <상량문>은 대정 13년 계사를 대정 17년으로 오기(誤記)한 것으로 보인다.

43) 현존 자료상에 보이는 중수기록은 1467년 대장전 중수, 1534년 대장전 중수, 1597년 대장전 중수, 1608 용문사 3차 증건 착수, 1665년 대장전 중수, 1670년 대장전 수리, 1687 3차 증건 완료, 1767 대장전 중수가 있으며, 이후도 계속된 중수가 있었고, 1835년에 큰 불로 폐허가 되었다가 1839년 증건되기도 했다. 또 1984년에도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다행히 사찰측의 노력으로 대장전은 소실을 면했다.

44) 김봉진, <용문사 대장전> 《한국의 고건축》 12호(문화재관리국, 1990), p.23. 현재 원본 자료 망실, 목서명 내용에서 천계(天啓) 원년(1621)에 중수되었다는 내용이 발견되었다.

45) 이지명, 앞의 책, 1173년에 2좌 윤장대를 안치할 3칸짜리 건물을 지었다고 하나, 현 건물의 모습은 초창 당시의 건물이 아니고 조선시대에 중수가 거듭되어 새롭게 지어진 건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46) 《한국의 고건축》 12(국립문화재연구소, 1990), pp.17-18

47) 중수는 상량문에 1665년이고 박세대의 <속용문사적기, 1688>에서는 1670년이라고 하여 차이는 거듭된 보수의 기록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48) 대장전의 윤장대와 건축적 수법 외에도 건물 외·내부의 용과 물고기 장식은 물과 관련된 상징물로 “昔之西域 瞿曇氏所說八萬大藏經典藏置於龍宮 故因以作大藏殿”는 <중수상량문> 내용과 상통하므로 1767년 중수를 하면서 현재의 형태를 갖추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중수 과정에서 시기별로 다른 수법이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49) 기단 공사를 위한 시굴조사 중 기단 속에서 노출된 자연적으로 쌓은 기단은 창건 당시의 유구일 가능성이 높다.

실을 막기 위하여 보광명전과 대장전 사이에 있던 단하각(丹霞閣)과 응향각(應香閣)을 허물어 불길을 잡은 것으로 보아 대장전의 중요성이 확인된다.<sup>50)</sup> 이후에도 1997년에는 대장전의 배면 지붕을 보수하였고, 2003년에는 윤장대를 수리하고, 대장전을 완전 해체 보수하였다. 2005년과 2006년에는 대장전 주변을 정비하고, 2010년에는 윤장대를 해체 수리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초창 시 규모는 알 수가 없고, 10세기에는 30칸(間)의 건물이 있었다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가람의 배치는 알 수 없다. 12세기 자엄선사에 의한 가람의 중창은 93개 건물에 달한다고 하여 사역이 대규모였음을 짐작케 할 정도이다. 그러나 승방, 주방 및 당삼칸만 언급되고 있어 그 구체적인 배치는 확인할 길은 없다. 다만 당삼칸에 윤장대 2좌를 설치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12세기 고려 중엽에 이미 윤장대가 존재했다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대장전의 불단 좌우 한 쌍이 설치된 윤장대는 경전을 안치하는 경장시설 중의 하나로서 현재 우리나라에는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것이다. 불법의 근본인 경전은 잘 보관해 두어야 하므로 방대한 불전을 대장경으로 집대성한 송대 이후에는 이를 간행하고 보관할 경장이 필요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고려 대장경을 간행하고 흥왕사에 대장전을 지어 이를 보관하였다.<sup>51)</sup> 이에 비해 용문사 대장전은 경판이나 경전 전체를 보관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라 3칸 규모의 단정한 규모이지만 처음부터 윤장대를 봉안한 전각으로 구상한 것이다. 윤장대는 육각이나 팔각형의 지붕 모양 옥개부 아래로 감(龕)을 설치하여 경전을 안치할 수 있는 팔각 몸체부가 있고 그 아래에 밑이 뾰족한 하대가 있어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으며, 중앙에 원형기둥을 세우고 기둥의 하부는 돌둔테에 끼워 윤장대 전체가 돌 수 있도록 만든 목제 구조물이다. 그 안에 경전을 넣어 두고 이를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윤장대라 하며 전륜장, 전륜경장, 전륜대장, 약칭으로 윤장, 대장, 경장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윤장대, 전륜장의 용례만 보이고 있다.

경전을 넣은 책장인 윤장대를 돌리면 경전을 읽은 것과 같은 공덕이 쌓인다는 데서 기인한 것으로 부처가 진리를 설한 것을 진리의 바퀴를 돌리는 전법륜에 비유한 것과 같은 것이다. 윤장대는 고려 중기 1173년에 초창되어 1621년에 중수된 후 크고 작은 보수를 거치며 지금에 이르고 있다. 윤장대는 높이 4.2m, 둘레 3.5m로 몸체의 팔각형 평면에 따라 기둥을 세우고 창호를 설치하여 서측 윤장대는 꽃창살, 동측 윤장대는 교창을 설치하고 그 안에 경전을 보관하였다. 몸체부 상부에는 퇴칸을 달아 기둥과 창방 평방을 두어 건축물을 형상화하고 평방 위에는 화려한 다포계 공포를 짜 올려 지붕을 겹쳐마로 하여 옥개부를 이루었다. 조선 중기의 화려하고 정교한 목공 예술을 잘 보여

50) 동아일보(1984.05.10), P.6 : 예천용문사에 불, 9일 오전 7시 15분경 예천군 용문면 용문사에서 원인모를 불이나 대웅전 등 사찰건물 5동을 태웠으나 이절에 보관중인 보물 145호 대장전 등 3점의 문화재는 무사.

51) 《국역 고려사》, 경인문화사(2008) : 세가 권 10 선종 4년(1087, 정묘년) 3월 기미일. 왕이 흥왕사(興王寺)에 가서 대장전(大藏殿)의 낙성을 경축했다.

주는 유물로서 화려한 팔각 건축물 형태의 윤장대 문을 열면 8면에 서가처럼 단이 만들어져 경전을 꺼내볼 수 있다. 경전의 보관과 이를 돌려 얻는 공덕의 효과를 함께 갖춘 윤장대는 자체적으로 공예품이자 신앙의 대상이요 불교 사상의 전당인 불전의 보존처이기도 하다.

윤장대는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동남아 등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인도나 경전에는 보이지 않고, 중국의 양나라 때 선혜대사 부흡(善慧大士 傅翕, 497-569)이 글자를 알지 못하거나 불경을 가까이 할 시간이 없는 중생을 위해 창설한 것으로 ‘신심이 있는 자가 한번 돌리면 그 안에 있는 경전을 한번 읽는 것과 같은 공덕이 쌓인다’라는 의미에서 처음 만들었다고 한다.<sup>52)</sup> 법보신앙의 대상인 대장경 편집이 이미 중국의 남북조시대에 시작되고 있었으며, 사경의 유행과 더불어 인쇄술의 발달에 따라 경전신앙(經典信仰)이 더욱 발전하면서 윤장대가 성행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양나라에 이어 당나라 때도 많이 만들어서 전륜장에 대한 기록과 그 영험기도 남아 있어 윤장대 조성이 성행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북송대 중엽에 편찬된 이계(李誠, ?-1108)의 《영조법식(營造法式)》 권 11의 <소목작제도(小木作制度)>에는 윤장대의 구체적인 형식과 구조 및 규격 등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윤장대 제도가 정립될 정도로 성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남송대에는 여러 사찰들의 <전륜장기(轉輪藏記)> 등이 남아 있어 남송대 윤장대 조성이 더욱 보편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에는 969년에 제작된 송대의 하북성(河北城) <용흥사(隆興寺) 전륜장>, 남송대 대족석굴(大足夕窟)의 <석조윤장대>, 사천성 <운암사(雲岩寺) 비천장(飛天藏)> 등이 남아 있다. 즉 남북조시대 시작된 중국의 윤장대는 북송대 더욱 성행하기 시작하여 남송대 절정을 이루었다가 이후 쇠퇴한 것으로 보인다.

고려 전기에는 송과의 활발한 불교문화교류를 통해 대장경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경전신앙(經典信仰) 방식이 전래되었다. 특히 대각국사 의천을 비롯한 혜소(慧照)국사 등 많은 입송(入宋) 승려들이 귀국하면서 중국의 불교문화와 함께 전륜장 제도도 도입, 적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하여 고려 전 시기를 통해 대장경의 조성이나 불복장(佛腹藏), 사경(寫經) 활동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윤장대의 조성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현존 고려시대 윤장대 유물은 용문사 윤장대가 유일하지만 문헌기록상 고려시대 대장전 건립 기록은 12개소가 파악되며, 대장전 내부에 윤장대를 시설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찰은 청평사(문수원)를 비롯하여 혜음사지, 영국사지, 회암사지, 지륜사, 쌍봉사 등으로 확인되고 있어 고려 중기 이전에 이미 전륜장 건립 조류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 근래 연구결과에 따라 파주 혜음원지<sup>53)</sup>, 양주 회암사지<sup>54)</sup>, 영

52) 지반(志盤), 《불조통기》 권33 법문광원지 16(《대정장》 49-318하) ; 《석씨계고략》 권2(《대정장》 49-975중)

53)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파주 혜음원지 4차 발굴조사 지도위원회회의자료>(2004), pp.7-8.

54) 윤희상, <회암사지의 건축사적 조명> 《檜巖寺》(경기도박물관, 2003), pp.230-231.



국사지에서 윤장대의 초석으로 추정되는 부재들이 발굴되었다.

윤장대에 대한 문헌기록<sup>55)</sup>을 통해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여러 곳의 사찰에 윤장대가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려시대부터 왕실과 관련이 있었던 용문사를 비롯한 혜음원과 회암사, 원 황실과 관련이 깊었던 장안사, 청평사 등에 윤장대가 있었다는 것은 현재 확인할 수는 없지만 지역을 막론하고 주로 왕실과 관련 있는 대찰들을 위주로 윤장대가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억불숭유 정책으로 인해 왕실 중심으로 추복(追福)의 경전신앙이 존재하기는 하였으나 고려시대에 비해 불교신앙 내지 범보 공경의 행법이 소략해짐에 따라 윤장대 관련 설행 의식도 곧 소략해졌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따라 새로운 윤장대의 조성도 활발하지 않았을 것이다.

용문사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왕실의 태실을 봉안하는 등 왕실과 관련이 있던 대찰로, 국난타개를 위한 범회가 열리던 호국사찰이었다. 우리나라에서 현전하는 전륜장은 용문사 대장전 내부에 설치된 2좌의 윤장대가 유일한 것으로 불교문화사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작은 규모이지만 전통목조건축을 축소시켜 놓은 것과 같이 표현이 정교하고 세련된 불교목공예품의 정수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보물로 지정된 불교 목공예는 영천 백흥암 수미단(보물 제486호)이 있으며, 예산 수덕사 대웅전 수미단도 단독 형태가 아닌 17세기 불상 및 복장 유물과 함께 보물 제1381호로 일괄지정돼 있는 상태다. 이밖에 강화 전등사 대웅보전 수미단, 부여 무량사 전패, 완주 송광사 불패, 울진 불영사 불연(佛輦) 등 일부가 시도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보물 제 684호 예천 용문사 대장전의 윤장대는 불교목공예품으로 학술적, 예술적인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용문사 대장전은 여러 번의 중수 기록이 있는데 비해 윤장대의 수리, 중수 등에 관한 문헌기록은 보이지 않는다.<sup>56)</sup> 다만 문화재연구소에서 실시한 대장전 조사 시 윤장대 내부에서 천계(天啓) 원년(1621) 중수 기록의 목서명이 발견되었다.<sup>57)</sup> 이 기록으로 보아 17세기 이전 이미 윤장대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된다. 용문사 윤장대는 명종 3년 계사년인 1173년에 초창되어 1621년에 대대적으로 중수되었던 것임을 알 수

55) 남효온의 <유금강산기(遊金剛山記)>는 1458년에 금강산을 유람하고 쓴 기행문으로 금강산 장안사(長安寺) 윤장대의 구체적인 외양과 구조까지 묘사되어 있다. 또 《동문선(東文選)》에 허백당(虛白堂) 성현(成俔, 1439-1504)의 시문 중에서도 장안사 경내에 전륜장, 즉 윤장대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기록에 보이는 윤장대의 외양이 용문사 윤장대와 다른 점으로 보아 고려시대에 다양한 윤장대 양식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장유(張維, 1587-1638)가 쓴 <화청음유정평록(和淸陰遊淸平錄)>라는 시문에 '전경대(轉經臺)'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이 전경대가 윤장대를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청평사 역시 장안사와 마찬가지로 고려시대 원(元) 황실의 후원을 받았던 대찰이었다.

56) 현존 자료상에 보이는 중수기록은 1467년 대장전 중수, 1534년 대장전 중수, 1597년 대장전 중수, 1608 용문사 3차 중건 착수, 1665년 대장전 중수, 1670년 대장전 수리, 1687 3차 중건 완료, 1767 대장전 중수가 있으며, 이후도 계속된 중수가 있었고, 1835년에 큰 불로 폐허가 되었다가 1839년 중건되기도 했다. 또 1984년에도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다행히 사찰측의 노력으로 대藏殿은 소실을 면했다.

57) 김봉건, <龍門寺 大藏殿> 《韓國의 古建築》 12호(문화재관리국, 1990), p. 23.

있다. 용문사 윤장대의 초창과 중창 기록은 찾을 수 있으나 형태적 원형은 고증할 수 없다. 다만 1932년 촬영된 조선고적도보 사진, 1968년 국보도록 사진, 1974년 작성된 도면, 1986년 기록된 도면 및 사진 등에서 근래의 변천 모습은 고증되고 있다. 1968년 국보도록을 보면 공사 이전에도 창호의 파손 등이 있었으며, 1980년 9월 16일에 보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당시의 보수 내역이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을 뿐 보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용문사 윤장대는 2003년 보수 공사 때 <2003년 용문사 윤장대 수리 보고서>를 보면 좌·우 윤장대는 오랜 세월 회전함으로 인한 하중 변형이 발생하여 상·하 중심축을 이탈하여 흔들렸고 좌측의 꽃살창과 우측의 교살창이 파손 및 이완되어 보수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용문사 가람배치는 해운루를 중심축으로 하는 서쪽의 보광명전 영역, 동쪽의 대장전과 자운루를 중심축으로 하는 대장전 영역, 보광명전의 뒤쪽에 별도로 구성된 극락보전 영역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가람 배치는 19세기 전반과 1984년 화재로 인한 변화를 겪어왔지만 17세기 가람의 기본 형식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용문사의 가람배치는 임진왜란 이후에 형성된 신앙적 요구와 지형, 그리고 입지에 순응하여 다불전으로 정착·발전하여 보광명전과 대장전을 축으로 하는 병렬구조와 하나의 별원이 조합된 형식을 띠고 있다. 용문사의 가람배치는 고지도에서 위치만 확인이 가능할 뿐 가람배치는 알 수 없어<sup>58)</sup> 사적기와 중수기를 통해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17세기 용문사 가람의 윤곽을 잡을 수 있는 <속용문사적기>의 내용과 상량문이나 현판 등의 내용을 통해 추정하여 1835년(헌종원년) 화재와 중창 이후 1984년 화재 이전까지 변천과정을 보광명전 영역<sup>59)</sup>과 극락보전 영역<sup>60)</sup>은 제외하고 대장전 영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58) 예천 용문사가 나타나는 고지도는 <해동지도, 1750>, <경상도읍지, 1832>, <영남읍지, 1871>, <지방지도(예천군), 1872>, <예천군 읍지, 1899> 등에 나타나지만 위치만 확인이 가능하지 가람배치는 알 수 없다.

59) 보광명전 영역은 다음과 같다. 17세기 중창 전 용문사에는 대장전을 제외하고는 변변한 다른 전각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승려 혜명의 제하당 중수(1608년), 학문의 적목당(1636년) 건립, 두인의 제하당과 적목당의 남쪽에 범종루(1637년) 건립, 광명전(1638년) 건립 등으로 보아 17세기 전반 배치형식은 사동중정형과 같은 형식으로 광명전을 중심으로 7채의 건물을 갖춘 규모가 있는 가람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1835년(헌종원년) 용문사에 대화재로 대장전 영역은 큰 타격 없이 명월당을 포함한 보광명전 영역만 화재 피해를 입었으나 보광명전 영역은 보광명전과 제하당, 적목당, 명월당, 범종루 등이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범종루는 1785년까지 만세루(현재 자운루)가 존재했으나 1970년경에 작성된 배치도의 보광명전 앞의 해운루는 1835년(헌종 원년)의 화재로 범종루가 소실되어 5년간의 중창으로 새로운 형식이 되었고 1984년 화재로 현재의 해운루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 화재 이후 피해전각은 중수와 보수, 그리고 새로운 전각의 건립이 있었는데, 그 중 1866년 강당채를 설립했다고 하나 위치와 형태는 알 수가 없다. 1970년대 용문사 배치도에는 강당채가 '口'자형 요사채의 형태로 17세기 적목당과 명월당이 있던 위치에 있어 1835년의 화재 후 단순한 '一'자형 두 건물이 용도를 유지한 채 '口'자형 건물로 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현상은 선당(禪堂)과 승당(僧堂)을 비롯해 부엌과 창고 등 생활의 보조기능 공간과 객실 등의 각종 공간들이 하나의 요사채로 통합되는 조선 말기 건축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1932년 촬영된 사진과 1970년경의 항공사진에는 대장전의 좌측, 보광전 우측에 노전으로 보이는 건물과 1칸짜리 단하각이 나타나고, 노전으로 보이는 건물은 1984년의 화재 시 대장전으로 변하지 않도록 보광명전 동측의 옹향각을 철거했다고 함에 따라 17세기 보광명전 동측에 위치했다는 옹향각이 1984년까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60) 극락보전 영역은 극락보전에 관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으나 《조선고적도보》의 사진에 보광명전의 뒤편에 비교적 규모가 큰 팔각지붕의 건물이 극락보전일 것으로 추정된다. 17세기 후반 미타전을 짓고, 1684년 미타전과 신앙적으로 동일한 아미타불을 모신 금당을 조성하는 대규모 불사를 연이어 진행하였다는 것은 미타전이 불전을 의미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금당이 창건된 시기와 미타전이 조성된 시기의 차이가 크지 않고, 조선시대에는 아미타불을 주존으로 하는 불전이 주로 극락전이었던 사실에서 미타전이 부불전이 아니라 당시 유행하는 염불수행의 장소인 염불당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7세기

같다.

대장전은 고려 전기부터 21세기까지의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전각이다. 대장전은 17세기 건물로 알려져 왔으나 1972년 <예천용문산창기사대장전중수상량문, 1767>이 발견되면서 1173년(대정 17) 초창 이후 다섯 차례 보수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음이 확인된다.<sup>61)</sup> 현재 대장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건물로 <중수용문사기, 1185>의 ‘당삼간을 지어 윤장대 2좌를 설치하였다’라는 기록과 같이 초창 이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또한 대들보 및 종보 단면 형태 등에 고식이 나타나 그 형식이 오늘날에까지 유지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전체적으로 18세기 중수할 때 모습이 많이 남아있다고 보인다. 17세기 대장전 영역은 대장전과 자운루를 중심으로 좌우 명월당과 만월당, 그리고 시왕전(현, 명부전), 축수전, 삼삼전(현, 진영당), 시왕전 앞에 있는 청심당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 후기 용문사 가람배치의 변천은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속용문사적기>에 나오는 17세기의 용문사는 광명전과 대장전의 병렬축과 금당인 극락전이 별원으로 구성된 하나의 주불전 영역과 두 개의 부불전 영역으로 구성된 배치에 시왕전, 원통전, 나한전 등이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김룡사본말사지》에 기록된 1839년(헌종 5)의 중건으로 변화한 용문사의 가람 배치는 <속용문사적기>를 중심으로 작성한 17세기 추정 배치도와 1970년경 작성된 배치도의 비교를 통해 추정할 수 있다. 범종루가 소실되어 해운루로 재건되고 적묵당과 명월당이 소실되어 강당채로 재건되면서 건물 평면에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보광명전 등 다른 건물들도 화재로 인해 중수나 보수 등으로 형태 변화가 있었을 것이지만 큰 변화는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 후기의 용문사 가람 배치는 사찰의 기본틀을 유지하여 17세기 중창 이후 현전하는 대장전, 자운루, 진영당, 명부전, 일주문 등은 여러 차례의 중·보수를 거쳤으나 17세기 건물의 기본적 특징을 유지하며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한 근거는 조사보고서, 수리보고서, 항공사진, 위성사진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sup>62)</sup>

후반 광명전을 주불전으로 금당과 대장전을 부불전으로 하는 배치가 구성되었는데, 금당지역인 극락보전의 영역은 1684년 초창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후 극락보전 영역에 관한 내용은 1864년 금당의 불량답(佛糧沓)을 마련하고 도입부에 향각과 불량이 없음을 한탄하고 있어 금당 즉 극락보전 영역 역시 1835년(헌종원년)의 화재에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때 금당의 아미타삼존불과 아미타후불목각탱이 대장전으로 이운된 것으로 추정된다.

61) <예천용문산창기사대장전중수상량문, 1767>에는 1173년의 초창뿐만 아니라 1467년, 1534년, 1597년, 1665년, (<속용문사적기>에는 1670년에도 보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의 중수 연대가 순차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62) 용문사는 1980년초까지 대장전을 비롯한 여러 전각들을 수리하면서 과거의 가람 배치를 유지해온 것은 1923년, 1980년대초의 사진을 통해 확인된다. 그러나 1984년 5월 9일 7시경에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보광명전, 해운루, 응향각, 영남제일강원, 요사, 종무소 등 230여 평의 건물이 소실되었고, 이때 대장전의 소실을 막기 위하여 보광명전과 대장전 사이에 있던 단하각(丹霞閣)과 응향각(應杏閣)을 허물어 불길을 잡았다고 한다. 1970년 항공사진에 있던 응향각, 단하각, 강당채, 요사채, 산령각 등이 1988년 항공사진에는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화재 후 이듬해에 진행된 <1985년 제2회 문화재 지정조사보고서> 도면에는 보광명전, 해운루, 응향각, 요사채가 화재로 전소된 것이 확인된다. 이후 용문사에서는 중수의 뜻을 갖고 많은 불자들의 정성을 모아 보광명전, 해운루, 응향각, 요사채의 복원을 위한 수리를 시작한다. <1988년 항공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보광명전과 해운루는 제자리에 복원을 했지만 요사채의 경우는 기존 위치에서 이격하여 이진하였고 산령각은 규모를 축소하여 산신각으로 신축하였다. <1990년 용문사 대장전 수리보고서> 도면에서 그 건립 규모 및 형태를 찾아 볼 수 있다.

용문사 대장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전후면에 포작이 있는 다포집으로 평면의 도리간보다 보간이 좁은 윤장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계획한 건물이다. 앞면은 3단의 장대석 기단 위에 갑석을 덮었고, 옆면은 부분적인 화강석 장대석과 뒷면은 자연석 기단이다. 격식있는 계획된 건물임에도 기단의 척이 다른 것은 변형되었을 수도 있다고 추정된다.<sup>63)</sup> 시굴조사 결과 기단으로 추정되는 석렬은 현지기술지도를 통해 현황대로 보존하고 장대석기단도 현황대로 보존하도록 하여 매립하고 있다. 계단은 여러 차례 변형을 거쳐 앞면 화강석 장대석 기단 중앙에 3단의 계단을 두어 진입하고 있다. 방형 주좌를 놓고 그 위에 약한 배흘림이 있는 원기둥을 전후면의 평주와 중앙부 고주로 세우고 있다. 대장전은 자연석 주초를 사용하면서 초석의 상부를 가공한 것은 화강석 장대석 기단을 사용한 의도와 부합되는 것이다. 마루는 우물마루로서 양 측칸에는 동귀틀 사이 중간에 변귀틀을 2개씩 설치하여 윤장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위에 작은 부재로 8각 모양을 내어 상부를 마감하였다. 내부는 중앙 어칸의 배면으로 불단을 놓고 3구의 불상을 모시고 있다. 고주를 세워 이곳에 후불벽을 만드는 방법 대신 고주 없이 목각탱으로 후불벽을 대신하고 있다. 좌·우 측칸에는 윤장대가 1좌씩 설치되어 있다. 창호는 앞면 3칸에 같은 크기의 궁판 달린 쌍여닫이 교살문을 설치하고, 뒷면에는 측칸에 궁판 달린 외짝여닫이 세살문을 설치하고 있다. 2치 정도의 귀솟음을 염두에 둔 치목을 하고 있다. 포작은 기둥 위에 주심포 8첩을 두었고, 주간포를 2첩씩 배치하여 전·후면 각 6첩씩 12첩을 배치하였다. 포작의 외부양식은 조선 중기의 세부형식을 보이는 쇠서의 형태이지만 배면에는 쇠서의 형태를 삼분두로 가공하여 소박하고 간결하게 처리하고 있다. 내부양식의 1, 2 계공은 대부분 교두형이고 3, 4 계공은 초각하였으나, 주심포에서는 초계공에서 4계공까지 당초문으로 초각하고 있다. 또한 내부의 공포에는 1출목 포작을 배치하여 의장성을 높이고 있다.

대장전의 평면 특징은 고려 전기 이전의 서고 기능에 충실한 경루(經樓)가 고려 전기부터 예불공간으로 승격하여 주불전이나 주불전 가까이 대장경을 안치한 대장전 또는 대장당이라고 하고 개별 존상마다 별도의 전각을 조성하고 있다. 무신집권기에 들어서면서 경장건축에 관한 사료가 극히 줄어들어 예천 용문사에 윤장 2좌와 직지사 대장전에 양륜을 조성하고 있다. 조선 전기에는 장경의례 대신 정대의례(頂戴儀禮) 등으로 정

<1995년 항공사진>, <2005년 항공사진>, <1999년 용문사 대장전 수리보고서>에서 나타나듯이 근래에 대대적인 중건 및 보수 공사가 진행되었다. 1995년에 회전문을 해체하여 1997년에 중수하였고, 같은 해에 대장전의 배면 지붕도 보수하였다. 1999년 명부전 및 동향각 수리, 2001년 자운루 동측의 옛 건물이 있던 자리에 화장실 1동을 신축, 2002년부터 2004년에 자운루 수리, 2002년 진영각과 강원 수리 그리고 목불좌상 및 목각탱을 보수, 2003년 윤장대, 일주문 수리, 그리고 대장전을 완전 해체 보수, 요사채의 서측 옛 건물이 있던 자리에 화장실 1동과 식당 1동을 신축하였다.

63) 《조선고적도보》에 의하면 3벌대의 화강석 장대석 기단 위에 갑석을 덮은 형태로 하부의 기단 기초는 드러나 있으며, 동쪽 기단의 전면 부분이 화강석 장대석 기단으로 보인다. 반면 《국보도록》에는 두께가 다른 3단의 기단석이고 동쪽 기단석이 자연석으로 변형되어 있는 것을 보아 보수과정에서 변형이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쪽 기단은 《한국의 고건축 12》에 ‘장대석의 갑석만이 노출되어 있고, 그 하부는 흙에 묻혀있다’고 하였고 하부의 자연석 기단이 노출되어 있는 지금과는 달리 1984년 화재 이후 보광명전과 대장전 사이의 건물터를 정비하면서 지반이 변형되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기단 내밀기는 전면이 가장 넓은 8자이고 양측면과 배면은 6자로 동일하게 구성되는 것이 본래의 모습으로 추정된다.

착하여 기존 건물을 개수하거나 대장전 대신 경관 봉안용 판전을 지어 불상과 경전을 함께 봉안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해인사는 경전 중심의 대장전을 헐고 경관 중심의 장경판전으로 변화하였다. 경관은 경전을 찍는 도구지만 이를 종교적 숭배대상으로 승격시킨 것은 조선시대 경장건축의 특성이다. 조선 후기에도 ‘대장경의 목록을 한번 읽은 것만으로도 경전을 읽은 효과를 얻는다’는 범보신앙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존하는 대장전 건물인 용문사 대장전(3×2)은 일반적인 불전과 같으나 불단 좌우에 고정식 서가 또는 회전식 운장대를 설치했던 것으로 추정된다.<sup>64)</sup> 대장전의 가구구성은 기둥 머리를 창방으로 연결하고 그 위에 평방을 올리고 그 위에 공포를 올려 주간포를 2기 배치하고 있다. 내·외 각 2출목 공포의 4제공 위에 대들보를 놓고, 측면에는 고주로 받고 있다. 보칸은 삼분변작과 사분변작의 중간 정도의 위치에 동자주를 놓고 종량을 올리고 있다. 도리는 공포 위에 주심도리를 걸고 대량 위에 동자주를 놓고 중도리를 걸고 있다. 가구는 외목도리가 있는 5량가이다.

대들보의 단면 형태는 가운데 향아리형과 하부가 약간 좁아지면서 둥글게 가공된 형태이고, 동쪽에 향아리형과 서쪽에 폭보다 높이가 약간 높은 방형이다. 가운데와 동쪽의 향아리형 보는 내부에서 보는 시각을 고려하여 미적으로 가공한 고식으로 조영 당시의 부재이거나 중창할 때도 고식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대들보는 부석사 조사당이나 봉정사 극락전에서 보는 것과 같은 향아리형 단면으로 공포의 조성연대보다 고식의 고려 말기나 조선 초기 수법을 확인할 수 있다. 대량 위 가운데 종량 2기는 향아리형으로 연대측정 결과 대장전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이고, 양측은 모접은 방형이다. 종량 위에 세운 마루대공은 어칸의 좌·우에 운형판대공과 초각하지 않은 제형판대공을 설치하였고, 그 위에 중도리를 걸었는데 마루대공에는 받침장여와 뜯장여를 설치하였다. 운형판대공은 제형판대공보다 앞 선 시기로 추정된다. 대들보 위 종량 아래에 8개의 동자주는 어칸 좌우에는 꽃병이나 절구모양의 동자주로 고식 수법이 잘 드러나고, 양쪽에는 방주 형태로 간결한 치목으로 후대에 설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동자주와 대공은 2종류의 다른 형태의 치목 수법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대장전 중수 과정에서 조선시대에 사용하던 방형 동자주와 제형 판대공 외에 절구형 동자주와 운형판대공은 고식 그대로 보수한 것으로 추정된다.

창방의 단면은 너비보다 춤이 큰 장방형의 부재를 사용하고, 우주의 창방뿔목은 전면 에 봉황과 용, 배면에 물고기, 양 측면에 당초문과 연봉을 초각하였다. 창방 위의 평방의 단면은 너비가 춤보다 큰 장방형으로 모서리는 직절하였으나 청룡문이나 황룡문 등의 다양한 조각으로 장식한 것은 원형을 보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장전은 다포계의 건물로, 맞배집과 같이 전면과 배면에만 포를 배치하였다. 포작은

64) 평면 형태로 볼 때, 금산사 대장전은 고정식 서가, 봉정사 극락전은 회전식 운장대가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현존하는 대장전 및 운장대가 예천 용문사 외에는 사례가 없어 지속적인 연구가 요망된다.

전면과 배면, 주상포와 주간포 등의 형상이나 살미 모양은 다르지만, 침차는 마구리를 직절하고 하부를 교두형으로 처리하고 있다.

주상포 8조와 주간포 12조의 공간포는 전후면 공포의 제공 형태가 다른데, 우주 위의 귀 공포는 모두 전면 공포와 같은 형상을 하고 있어 측면에서 볼 때 공포의 형상이 같은 것으로 보이게 하고 있다. 주상포와 주간포는 평방 위에 주두 혹은 좌두를 놓고 그 위에 주심에서는 소두공(주심소침)과 대두공(주심대침)을 출목부분에서는 소침차와 대침차를 놓아 세로 방향으로 놓여지는 살미와 직교시켜 반턱맞춤으로 결구되어 4제공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제공에서 살미의 양 단부를 살펴보면 전면 공포의 경우 외부 1, 2 제공은 양서형으로 그 끝이 원호를 그리면서 올라가는 조선 중기의 특징을 보여준다. 3제공은 연봉과 수서가 복합된 형태를 전체 형상에 있어서는 초제공과 2제공의 형상과 일관되고 있다. 4제공은 당초문을 초각하여 세련되게 다듬은 형상으로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있다. 살미 내부의 경우 주상포는 초제공에서 3제공까지는 당초문을 초각하였으며 4제공에는 아래쪽으로 이어지는 당초문과 함께 여의주를 물고 있는 용두를 초각하였고, 주간포의 경우 초제공과 2제공은 하부를 둥글게 굴린 교두형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며 3, 4제공은 당초문을 초각하고 있다. 배면 공포는 같은 형식으로 초제공은 삼분두 형태로 전면 공포에 비해 간략하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김치목수법의 하나로 추정한다. 형태적으로 조선 초기 다포계공포의 특징으로 볼 수도 있으나 3, 4 제공의 경우 치목수법이 초제공과 이제공의 형태를 더욱 세련되게 다듬은 형상을 보여주고 있어 전면 공포의 3, 4제공과도 연속성을 보이는 등 조선 중기의 수법으로 추정되지만 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건물 내부 4제공 살미 위에는 평방과 같은 기능을 하는 부재를 걸치고 주두를 놓아 1출목의 공포를 매 칸마다 2조씩 배열하여 내부공간의 의장효과를 주고 있다. 이는 청도 운문사 대웅전과 산청 율곡사 대웅전에서 발견되는 조선 중기의 기법으로 추정된다. 살미 내부 주상포에는 각 제공에 당초문과 연봉오리 등을 화려하게 초각하여 있으며, 주간포에는 정면 공포의 살미 내부와 동일한 모양이다.<sup>65)</sup>

살미의 내·외단은 전면과 배면에서 주상포와 주간포가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전면 주상포의 경우 초제공과 2제공 살미의 외단은 모두 쇠서형으로서 양서이고 내부는 초각을 하였고, 3제공과 4제공 살미의 외부와 내부는 모두 같은 초각을 하고 있다. 내

65) 전면 어칸 주상포에서 초·2제공 살미의 외부는 쇠서형과 당초문을 결합한 형태이고, 내부는 모두 당초문을 초각하고 있다. 전면 우주 주상포는 어칸에서와 같은 형태지만 어칸의 주상포보다 절제된 형태로서 간략하면서도 강직한 힘을 느끼게 한다. 배면 어칸 주상포의 초제공에서 4제공까지 살미의 외부는 약간의 곡선형으로 다듬은 삼분두형의 초제공, 초제공의 형상을 익공의 형태로 더욱 세련되게 다듬은 2제공, 당초문을 초각한 수서형의 3제공, 3제공과 같은 당초문을 초각하고 쇠서의 끝을 위쪽으로 말아 올려 압축한 형상의 4제공으로 살미는 모두 다른 형상이지만 자연스럽게 일체감을 주고 있다. 전면 주간포 살미의 외부형태는 우주 주상포 살미와 비슷하지만 3제공의 어칸 주상포에서 안으로 한 바퀴 돌아 밖으로 뺀어나와 마무리된 당초무늬 끝 부분이 주간포에서는 짧게 끊긴 채 마무리되어 주간포가 소략해 보이고 있다. 배면 주간포의 내부는 다른 주간포와 동일하나 양쪽 우주 옆의 주간포는 3제공 수서의 형태가 배면 우주의 3제공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배면 측칸 평주의 3제공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

부는 용두로 초각되어 상부에 놓이는 대들보를 받치는 보아지의 역할을 겸하도록 하였다. 전면 공포의 주상포 살미가 주간포와 다른 점은 초제공과 2제공의 내부에서 두드러진다. 용두와 당초문을 초각하여 화려하게 장식한 주상포와 달리 주간포에서는 끝부분을 직절하고 하단부를 교두형으로 마무리하여 주상포보다 약화되어 보인다. 배면은 전체적으로 전면과 대칭되는 구조이면서 세부형상에서 다르게 구성하고 있다. 주상포의 경우 살미 외단의 형상이 초제공과 2제공에서는 삼분두에서 수서형으로 변해가는 과도기적 형태를 표현하였는데, 삼분두에 가까운 초제공에서부터 온전한 수서형인 3제공까지 순차적인 변화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배면 공포의 주상포와 주간포가 다른 점은 외단의 3제공 살미가 두드러지는데 수서의 형태로 길게 뻗은 주상포 살미의 경우와 달리 주간포에서는 전면쪽 삼제공 살미와 비슷하게 처리하였다. 살미 내단의 경우는 전면쪽에서와 같이 주상포에서는 초제공에서 4제공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연결되는 당초문을 초각하였고, 주간포에서는 초제공과 2제공을 교두형으로 하였는데 전체적으로 전면쪽 주상포와 주간포의 관계처럼 분위기를 통일시키고 있다.

창방의 하부에 위치한 상인방은 문얼굴의 위틀로 사용되고, 하인방은 문지방으로 사용하면서 마루귀틀의 옆판을 겸하고 있다. 측칸에서의 인방재는 우주 쪽이 어칸보다 높아 귀솟음을 고려한 치목을 하고 있다. 문선과 주선은 상방과는 연귀맞춤, 하방과는 장부맞춤으로 구성되어 있다. 벽체는 판벽과 외벽은 회사벽으로 구성되고 공포 사이에는 포벽을 설치하였다. 전면에는 3칸에는 창호를 설치하고, 그 외에는 주선과 문선 사이에 가로로 울거미를 대고 상하에 궁관을 끼워 벽체를 마감하였다. 후면과 양측 벽체는 문 설치 부분을 제외하고 100mm 정도 두께의 외벽은 회사벽으로 처리하고 있다. 전·후면 공포 사이의 포벽과 상부포벽도 외벽은 회사벽으로 하였는데 건물 내부로의 보이는 부분은 벽화 및 굿기로 되어 있으나 배면은 맞벽이 없이 외벽은 벽이 노출되게 설치되어 있다. 《조선고적도보》에는 외부에서 보이는 우측 벽체를 회벽으로 벽체의 중간에 벽선이 있고, 좌측의 벽체를 판벽으로 확인된다. 《국보도록》에는 우측 벽의 벽선이 외부에 없으나 내부에 벽선이 확인된다. 이는 외부 미장을 하면서 벽선이 감추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윤장대 및 불단의 뒤편으로 보이는 배면의 벽체는 판벽이고 널판문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판벽은 조선 후기에 성행되었던 건축기법이므로 당시에 변형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고적도보》에 좌측면 내부는 창방 하부 벽체는 판벽이고, 창방 상부에는 단청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창호는 전면 3칸에 각 칸마다 ‘궁관 달린 교살문’을 2짝씩 6짝을 설치하고, 배면 양측 측칸에 ‘궁관 달린 세살문’을 1짝씩 2짝을 설치하고 있다. 문얼굴의 구성은 인방과 문선을 사용하고 있다. 정면과 배면 모두 하인방과 상인방을 문지방과 문미로 하였다. 정면 어칸과 양 측칸에는 각각 두 짝씩의 교살문이고, 배면의 양 측칸에 설치된 외짝 세살문이다. 울거미는 선대와 가로대의 구별 없이 같은 규격을 사용하여 쌍사를 치장한

연귀맞춤을 하고 있다.

천장은 어칸에는 소란을 댄 우물반자를 설치하였고 양측의 측칸은 연등천장으로 되어 있다. 그 외의 천장은 내부 전면과 후면에 이중포의 출목침차와 중도리장여 사이를 경사지게 막아 상부의 연골이 보이지 않도록 경사지게 막아 댄 빗천장과 공포의 내·외부의 출목 사이에는 순각천장을 설치하고 있다. 건물 어칸의 전·후면의 중도리 사이에는 우물천장을 설치하고 있다. 내부 상부에는 별도의 포작을 설치하고, 도리와 공포 사이에는 빗반자를 설치하고 있다. 귀틀 사이에는 반자널을 받치기 위하여 초각을 한 소란을 대어 천장을 장식하고 있다.

지붕의 구성은 풍판을 설치하지 않은 겹처마의 맞배지붕이다. 측면은 박공처마를 구성하여 박공을 설치하고 목기연을 설치하고 있다. 지붕의 전면과 측면에는 막새 및 내림새를 설치하였으나 배면에는 와구토로 마감하고 있다. 용마루는 차고와 부고 위에 적새 5단을 두고 그 위에 솟기와를 1단 얹어 마감하고 있다. 내림마루는 당골막이 위에 적새 3단을 두고 그 위에 솟기와를 얹었다. 전면 중앙부의 수막새의 일부에는 백자로 만든 연봉 6개가 남아있다. 지붕의 기와는 암기와, 솟기와, 암막새, 수막새, 망와가 있다. 근래까지 많은 수리공사로 사용된 기와의 종류가 많이 나타난다. 막새는 배면의 와구토바르기 부분을 제외한 전면과 양측면에 사용되고 있다. 대장전의 지붕에는 명문 기와가 있어 대장전의 연혁을 밝히고 있으며, 망와는 별도의 것을 사용하지 않고 1972년 보수를 하며 새로 제작한 암막새를 뒤집어서 사용하고 있다.

단청은 금단청의 형식을 띠고 있으나, 외부의 양측면과 배면은 재료 수급이나 재정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간략한 문양을 사용한 모로단청으로 시채된 것으로 보인다. 내부 단청은 수차례의 수리공사에도 옛 단청이 그대로 남아있으며, 외부 단청은 1973년 보수공사 시 새로 채색하였으며, 2004년 해체공사 시 교체부재에 한해서 부분적으로 고색단청을 하였다. 금단청으로 시채된 내부 단청은 녹색을 주조색으로 하여 삼청과 육색, 황색 등을 배색하고 번엽곱팽이를 사용하였다. 대량과 창방의 계풍에는 용을 장식하였으며, 포벽에는 여래좌상을 도채하였다. 내부의 단청은 시채시기를 알 수는 없으나 조선 중기의 단청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조선고적도보》에는 서측의 상부 벽체에 벽화가 확인되고 있어 내부 벽체에도 원래 벽화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1968년 이전에 소실된 것이 확인된다. 외부 단청은 1973년 퇴색된 그대로 살려 채색한 전체 개체에 이어 2004년 부분 고색단청을 하여 옛 단청의 형식과 문양을 계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장식 요소는 종량을 받치는 화반과 용, 봉황, 연봉 등 다양한 초각을 한 살미, 외부 평방의 귀면과 연화문장식과 용과 봉황을 초각한 창방마구리, 지붕기와에 장식된 연봉 등 많은 곳에서 나타난다. 내부의 장식 요소는 좌측 화반에 용과 우측 화반에 물고기 위에 용이 올라탄 형상이고, 어칸의 목각탱의 상부에 용조각은 반자틀을 받치는 방재



를 휘감은 듯한 형상이다. 장식 요소는 전면에 집중되어 평방의 직철한 양단부에 좌로부터 연봉을 입에 문 귀면장식, 어칸 양쪽에는 화문 장식, 우측에는 물고기를 입에 문 귀면 등을 장식하고 있다. 또 창방의 마구리도 좌측에 봉황과 우측에 여의주를 입에 물고 있는 청룡을 조각하여 장식하고 있다. 전면 지붕의 연봉은 전면의 수막새 부분에 전체적으로 설치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2004년 보수 당시 6개가 남아 있었고 그 중에서 1개는 파손되어 있었다. 연봉은 자기로 만들었으며 내부는 비어 있는 형태이다. 《조선고적도보》와 《한국의 고건축》의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전면 지붕 위에 흩어져 있었던 것을 수리를 하면서 중앙부로 모아 설치한 것이 확인된다. 장식재의 형태는 《조선고적도보》를 통해 대장전이 몇 차례 수리를 거치면서도 장식적 요소와 특징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으며, 본래 형태의 흔적이 잘 남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건축적 특징을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 대장전의 정면 어칸 공포 앞에는 “大藏殿(대장전)”이라고 쓰인 현판이 걸려 있다. 현판은 단일 판재로 바닥판을 구성하고 네 면에 테두리목을 붙여서 만들었다.

영조척은 배병선의<다포계 맞배집에 관한 연구>에서 311mm로서 주칸을 10.5척으로 분석하였다. 문화재연구소의 《한국의 고건축 12》(1990)에 대장전과 윤장대를 실측치를 곡척(曲尺)으로 환산하였다. 용척은 기둥 하부에서 실측 조사한 도리방향의 주칸을 살펴보면 어칸과 측칸 그리고 양측면의 보칸은 비슷한 치수를 보여 같은 치수로 계획한 것으로 추정된다. 도리방향과 보 방향으로 구분하여 기둥 상부와 하부에 대하여 주칸 거리를 실측하여 추정 완척으로 산출한 평균치의 영조척은 기둥 상부에서 311.71mm 이고 기둥 하부에서 311.35mm로 나타나고 있다. 평균값은 311.53mm로서 배병선이 <다포계 맞배집에 관한 연구>에서 언급한 311mm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귀솟음과 안쏠림은 대부분의 기둥에서 처짐현상 등으로 인하여 변형된 것이 확인되어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다. 처짐변형의 경우, 도리와 평방 사이의 포 부분에서는 변형이 거의 없으며 기둥의 길이에 변화가 있었거나 주초가 당초보다 내려앉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주와 평주가 부분적으로 11~62mm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상인방의 경우 측칸에서 우주 쪽의 치수가 약 20~34mm 정도 더 크게 나타나고 있어 귀솟음이 확인되며 계획적 치목방법이 확인된다. 안쏠림을 주었을 경우 기둥 상부 주칸이 하부보다 작아야 하지만 측면에서 기둥 하부 쪽이 작게 나타나 부분적으로 교란되어 있음이 확인되지만 전면과 배면의 기둥에서 40mm, 8mm로 작지만 나타나고 있어 부재의 수축과 응력의 전달에 의한 안정 혹은 변형에 의한 영향과 시공과정에서의 오차 등으로 나타난 안쏠림으로 볼 수도 있으나, 전반적인 상태로 보아서 조영 당시 미미하지만 안쏠림을 감안하였던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다.

윤장대(좌) 변형을 고찰하면, 창호 부분은 1986년 도면 및 사진과 2010년 사진을 비교해 본 결과 보수하면서 미묘하게 문양이 다르게 설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달동자

의 형태는 보수 이전의 조형 수법이 보수 이후보다 좀 더 세밀하고 고급스럽게 치목된 것을 알 수 있다. 계자각은 1986년 사진에 난간대가 없는데 1932년 조선고적도보를 보면 일부 망실되긴 하였으나 난간대의 일부가 확인되어 원형을 추정할 수 있고, 2010년 사진에서는 대부분 새롭게 교체된 것이 확인된다. 2010년 용문사 윤장대 중심축 하부를 보면 마름모꼴의 날개판이 교체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2003년에 풍혈, 날개판, 연화문 축부재 등이 심하게 훼손되어 수리된 것이다. 당시 없어진 부재는 기존에 남아있는 부재를 참고하여 원형 복원하였고, 부서진 부재는 조각하여 다시 설치하였다. 당시 날개판에는 무쇠못으로 고정되어 있었는데, 대나무 못으로 교체하여 고정하였다고 한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2010년 윤장대 하부는 교체된 부재를 제외하면 단청이 칠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1986년 사진에서도 단청이 칠해진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1932년 조선고적도보 사진에서는 단청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하부 단청은 나중에 칠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의 자료만으로는 단청의 유무나 형태를 정확히 추정하기는 어려우며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윤장대(우)의 변형을 고찰하면, 1986년 도면 및 사진과 2010년 사진을 비교해 보면 창호의 창살 형태는 거의 그대로인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2010년 사진을 보면 경첩의 형태가 ‘ㄱ’자형으로 창호 귀틀에서 고정하고 있지만, 1986년 사진에서는 ‘一’자형으로 설치되어 있다. 1932년 조선고적도보의 좌측 윤장대 사진을 보면 ‘一’자형의 경첩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2010년 사진의 ‘ㄱ’자형 경첩은 용문사 윤장대를 보수하면서 변형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보수 전의 형태가 원형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자료를 발굴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1986년 사진에는 달동자와 장식 부재가 일부 훼손되어 있는데, 2010년 사진에서는 기존 달동자를 보수하고 일부는 새로 달아내고 있다. 그렇지만 달동자의 치목 수법은 보수 이전의 조형 수법이 좀 더 세밀하고 고급스러우며, 좌측 윤장대의 달동자 치목 수법과 거의 동일하여 달동자 보수가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창호 철물의 변형이 여기 사진에서도 확인이 된다. 2010년 사진에는 낙양의 일부를 다시 설치한 것을 볼 수 있는데 1986년 사진의 낙양과는 모양이나 형태가 달라 변형된 것을 볼 수 있으며, 치목 수법 역시 단조롭게 표현되었다. 또한 1986년에는 단청 문양이 나타나지만 후에 새로 설치된 낙양에는 단청이 표현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1986년 사진에서 우측 낙양의 모서리 결구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맞춤이 어긋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를 볼 때 이 역시 이미 수리된 것으로 원형으로 보기에 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보수 전의 형태가 원형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자료를 발굴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사진에는 계자각을 다시 제작하여 설치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1986년 사진과 비교해 볼 때, 원래의 형태를 좀 더 소략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이는 기계 치목으로 형태가 단조로워진 영향으로 보인다. 2010년 사진을 1986년 기록과 비교해보

면 돌란대의 직경이 21mm에서 15mm로 감소되었으며, 궁관은 변형된 문양과 문양의 위치, 마감 치목 수법 등이 모두 1986년 이전보다 투박하게 표현된 것으로 확인된다. 2015년 현장 조사 시 주지스님의 전언에 의하면, 원래 윤장대 처마에는 주물로 제작된 풍경이 설치되어 있었고 제작연대는 오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윤장대 처마에 풍경을 거는 풍경구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종을 설치할 수 있으나 고리를 건 홈의 위치가 제각각이고 조선고적도보 사진이나 국보도록 사진 등 과거 사진에서 윤장대에 종이 걸려 있는 모습은 발견된 적이 없기 때문에 더 연구가 필요하다.

용문사 윤장대의 구조와 조형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팔각의 전각형 목조건축물로 총 높이는 4.2m, 둘레는 3.5m이다. 크게 옥개 부분인 상대와 경장(經藏) 부분인 중대 및 하대로 나뉘며, 기본적인 구조와 형태는 2기가 동일하다. 상대의 지붕은 팔작지붕 형태로 기와는 생략된 채 옥개를 갖추고 있다. 중앙의 경장 부분은 8면의 창호에 2면이 개폐되어 있고, 내부에는 경전을 쌓도록 단이 있다. 크기가 거의 사방 1m에 달하는 화강암 초석 중앙에 홈이 파져 있는 구형(毬形)의 석제 호박 위에 삽입하여 지반에서부터 천장 가구까지 연결된 지름 28cm 원형의 기둥이 회전축을 이루고 하단 몸체에 손잡이는 밀어서 윤장대를 돌린다. 하대는 역삼각꼴 팔각원당형으로 모서리마다 초각 장식이 되어 있고, 전면에 용문양이 그려져 있다. 이러한 전각형, 옥개와 단집의 표현, 그리고 초석 및 중앙의 기둥과 하부구조는 중국 <용흥사 윤장대>와 유사하다. 또한 영조법식에 묘사된 구조와도 일치하여 송대의 윤장대를 원형으로 하고 있다. 2001년 중수할 때 초석과 기둥에 후보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초석과 회전축은 고려시대 초창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용문사 윤장대는 작지만 정교하게 전통목조건축을 표현하고 있다. 지붕은 서까래와 부연을 둔 겹처마의 팔작지붕 형태로 공포 및 기둥, 창방, 평방을 둔 귀포의 세부 기법까지 표현한 7출목의 다포계 건축물을 형상화하였다. 또한 낙양각과 끝을 꽃모양으로 마무리한 헛기둥은 신록사 극락전의 단집(1678)이나 영광 불갑사 단집(1680) 등 17세기 중후반 경에 조성된 단집과 매우 유사하다.<sup>66)</sup>

중앙 경장은 팔각원당형으로 천장은 부채꼴 모양의 천판을 조립하고 용 문양을 그려 놓았다. 8면의 창호는 통판투조기법으로 정교하게 처리되어 있으나 좌측은 8면이 다른 문양의 꽃살창호이고 우측은 전부 교살창호로 달리 표현되어 있다. 꽃살창호는 17세기 이후 사찰건축에서 유행하던 창살 형식으로 정교한 살구, 모란, 연화, 국화, 미늘꽃, 연지수금문 등을 표현<sup>67)</sup>하고 화려한 단청이 있다. 오른쪽 윤장대의 격자창살은 형식은

66) 오세덕, <예천 용문사 대장전과 윤장대> 《문물연구》, Vol 1, No 2(동아시아문화연구학회, 2012). 훼손이 진행되어 2003년 중수 시에 옥개 상면 개판에 쌓인 흙먼지를 제거하고 더 이상의 훼손을 막기 위해 판재를 덮었고, 낙양각 사이에 내려온 헛기둥 끝에 달린 연봉도 교체되었다.

67) 훼손이 심한 창호는 2003년 보수를 하면서 새로운 부재로 복원하였는데 향후 복원 부위에 대한 고색처리 등에 대해서 논의해야 할 것이다.

삼국시대부터 지금까지도 사용하는 창살형식으로 시대를 추정하기 어렵다. 좌측 경장 하단의 풍혈은 투조 안쪽에 판재를 덧대는 형식으로 불단에도 보이며 조선 중·후기의 목조 가구형식이고, 우측 윤장대의 풍혈은 조각편을 밖으로 부착하고 있어 대조적이다. 경장 하부의 하엽받침 돌란대가 둘러진 난간은 《조선고적도보》와 비교하면 정자건물이나 불상대좌, 불연 등에서 흔히 보이는 형식으로 운문사 불연(佛輦)과 대비사 불연 등 17세기 유물들과 같은 형식인 <아미타삼존상> 대좌 난간은 17세기로 편년되기 때문에 17세기 양식으로 추정된다.

윤장대 형식과 구조는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이지만 여러 차례 보수하여 외부 장엄의 원형을 추정하기 어렵다.<sup>68)</sup> 대장전과 같이 다포식 건축구조와 옥개 양식을 조선 중기로 보고 있고, 꽃살 창호, 풍혈, 난간 등도 조선 중기의 의장으로 1621년 중수 기록과도 부합된다. 조선 중기 이후 여러 차례 보수한 것이 부분적으로 보이지만 고식을 유지하고 있다. 옥개와 단집, 난간 등이 용흥사 윤장대나 《영조법식》과 유사하여 초창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조선 중기에 중수하면서 표현양식만 바뀌었을 것으로 볼 수도 있다.

### 3.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

용문사 대장전 및 윤장대에 대한 역사적인 가치는 다음과 같다.

신라 말 경문왕 10년(870)에 두운선사가 초창하여 수도하던 곳을 태조의 방문 후 격식을 갖춘 사찰로 확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 명종 3년(1173)에 김보당이 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자엄대사가 발원하여 삼만승채를 열고 3칸의 대장전을 지어 그 안에 윤장대 2기를 안치하였다고 한다. 이는 국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대장전과 윤장대 2좌를 조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1972년 수리공사 시 발견된 <예천 용문산 창기사 대장전 중수 상량문(醴泉龍門山昌期寺大藏殿重修上梁文)>에도 대장전과 윤장대는 계사년(癸巳年) 1173년에 초창된 것으로 추정된다.

초창 시의 규모는 알 수 없고, 10세기에 30칸의 건물이 있었다는 것 외에는 가람의 배치를 알 수 없다. 12세기 자엄선사의 중창은 93개 건물에 달하여 대규모 사역이었지만 승방, 주방 및 당삼칸만 언급되어 배치는 확인할 수 없다. 이는 당삼칸에 윤장대 2좌를 설치하였다는 기록으로 12세기 고려 중엽에 이미 윤장대가 존재했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68) 1972년 수리공사 시에 발견된 <예천용문산창기사대장전중수상량문>의 기록에 의하면 여러 번의 중수를 거쳐 1767년(英祖 43년)에 마지막으로 중수된 것을 알 수 있고, 이후 1962년부터 1980년까지 대장전을 비롯한 여러 전각들을 수리하였으며, 2001-2003년에 걸쳐 대장전 수리공사를 하는 중 윤장대 2좌를 보수하였다. 예천군청, <예천 용문사 윤장대 수리보고서>(2003).

대장전의 수리기록은 1173년(대정 13)에 윤장대 2좌를 당삼간에 별치하고 법회를 열었다는 <중수용문사기>와 대장전 건립에 대한 <예천 용문산 창기사 대장전 중수 상량문>을 시작으로, 7차에 걸친 중수와 19세기에도 보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1962년부터 8차에 걸쳐 크고 작은 보수공사가 있었으나 1984년의 화재에 단하각과 응향각을 허물어 불길을 막아낼 정도로 원형을 잘 유지해 보존해왔다고 할 수 있다.

사찰의 배치를 보면, 대장전, 자운루의 기본축으로 가람 배치가 형성되었다가, 17세기 중창 이후에 건립된 광명전, 해운루, 회전문으로 구성되는 부축이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1984년 화재로 인해서 건물이 상당 수 소실된 이후 중창하면서 기본축의 변화는 없지만, 천불전, 보광명전, 해운루, 회전문을 잇는 축이 사찰의 중심축으로 변경되면서 사찰 가람이 대대적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겪고 있다. 가람의 주축은 화재로 소실되거나 전각의 용도가 변경되기는 했으나, 대장전의 규모 및 위치는 변함없이 지켜왔으며, 1984년 화재 때 단하각(丹霞閣)과 응향각(應杏閣)을 허물면서도 대장전을 지키려 했던 의지와 보존의 노력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윤장대가 현재까지 용문사에만 남아있게 하였다.

이상과 같이 용문사 동편에 위치한 대장전은 고려 전기부터 21세기까지의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전각이다. 대장전 내부에 설치된 2좌의 윤장대는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유일한 것으로 불교문화사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장전은 경판이나 경전 전체를 보관할 수 있는 건물로 중국에서는 송대 이후에 방대한 불전을 간행하고 보관하기 위하여 경장을 반드시 갖췄던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에도 고려 대장경판을 보관한 홍왕사 등에 대장전을 지어 보관한 기록이 남아있다. 용문사 윤장대는 <중수용문사기, 1185>를 보면 ‘당삼간을 지어 윤장대 2좌를 설치하였다’라는 기록에서 고려 중엽에 초창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용문사 대장전은 경판이나 경전 전체를 보관할 수 있는 대규모가 아니라 3칸 규모의 단정한 규모로 처음부터 윤장대를 봉안한 전각으로 구상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장전은 그동안 <속용문사적기>의 ‘경술년(1670) 대장전을 수리하였다’는 내용으로 인해 17세기 건물로 알려져 왔지만 1972년 수리과정 중 <예천용문산창기사대장전중수상량문, 1767>이 발견되었고, 1173년(대정 17) 초창 이후 당시까지 다섯 차례 보수가 있었다는 기록으로 중수 시기를 가늠할 수 있게 되었다.

대장전 내부 한 쌍의 윤장대는 경전을 안치하는 경장시설 중의 하나로서 현재 우리나라에는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것이다. 용문사 대장전은 3칸 규모이지만 처음부터 윤장대를 봉안한 전각으로 구상한 것이다. 윤장대는 하대, 경전을 넣어둔 몸체부, 옥개부로 구성되어 중앙에 원형기둥을 세우고 기둥의 하부는 돌둔테에 끼워 윤장대가 회전하도록 만든 목제 구조물이다. 중국 양나라 부흠이 윤장대를 돌리면 경전을 읽은 것과 같은 공덕이 쌓인다는 경전신앙이 송대 중엽 《영조법식》을 통해 윤장대 제도가 정립될 정도로 성행하였고, 남송대 <전륜장기> 등을 통해 더욱 보편화되었다가 쇠퇴한 것으

로 보인다. 고려 전기에는 송과의 불교문화 교류를 통해 대장경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경전신앙이 전래되어 고려시대 왕실과 관련된 대찰에서 조성되다가 조선시대로 들어오면서 소략해진 것으로 확인된다. 용문사는 왕실과 관련이 있던 대찰로 국난타개를 위한 법회가 열리던 호국사찰이었다. 용문사 대장전 내부에 설치된 2좌의 운장대는 작은 규모이지만 전통목조건축을 그대로 축소시켜 놓은 것과 같이 표현이 매우 정교하고 세련되어 불교목공예품의 정수이다.

용문사 대장전에 비해 운장대의 수리, 중수 등에 관한 문헌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용문사 운장대는 명종 3년 계사년인 1173년에 초창되어 1621년에 대대적으로 중수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용문사 운장대의 초창과 중창 기록은 찾을 수 있으나 형태적 원형은 고증할 수 없다. 다만 1932년 촬영된 조선고적도보 사진, 1968년 국보도록 사진, 1974년 작성된 도면, 1986년 기록된 도면 및 사진 등에서 근래의 변천 모습은 고증되고 있다. 1980년 보물로 지정되면서 보수가 있었던 것이고, 2003년에는 상·하 중심축을 이탈하여 흔들렸고 꽃살창과 교살창이 파손 및 이완되어 보수하였다.

용문사 대장전 및 운장대에 대한 학술적 가치는 다음과 같다.

서고 기능의 경루가 고려 전기부터 예불공간으로 대장경을 안치한 대장전 또는 대장당이라는 별도의 전각을 조성하고 있다. 무신집권기에 들어서면서 예천 용문사에 운장 2좌와 직지사 대장전에 양륜을 조성하고 있을 뿐이다. 조선 전기에는 기존 건물을 개수하거나 대장전 대신 경관 봉안용 판전을 지어 불상과 경전을 함께 봉안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조선 후기에도 범보신앙으로 이어지고 있다. 중국 양나라 경전신앙이 고려 전기에 송과의 불교문화 교류를 통해 경전신앙이 전래되어 용문사 대장전과 2좌의 운장대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에 가치를 지닌다.

대장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다포집으로 운장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계획한 건물이다. 시굴조사 결과 원형의 기단으로 추정되는 석렬은 매립하였다. 마루는 우물마루로서 양 측칸에는 동귀틀 사이 중간에 변귀틀을 2개씩 설치하여 운장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위에 작은 부재로 8각 모양을 내어 상부를 마감하였다. 2치 정도의 귀솟음을 엄두에 둔 치목을 하고 있다. 창방 위의 평방의 단면은 너비가 춤보다 큰 장방형으로 모서리는 직절하였으나 청룡문이나 황룡문 등의 다양한 조각으로 장식한 것은 원형을 보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주상포와 주간포는 평방 위에 주두 혹은 좌두를 놓고 그 위에 주심에서는 주심소침과 주심대침을 출목부분에서는 소침차와 대침차를 놓아 세로 방향으로 놓여지는 살미와 직교시켜 반턱맞춤으로 결구된 4제공이다. 전면 공포의 제공 살미 양 단부는 1, 2 제공은 양서형으로 그 끝이 원호를 그리면서 올라가는 조선 중기의 특징을 보여준다. 배면 공포는 같은 형식으로 초제공은 삼분두 형태로 전면 공포에 비해 간략하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치목수법의 하나로 추정한다. 형태적으로 조선 초기 다포제공포의 특징으로 볼 수도 있으

나 3, 4 계공의 경우 치목수법이 초계공과 이계공의 형태를 더욱 세련되게 다듬은 형상을 보여주고 있어 전면 공포의 3, 4계공과도 연속성을 보이는 등 조선 중기의 수법으로 추정되지만 신록사 조사당 후면 공포와 비교해보면 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건물 내부 4계공 살미 위에는 평방과 같은 기능을 하는 부재를 걸치고 주두를 놓아 1출목의 공포를 매 칸마다 2조씩 배열하여 내부공간의 의장효과를 주고 있다. 이는 청도 운문사 대웅전과 산청 울곡사 대웅전에서 발견되는 조선 중기의 기법으로 추정된다. 주상포의 경우 살미 외단의 형상이 초계공과 2계공에서는 삼분두에서 수서형으로 변해가는 과도기적 형태를 표현하였는데, 삼분두에 가까운 초계공에서부터 온전한 수서형인 3계공까지 순차적인 변화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대들보의 단면 형태는 가운데 향아리형과 하부가 약간 좁아지면서 둥글게 가공된 형태이고, 동쪽에 향아리형과 서쪽에 폭보다 높이가 약간 높은 방형이다. 가운데와 동쪽의 향아리형 보는 내부에서 보는 시각을 고려하여 미적으로 가공한 고식으로 조영 당시의 부재 이거나 중창할 때도 고식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추정되어 부석사 조사당이나 봉정사 극락전에서 보는 것과 같은 향아리형 단면으로 고려 말기나 조선 초기 수법을 확인할 수 있다. 대량 위 가운데 종량은 향아리형으로 연대측정 결과 대장전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이다. 동자주와 대공은 2종류의 다른 형태의 치목 수법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대장전 중수 과정에서 조선시대에 사용하던 방형 동자주와 제형 판대공 외에 절구형 동자주와 운형판대공은 고식 그대로 보수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대장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건물로 초창이후 ‘당삼칸’은 큰 변화 없이 지속되어 왔다. 가구는 5량가로 대들보 위에 동자주를 세워 종보를 받고 있으며, 창방뿔목과 평방마구리는 용, 화문 등의 조각으로 장식성을 더하였다. 대들보와 종보의 단면 형태 중 일부가 향아리형으로 되어 있어 조영 당시의 부재가 남아 있는 것이거나 중창 시 기법을 따른 것으로 고려 말 내지 조선 초기의 수법으로 추정된다.

용문사 윤장대의 구조와 조형적인 특징에서 학술적인 가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용문사 윤장대는 중국 <용흥사 전륜장>이나 <운암사 비천장>과 같은 단독의 전륜장이 아니라 작지만 한 쌍<sup>69)</sup>으로 조성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한 쌍의 윤장대는 기본 구조가 같지만 꽃살창호와 교살창호, 방주와 원주, 2개와 3개의 초석 부재, 기둥 끝 및 초석과 기둥의 연결부위 및 풍혈의 형태가凹와凸로 표현되는 등 천원지방(天圓地方)과 음양(陰陽)의 기본원리를 세부 조형에까지 표현하고 있다. 셋째, 어느 것이 원형인지 알기 어렵지만 창호형식이나 회전구조체 등은 각기 다른 형식으로 계획된 조형원리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넷째, 초창은 고려시대부터 조선 중기까지 어느 시기인지 알 수 없지만 1621년 중수한 것은 원형을 유지하면서 결실 부분을 보완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섯째, 경장을 보관하기 위하여 통풍을 고려한 투조로 조성되었다는 것이다.

69) 문헌기록이나 초석 부재 등을 통해 우리나라에도 단독의 윤장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윤장대는 중국 남북조 시대 포교의 수단으로 경전신앙으로 창안되어 송대에는 고려 전기 국내로 도입되면서 왕실사찰 위주로 조성되면서 용문사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 전기까지는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윤장대가 여러 사찰에 있었지만 새로이 조성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임진왜란 이후 사라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용문사 대장전 및 윤장대의 구조와 조형적인 특징에서 예술적인 가치는 다음과 같다. 대장전은 공포의 쇠서가 유연하게 올라가기 시작하고, 공포를 비롯해 건물의 내·외부에 연꽃의 장식요소가 강조되었으며, 측면의 칸수와 고주의 처리가 후대에 주로 쓰이는 수법이라는 점에서 조선 후기에 중수되면서 변화되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대장전은 윤장대를 설치하여 불경을 봉안하기 위해 고려시대에 건립되어, 여러 번 중수를 거치면서도 원래의 규모와 용도는 그대로 하여 지금까지 이어져 온 윤장대가 설치된 법보전의 유일한 사례로 남아있다.

대장전은 앞에서 언급한 내용은 제외하고 장식 요소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종량을 받치는 화반과 용, 봉황, 연봉 등 다양한 초각을 한 살미, 외부 평방의 귀면과 연화문장식과 용과 봉황을 초각한 창방마구리, 지붕기와에 장식된 연봉 등 많은 곳에서 나타난다. 내부의 장식 요소는 좌측 화반에 용과 우측 화반에 물고기 위에 용이 올라탄 형상이고, 어칸의 목각탱의 상부에 용조각은 반자틀을 받치는 방재를 휘감은 듯한 형상이다. 장식 요소는 전면에 집중되어 평방의 직절한 양단부에 좌로부터 연봉을 입에 문 귀면장식, 어칸 양쪽에는 화문 장식, 우측에는 물고기를 입에 문 귀면 등을 장식하고 있다. 또 창방의 마구리도 좌측에 봉황과 우측에 여의주를 입에 물고 있는 청룡을 조각하여 장식하고 있다. 전면 지붕의 연봉은 전면의 수막새 부분에 전체적으로 설치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2004년 보수 당시 6개가 남아 있었고 그 중에서 1개는 파손되어 있었다. 연봉은 자기로 만들었으며 내부는 비어 있는 형태이다.

용문사 윤장대는 1173년에 초창되었고, 1621년에 중수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전각형의 초석 및 회전체 등의 기본 구조는 중국 송대 윤장대와 같아 원형을 유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창호, 옥개와 난간 등은 조선 중기 양식을 보여 중수기록과 같아 원형을 유지하면서 시대적인 양식으로 보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양식적으로 전통목조건축의 조형원리를 잘 표현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고유의 목조 조형의식을 잘 드러내고 있어 가치가 크다고 판단된다.

윤장대는 몸체의 팔각형 평면에 따라 기둥을 세우고 창호를 설치하여 서측 윤장대는 꽃창살, 동측 윤장대는 교창을 설치하고 그 안에 경전을 보관하였다. 몸체부 상부에는 퇴칸을 달아 기둥과 창방 평방을 두어 건축물을 형상화하고 평방 위에는 화려한 다포계 공포를 짜 올려 지붕을 겹쳐마로 하여 옥개부를 이루었다. 조선 중기의 화려하고 정교한 목공 예술을 잘 보여주는 유물로서 화려한 팔각 건축물 형태의 윤장대 문을 열면 8면에 서가처럼 단이 만들어져 경전을 꺼내볼 수 있다. 경전의 보관과 이를 돌려



얻는 공덕의 효과를 함께 갖춘 윤장대는 공예품이자 신앙의 대상이요 불교 사상의 전당인 불전의 보존처이기도 하다.

이상과 같이 용문사 대장전 및 윤장대는 역사적, 학술적, 조형예술적인 측면에서 국가 지정문화재로 승격 지정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문화재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기를 바란다.

[붙임2] 동산분과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조사보고서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2.29.>

(앞쪽)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19.07.17	대상문화재	예천 용문사 윤장대	
조사자	성명	○○○	전공 분야	서지학
	소속		직위(직책)	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문화재 명칭	예천 용문사 윤장대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9 년 8 월 22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예천 용문사 윤장대 조사의견서

윤장대(보물 제684호)는 현재 대장전의 좌우에 1좌씩 모두 2좌가 있다. 이 유물은 윤장대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하는 불교문화유산이다. 더욱이 아름다운 목조공예품이자 과학적인 설계 제작, 특이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국보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지금까지 윤장대의 설립시기에 대해서는 이지명이 지은 「중수용문사기」에서 “1173년(명종3)에 국난을 구하기 위하여 삼만승재를 베풀고 윤장대 2좌를 두었다.”는 기록을 근거로 1173년에 최초로 설치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의 윤장대는 1670년(현종 11)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예천 용문사 대장전 수리보고서』, 예천군, 2004, 70쪽)도 하였으나 최근에는 “고려중기인 1173년에 초창되어 1621년에 중수된 이후 크고 작은 보수를 거치며 지금에 이르고 있는 것”(『예천 용문사 대장전 및 윤장대: 국보승격보고서』, 예천군, 2017, 170쪽)으로 보고 있다.

『예천 용문사 대장전 및 윤장대: 국보승격보고서』에서 1621년에 중수되었다는 근거는 별도의 문헌에 의한 것은 아니고, 윤장대 내부에 있다는 묵서에 근거한 것이다. 곧 김봉건은 『용문사대장전: 한국의 고건축 12호』(문화재관리국, 1990)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해 놓았다.

“그런데 근래 문화재연구소에서 실시한 용문사 대장전 조사 시 실시한 윤장대에 대한 조사도 병행된 결과 윤장대 내부에서 천계 원년(1621) 중수기록의 묵서명이 발견되었다. … 윤장대는 내부에 쓰여진 묵서명에 천계 원년 중수로 기록되어 조선중기의 화려하고 정교한 목공 예술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근래 윤장대 연구에서는 이 기록을 따라 “1173년의 초창기록과 함께 더 이상 윤장대의 조성시기에 한 논란은 필요 없게 되었다.”고 하면서, 용문사 윤장대는 명종 3년 계사년인 1173년에 초창되어 1621년에 중수되었으며, 초창 시부터 대장전 내부에 한 쌍으로 설치되도록 계획된 것임을 알 수 있다.”(최영숙, “용문사 윤장대연구”, 『미술사연구』 21, 2007, 271쪽)고 하였다. 아울러 최근의 『예천 용문사 대장전 및 윤장대: 국보

승격보고서』(177-8쪽)에서도 윤장대의 설립과 중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확정짓고 있다.

“용문사 대장전은 여러 번의 중수 기록이 있는데 비해 윤장대의 수리 중수 등에 관한 문헌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문화재연구소에서 실시한 용문사 대장전 조사 시 윤장대에 한 조사도 병행한 결과 윤장대 내부에서 천계 원년(1621) 중수 기록의 목서명이 발견되었다. 이 기록으로 보아 17세기 이전 이미 윤장대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된다. 따라서 용문사 윤장대는 명종 3년 계사년인 1173년에 초창되어 1621년에 대대적으로 중수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윤장대는 1173년에 초창(「중수용문사기」에 근거)되고, 1621년에 중수(“천계 원년 중수”라는 내부 목서에 근거)되어 오늘에 전하는 것으로 확정되고 있다. 그런데 윤장대의 내부에 있다는 “천계 원년”이라는 목서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지가 밝혀져 있지 않다. 그렇다보니 목서 중에 “重修”라는 기록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天啓元年”이라고만 되어 있는지도 알 수가 없다. 만일 “중수”라는 목서가 없다면 이때를 중수 시기로 확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목서를 정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대두되어 이번 에 이 기록도 함께 조사하게 되었다.

현재 윤장대 2좌에는 다양한 목서가 남아 있다. 혹 이 목서 중에서 윤장대의 설립이나 중수에 관련된 직접적인 기록이 있는지 아니면 기록된 인명들을 통해 추정할 근거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피고자 하였다. 그러나 목서는 내부의 보기 어려운 위치에 있기도 하고, 이미 퇴색되기도 하여 확인하기가 여의치 않았다. 확인이 가능한 목서를 보니, 빠르게는 “天啓五年”(1625)이라는 연대와 늦게는 한글 이름인“권형만 94.11.2”까지 남아있다. 대부분은 용문사와 윤장대를 방문한 기록으로, 그들의 소속이나 거주지 그리고 방문한 시기를 기록해 놓았다. 시기는 대개 18-19세기의 기록들로 추정되며, 남아있는 인명 중에는 유명한 인물이 없는 탓에 간지만으로는 정확한 연대를 추정하기는 쉽지가 않다.

혹 문중의 족보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인물들이 보이기는 하나 윤장대의 설립이나 중수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는 데는 부족한 후대의 기록들이었다. 목서는 대개 연대

가 확인되는 문서, 간지는 있으나 연대가 불확실한 문서, 인명이나 지명이 있는 문서, 시문 등 4종류로 대별되며, 그 개략을 소개하면 <부록>과 같다.

그 중에서 연대가 확인되는 기록으로는 “天啓五年”(1625, 인조3)과 “乾隆二年丁巳(1737, 영조13)”가 있다. 이 중에서 “天啓五年”이라는 문서는 중수 또는 제작시기와 매우 유관한 기록으로 추정된다. 그런 만큼 『용문사대장전: 한국의 고건축 12호』에 소개된 “天啓元年”이라는 내부 문서가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면, 혹“天啓五年”이라는 기록을 잘못 소개된 것이 아닌가 하는 조심스런 추정이 든다. 그러므로 이번에 국보승격을 위한 확인과정에서 과거의 소개된 “天啓元年”(혹은 “天啓元年 重修”)라는 문서의 존재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일 확인되지 않는다면, “天啓五年”(1625)을 윤장대의 제작 또는 중수시기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부록> 윤장대 문서

##### 1) 연대가 확인되는 문서

“天啓五年”(1625, 인조3)

“遊 朴成瑁, 朴兌燮, 朴成寶, 際 乾隆二年丁巳(1737, 영조13) 三月二十八”

##### 2) 간지는 있으나 연대가 불확실한 문서

“庚寅七月二十日居”

“全羅海南大菴寺僧□□, □□, 信澄, 永五 癸(?)未三月初八”

“義城鳳亭里居金德周過此, □邑居黃峻海 同日過此 己亥三月日”

“同遊 權龍徵, 權天復, 權天養(?) 際 庚申四月日”

“同苦錄 京中居 申完壽... 尹延孫 庚申”

“同苦錄 林沃, 張龍彩, 林澱 己未”

“宋可徵, 宋周徵 奉硯周仁 四月初九日”,

“禮泉北邑內□□洞 裴振秀 辛丑潤三月十一日”

]“安東居 邊尙逸 丁丑九月初三日”

“同苦錄 權駙大, 權鵬大 歲在辛未五月初三日”

“丙寅十一月二十一 咸昌孫有迪”

“張智範 甲午四月初四日過此”

“誌□ 辛命壽, 申克恒 己未”

“戊辰正月初三日過 裴辰得”

“同苦錄 李弘璧, 南聖□, 李□興…己亥”

“攻苦 白猿季夏”

### 3) 인명이나 지명이 있는 묵서

“全州 成慶得”, “李賢彬”, “李星彬”, “權應燮, 權子健”, “權□遠”, “權和汶”, “李完仲”, 金興采, 朴漢忠, 朴漢通, 權進弼, “尹秉鉉”, “金正根, 金性根”, “劉金祿”, “韓赫 서울”, “金龜淵”, “宋時徵, 宋允徵”, “金甲孫”, “金泰運”, “朴大吉”, “金五遠”, “金興采”, “平安江西 李宗瑞”, “京畿 驪州 閔德渚, 閔斗實, 閔光載”, “京居 李萬興”, “尙州山陽縣里居 蔡允緝, 蔡洧」 咸昌首山里居 申□”, “香山內院居金成道”, “安州金成道 香山回心曲”, “金成道 香山回心曲”, “尋眞 丁性能, 姜而誠, 丁明瑞...”, “同苦錄 李廷杰, 李廷瑞, 李廷萬...”, “同苦錄 權衆□, 權翼□, 張五□”, “同苦錄 朴漢五, 申彩遜, 鄭祖慶 泮”, “同苦 權희(車+熹), 丁興慶”, “同苦錄 李萬壽...”, “大興寺暮春日過此 比丘宗□, 在寶”, “清道 □峴 洪雲平家”

### 4) 시문

시문도 여러 곳에 묵서되어 있는데, 판독이 쉽지가 않다. 그중에서 우측 윤장대 아래쪽에 오언시 2수와 칠언시 1수가 있어서 소개한다.

#### <1>

新涼入洞口/ 초가을 시원한 바람이 골짜기에 불어오니

沙彌好讀書/ 어린 승려가 책읽기 좋은 때라

日勤一代教/ 날마다 당대의 가르침을 부지런히 공부하고

時習萬古序/ 수시로 만고의 節序를 익히는구나

#### <2>

清涼左右至/ 청량한 기운 좌우에 불어오니

此時疑清秋/ 이 때는 아마 맑은 가을인 듯

講樹鳥數飛/ 講樹에는 새가 자주 날개짓하고

丌頭龍自戲/ 책상 머리엔 용이 스스로 장난하네

<3>

腸中萬書如疊塔/ 몸속의 수많은 책들이 탑처럼 쌓였으니  
踊出無碍無智人/ 용출하여 막힘도 없고 지혜도 없는 사람이라  
有豎青童汝屬客/ 청의동자를 세워둔 그대는 사람이고  
削髮白衲我神仙/ 머리 깎은 백납의 나는 신선이라네

##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19.07.17	대상문화재	예천 용문사 윤장대	
조사자	성명	○○○	전공 분야	한국공예사
	소속		직위(직책)	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문화재 명칭	예천 용문사 윤장대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9 년 9 월 5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붙임1>

연혁 · 유래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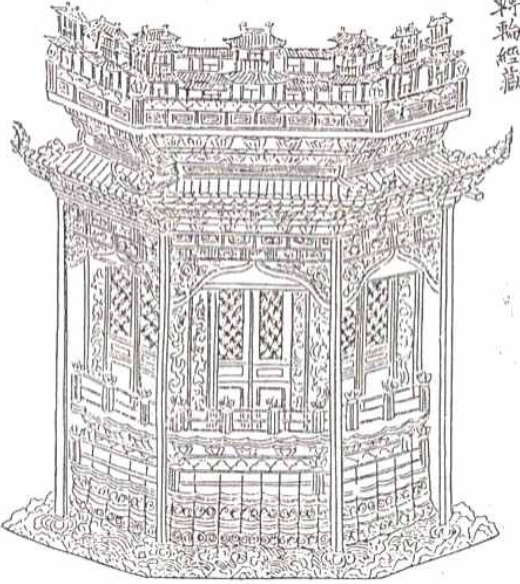




- 지정현황 : 보물 제684호
- 명 칭 : 예천 용문사 대장전 윤장대
- 소유자(관리자) : 용문사
- 소재지 : 용문사
- 수 량 : 1건 2점
- 규 격 :
  - 윤장대 : 총높이 4.2m. 둘레 3.15m.
- 재 질 : 목재
- 판 종(서지의 경우) :
- 형 식 : 불교용 공예품
- 조성연대 : 1173년(초창), 1625년(중수)

○ 현 상 :

윤장대는 8각 불전(佛殿) 형태의 목조 경판고(經板庫)로서 내부 중앙에 감실(龕室)을 설치하여 경전을 넣어둘 수 있게 만들었고, 하단부에 전체가 돌아갈 수 있도록 회전축을 고안하였으며, 하단 몸체에 붙어있는 손잡이를 손으로 밀면 돌아가는 회전식 서가(書架) 혹은 경전을 넣는 장[經櫬]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형식의 윤장대는 인도에서는 보이지 않으나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이나 일본 및 동남아 등지에서도 찾아지는 것이다. 북송대에 편찬된 『영조법식』에 윤장대의 형식과 구조 및 수치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외관은 팔각목탑이고 중간에 축이 있고 하부에 철주가 솟아 사람이 밀어 움직이는 것도 같은 이치이다. 중국의 것으로는 북송대의 <홍릉사 전륜장>을 비롯하여 남송대에는 유존례가 몇몇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의 것으로는 파주 혜음원지나 양주 회암사지 대장전 유구를 통해 윤장대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유물이 유존하지 않아 그 원형을 알 수 없다. 따라서 예천 용문사 윤장대는 국내에 전하고 있는 경장 건축 중 유일한 것으로 매우 희귀하고, 중국과 달리 우리나라 전통 목조 팔각전각형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고려 12세기에 처음 제작된 후 조선 후기 17세기에 중수되었고, 중수 당시 사찰건축에서 유행한 꽃살창호의 문양 표현이 정교하고 세련되며 전체적으로 조형적 수준이 우수하고, 회전식 구조와 설계가 과학적이고 뛰어난 불교 목공예품으로서 유일무이하다.

		
<p>전륜경장도, 『영조법식』 권 11, 「소목작제도」, 북송</p>	<p>용흥사 전륜장전(隆興寺 轉輪藏殿), 969년, 허베이성 스자좡시(河北省 石家庄市 正定縣)</p>	
		
<p>양주 회암사지 윤장대 부재</p>	<p>과주 혜음원지 윤장대 부재</p>	<p>영국사지 윤장대 부재</p>

○ 내용 및 특징 :

윤장대(보물 제684호)는 경상남도 예천에 위치한 용문사 대장전 내부, 불단의 좌우에 각각 1기씩 2기가 설치되어 있다. 윤장대(輪藏臺)는 전륜장(轉輪藏), 전륜경장(轉輪經藏) 혹은 전륜대장(轉輪大藏)이나, 약칭으로 윤장(輪藏), 대장(大藏), 경장(經藏) 등으로 불리며 장경전(藏經殿)이나 장경루(藏經樓)와 마찬가지로 경전을 안치하는 시설이다.



### 1) 윤장대의 제작시기

윤장대의 건립시기에 대해서는 1188년 이지명이 써서 비석에 새겨 현재 회전문 아래에 세워져 있는 「중수용문사기」에서 발견된다. 곧 “1173년(명종3) 동북면 병마사였던 김보당이 난을 일으켰는데 이때 국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자엄대사가 발원하여 삼만승재를 열었으며, 3칸의 대장전을 짓고 그 안에 윤장대 2좌를 별도로 안치하고 학승 300여 명을 모아 7일간 법회를 열고 개태사의 승통 영치(穎緇)를 초청하여 강연하게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sup>70)</sup> 이로 미루어 윤장대는 1173년에 처음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71)</sup> 이후 대장전은 여러 번 중수했던 기록이 찾아진다. 조선 전기인 1467년과 1534년 및 1597년에 대장전을 중수했다. 17세기 들어 1608년부터 용문사 3차 중건에 착수하여, 1665-70년 대장전 중수, 1687년 3차 중건 완료되었다. 이후 1767년 대장전 중수가 있었다. 이후 용문사에는 1835년 화재가 나 1839년 중건하였고, 1984년에도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대장전은 소실되지 않았다. 이렇게 대장전을 중수한 기록은 있으나, 윤장대를 중수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윤장대는 17세기 목조건축의 형식과 조선 중기 양식을 지니고 있다. 더욱이 용문사는 1608년부터 3차 중건을 하여 1665년 대장전을 중수하였기 때문에 이 시기에 기존의 윤장대를 수리하거나 새로 만든 다음 대장전을 중건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윤장대의 중수시기는 1990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 “윤장대 내부에서 천계 원년(1621) 중수기록의 목서명이 발견되었다.”는 기록에 의해 1621년으로 알려져 왔다.<sup>72)</sup> 이후 윤장대 연구는 이 기록을 그대로 인용하여 1173년에 초창되었고, 1621년에 중수된 것을 거의 확정적으로 서술하였다.<sup>73)</sup> 2014년 예천군

70) 李知命, 「重修龍門寺記」, 1988. “---癸巳年國朝多亂大禪師發願設三萬僧齋又別置輪大藏二座及堂三間作七日法會聚學(者三百餘人請開泰寺僧統穎緇講演以落之以救國難焉---”




71) 1972년 수리공사 때에도 발견된 「醴泉龍門山昌期寺大藏殿重修上梁文」에도 윤장대는 大定17年 癸巳, 곧 1173년에 창건되었다고 한다.

72) 『용문사대장전: 한국의 고건축 12호』, 문화재관리국, 1990.

에서 실시한 용문사 대장전 수리에서나,<sup>74)</sup> 2017년 윤장대의 국보승격보고서 또한 마찬가지이다.<sup>75)</sup>

그러나 이러한 목서에 대한 기록을 입증할 사진 자료나 위치 정보가 정확하지 않았다. 이에 2019년 7월 17일 예천 용문사를 현지 방문하여 2좌의 윤장대를 실사하던 중 오른쪽 윤장대의 빗살창호 안쪽 우측 울거미에서 ‘천계(天啓) 5년(1625)’의 목서명이 확인되었다. 그동안 ‘천계 원년(1621)’이라고 서술했던 목서명은 그 실체를 확인하기 어렵고, 그보다는 울거미에 쓰여진 목서명에 의해 천계 5년(1625)을 잘못 오인하였다고 여겨진다.

이에 본 연구자는 윤장대의 문살 울거미에서 새로 확인된 천계 5년(1625)을 윤장대의 중수시기로 판단한다. 물론 윤장대는 1173년 초창 이후 1625년 중수될 때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대장전 내부에 음양을 의미하여 한 쌍으로 설치하도록 계획되었다는 견해에는 동의한다.<sup>76)</sup> 이후에도 윤장대의 수리는 계속되었다고 여겨진다.

		
<p>&lt;중수용문사기&gt; 비석, 조선고적도보, 1918년</p>	<p>윤장대의 중수기록이 있는 빗살 창호</p>	<p>빗살창호 안쪽 울거미의 '天啓五年' 명문</p>

그런데 17-18세기 윤장대의 수리와 대장전의 중수는 3-40년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이뤄지는 것이 확인된다. 17세기에는 1625년 윤장대에 수리되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대장전의 중수는 그로부터 40년 뒤인 1665-70년에야 비로소 중건이 완료되었다. 이것은 18세기에도 마찬가지였다. 윤장대 내부에 기록된 목서에 의하면 ‘乾隆二年 丁巳(1737, 영

73) 최영숙, 「용문사 윤장대연구」, 『미술사연구』 21, 2007, 271쪽

74) 『예천 용문사 대장전 수리보고서』, 예천군, 2004, 70쪽

75) 『예천 용문사 대장전 및 윤장대: 국보승격보고서』, 예천군, 2017, 170쪽

76) 최영숙, 「용문사 윤장대연구」, 『미술사연구』 21, 2007, 271쪽

조13)”에도 부분적인 수리가 있었던 것 같은데, 당시 대장전의 중수는 1767년(영조 43)에 시행되어 30년의 격차가 있다. 이러한 문헌기록으로 미루어 볼 때 대장전의 수리보다 앞서 윤장대의 중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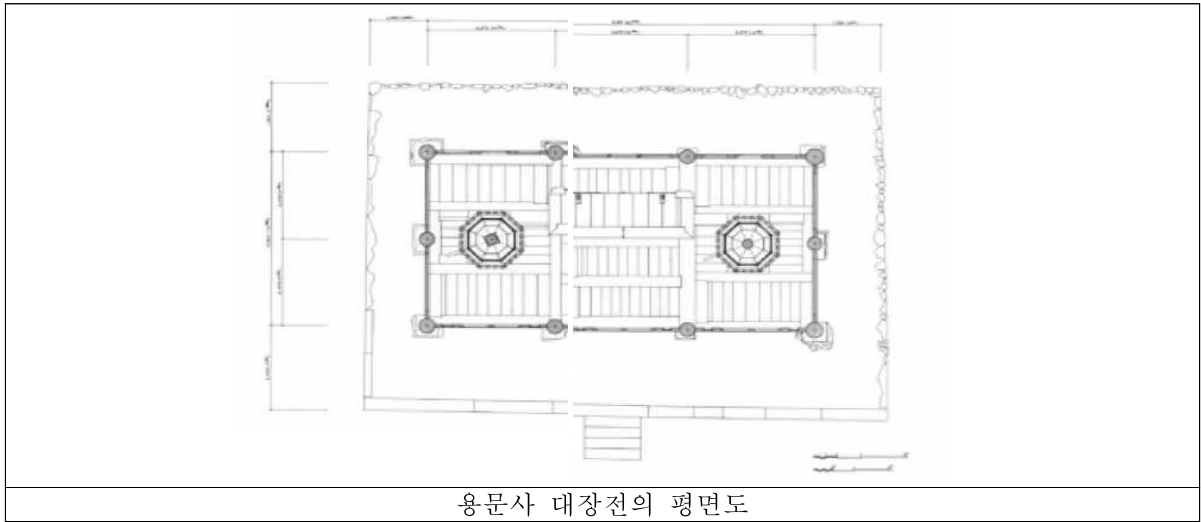
## 2) 대장전 내부의 구조적 특징

용문사 윤장대는 대장전 속에 배치되어 있다. 대장전은 단층 맞배지붕의 다포계 건물이다. 정면 3칸, 측면 2칸이고 정면과 측면의 2:1에 가깝다. 건물의 기단은 장대석으로 세벌대로 쌓고 갑석으로 마감하여 격식을 갖춰 축조된 건물이다. 기단의 동쪽과 뒤쪽은 자연석으로 허튼층쌓기이며 기단 중앙에는 계단을 두었고 기단 윗면은 전돌이었으나 근래 강회다짐을 하였다. 초석은 자연석의 윗면은 방형으로 편평하게 다듬었다. 초석 위에 원형 평주 8개를 세웠고 측면에 2개의 고주를 세웠다.

대장전 내부는 우물마루를 깔았으며 마루바닥은 보수되어 있다. 대장전 내부 대들보와 종보를 보면 부석사 조사당의 대들보나 봉정사 극락전의 종보와 유사한 향아리형 단면의 고재를 사용한 것이 확인된다. 이로 미루어 대장전은 공포의 조성시기보다 앞선 고려말 고려초기 건축 수법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부 천장은 충급 천장과 연등천장이 혼합된 형식이다. 대장전 내부 중앙에는 1684년(강희 23)에 제작된 목각탱(보물 제989호)이 배치되어 있고, 그 앞에 불단 위에 3구의 불상을 봉안되어 있다. 이로 인해 어칸의 경우 중도리 형식에 반자청판으로 막은 우물천장으로 시설하고 있다. 이에 반해 건물의 양 퇴칸에는 불단을 중심으로 좌우 1쌍에 팔각형의 윤장대 2좌를 나란히 배치되어 있다. 이에 퇴칸에는 연등천장으로 처리되어 하부에 윤장대가 설치되어 있어 별도의 화려한 장식이 필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대장전은 다포계 맞배지붕의 건물로, 대들보 및 종보의 향아리형 등에서 초기 수법을 일부 발견할 수 있으며, 건물 내외부의 조각에서는 조선 중기 17세기 말의 정교함이 발견되고 있다.



용문사 대장전의 평면도

### 3) 윤장대의 구조와 조형적 특징

윤장대는 대장전 내부 불단의 좌우 1좌씩 배치되어 있다. 윤장대 내부의 회전축을 살펴보면 오른쪽의 것은 중심축이 원형이며 문짝이 빗살창이고, 왼쪽의 것은 중심축이 방형이며 문짝이 꽃살창이다. 곧 원형이며 단순하고 직선적이며 남성적인 것에 해당되는 오른쪽 것은 양이고, 방형이며 복잡하고 곡선적이며 여성적인 것에 해당되는 왼쪽 것은 음을 형상화한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본 유물은 동양 전래의 천원지방(天圓地方)을 형상화하고 음양 사상을 조형화했음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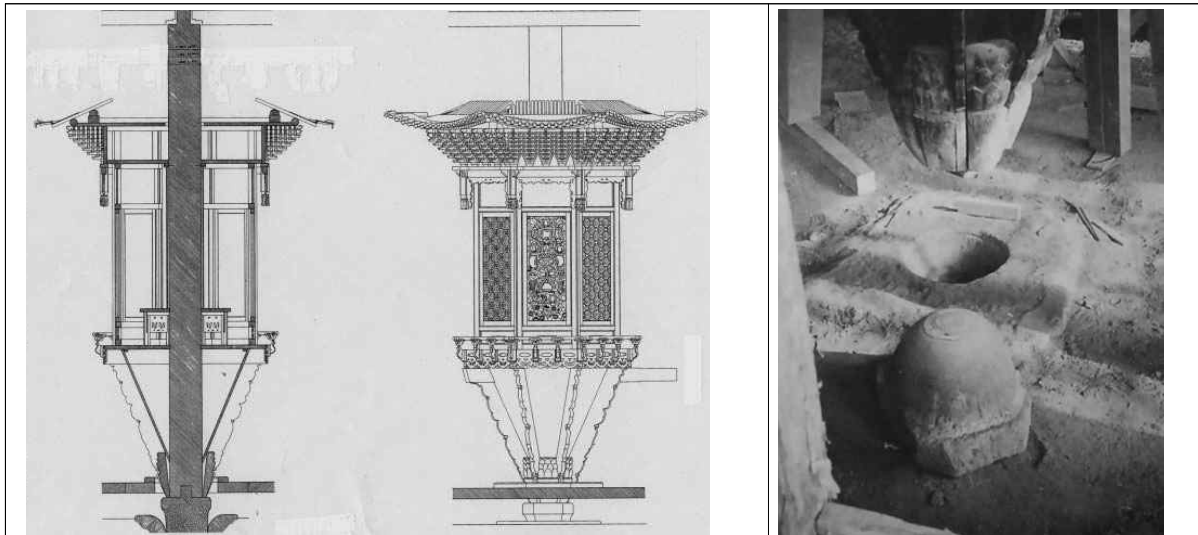


윤장대 오른쪽 내부 중심의 원형 회전축과 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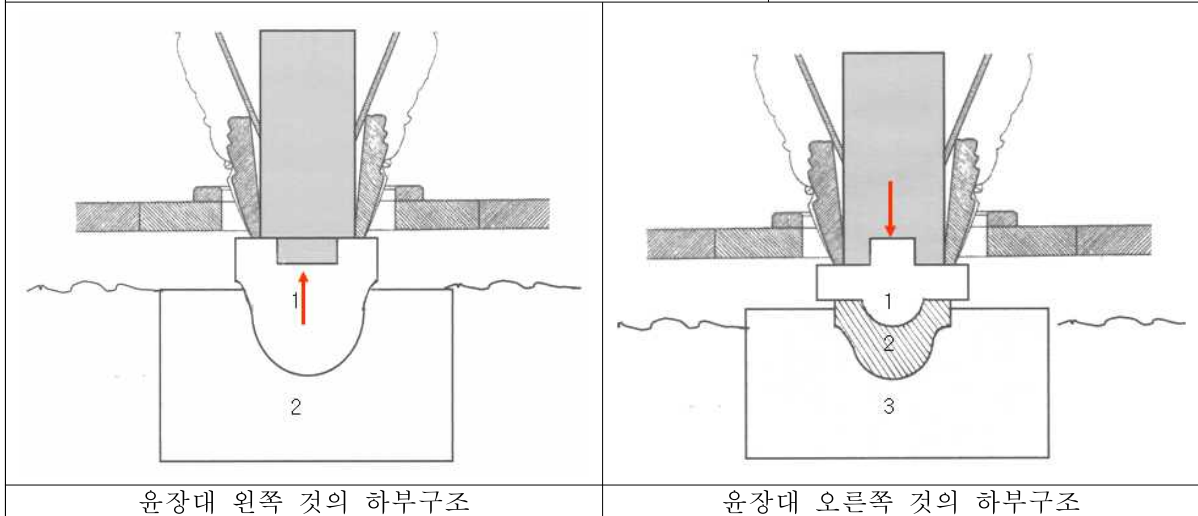
윤장대 왼쪽 내부 중심의 방형 회전축과 천장

윤장대의 전체는 총높이 4.2m, 둘레 3.15m의 규모로서 목제 가구로는 규모가 큰 편에 속한다. 전체적인 형태는 중앙에 있는 하나의 기둥을 석재로 만든 받침대 위에 끼워 전체를 떠받들며 전체적으로 팔각형의 목조건축물 형식이다. 이러한 윤장대는 구조상 크게 상중하대로 구분된다.



용문사 윤장대 단면도

용문사 윤장대 초석의 모습



윤장대 왼쪽 것의 하부구조

윤장대 오른쪽 것의 하부구조

우선 상대는 옥개부로서 지붕과 공포로 이뤄져 있다. 지붕은 서까래와 부연을 이중으로 둔 겹처마이고 팔모 형태의 겹지붕이다. 그 아래쪽에는 다포식의 외6출목 공포를 겹쳤는데, 공포는 주두와 소로, 첨차, 살미, 쇠서를 짜 매칸 3구의 공간포를 배치한 형식이다. 귀포는 출목이 교차하는 부분마다 제공을 두어 간략하게 처리하여 시기가 올라가는 조선 중기의 특징이 엿보인다. 공포 아래 창방과 평방을 두었고 현판 형식의 여백을 두었다. 특히 8모서리마다 길게 낙양각과 늘어뜨리고, 달동자를 여러 가지 꽃봉오리처럼 늘어뜨려 마무리하여 화려하게 장식한 헛기둥은 단집과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이다.



다포식 외6출목 공포와 현판, 아래쪽 퇴칸

낙양각과 달동자, 아래쪽 퇴칸

중대는 몸체부에 해당되는 팔각원당형의 경장(經藏)이자 창호로 구성된 장(槩)이다. 장의 내부에는 외부보다 조금 작게 팔각형의 단을 만든 위에 책을 쌓아두게 되어 있다.



윤장대 내부에 경전을 쌓아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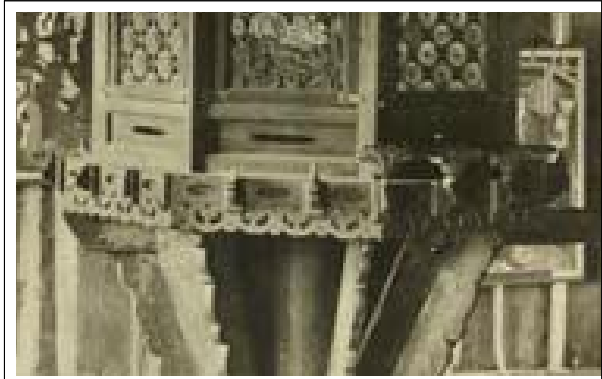
하단의 팔각대와 투각 여의두운무늬

외부의 경우 몸체부의 상부에는 퇴칸이 달려있고, 하부에는 궁창에 해당되는 풍혈이 고정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퇴칸은 8쪽의 부채꼴로 천판을 조립하고 전면에는 용문양을 그리고 있다. 윤장대의 중대와 하대를 연결하는 부분에는 하엽형 난간이 위치하고 있다. 난간은 3조가 1쌍으로 모서리마다 꺾이고 그 사이로 2개가 직선으로 배치된다. 난간의 형상은 대장전 중앙의 아미타삼존상 대좌의 난간과 형식적으로 일치하여 17세기의 양식을 반영한다. 하지만 윤장대의 난간은 대부분 근래에 수리된 것이다. 위쪽 퇴칸과 아래쪽 풍혈은 창호와 별개로 판재를 덧대어 독립적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이 또한 좌측과 우측의 것과 상하가 서로 달라 음양의 변주를 엿볼 수 있다.

난간 위에는 여덟 모서리의 우주를 세우고 그 중앙에 울거미를 짜고 투조기법으로 오른쪽의 것은 빗살창으로, 왼쪽의 것은 꽃살창으로 정교하게 처리하고 있다. 특히 꽃살창호의 8면은 통판에 살구, 모란, 연화, 국화, 미늘꽃, 연지수금 등 다양한 꽃문양을 X자로 빗겨 배치하고 있다. 정교하고 화려하게 꽃과 잎사귀를 비교적 작은 문양으로 새겨 넣고 단청으로 색채를 처리하였는데, 화려한 꽃살창호의 문양이나 형태는 17세기 이후 사찰건축에서 유행하던 양식이다.<sup>77)</sup>

77) 광동혜, 「오색 단청 빛깔 고운 불전의 성보들 輪藏臺와 원패」, 『佛敎와 文化』 60호, 2004, 105-11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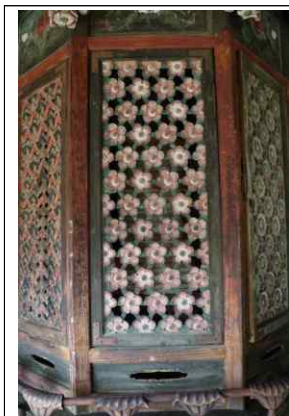


윤장대 하엽난간, 1932년 조선고적도보



윤장대 하엽난간, 2019년

창호는 8면 중 2면만 문짝으로서 열리게 되어 있고, 나머지 6면은 고정되어 있다. 종이를 바르지 않아 공기가 안팎으로 순환하게 되어 있다. 창호는 좌우의 것이 차이를 보여 오른쪽의 것은 빗살창으로 되어 있고, 왼쪽의 것은 꽃살창으로 되어 있다. 꽃살의 문양은 살구꽃, 미늘꽃, 국화꽃, 모란꽃, 솟을절레꽃, 연지수금문양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꽃살창호는 17세기 이후 사찰 건축에서 유행하는 형식이다. 다만 전각의 꽃살창호에 비해 크기가 작고 아기자기하며 정교한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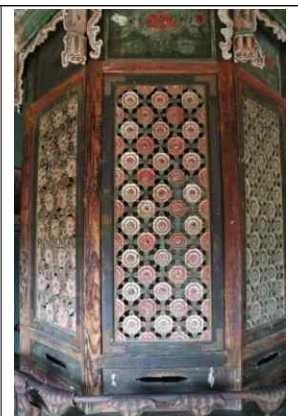
살구꽃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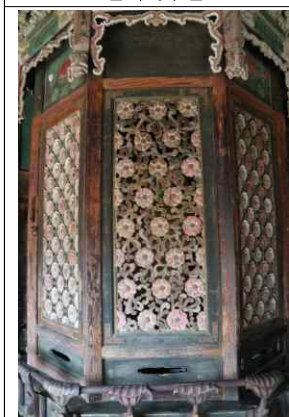
미늘꽃살



국화꽃살



국화꽃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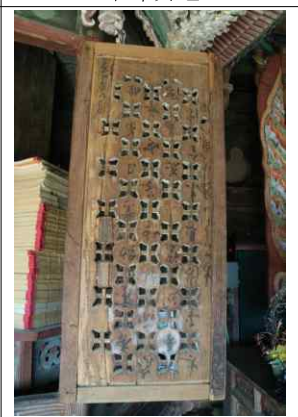
모란꽃살



솟을절레꽃살



연지수금꽃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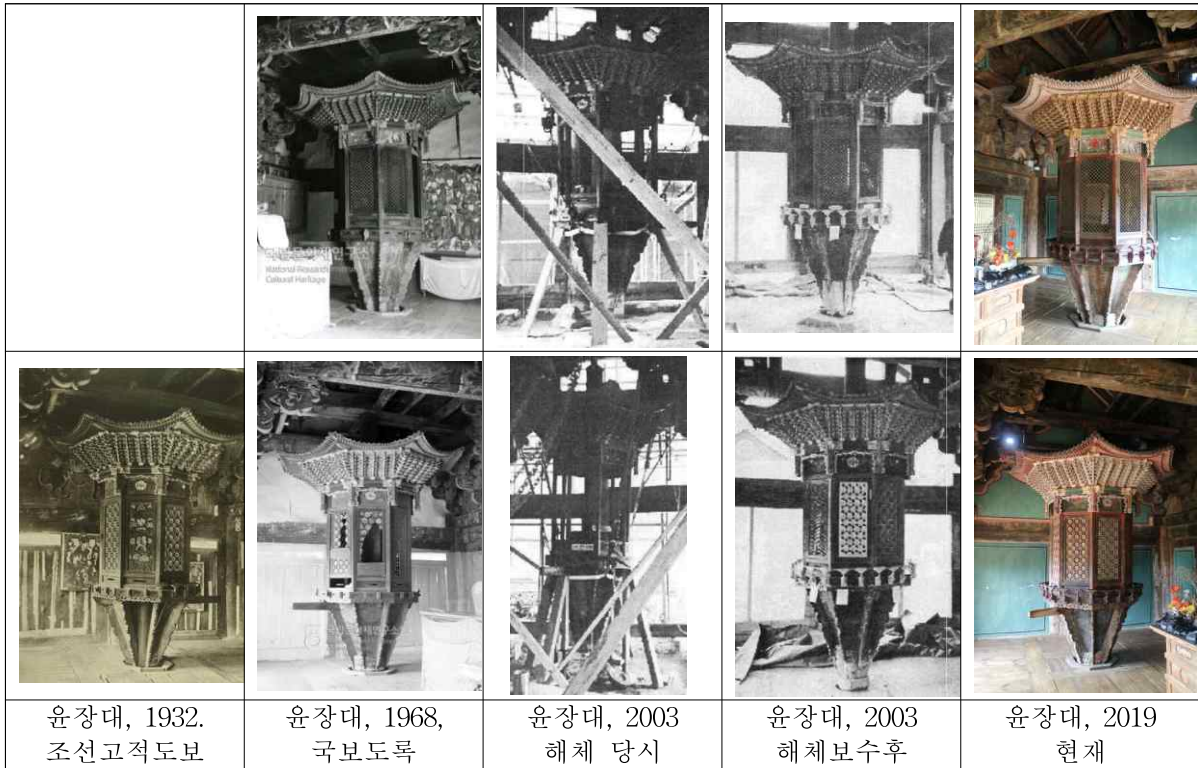
안쪽의 통판 투각모습

하대는 대장전의 마루바닥을 팔각형으로 뚫고 그 위에 회전축이 배치되어 있다. 중대의 난간 아래에 해당되며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점차 역삼각형으로 모아지는 팔각원당형(일명 팽이형)이다. 이것의 각 모서리마다 초각(草刻) 장식으로 되어 있고 전면에는 용문양이 그려져 있다. 한쪽 모서리에는 횡목형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어, 현재도 이것을 붙잡고 밀면 돌릴 수 있다.



이처럼 용문사 대장전 윤장대는 1173년 초장된 후 1625년에 중수되어 오늘에 이르는 것으로 여겨진다. 팔각 전각형의 기본 형태와 회전축을 갖춘 기본 구조는 중국 송대의 전륜장과 유사하나 그보다 규모가 작고 한국적인 조형 특성이 잘 표현된 불교문화유산이다. 보존상태로 미루어 볼 때 석재로 된 초석과 중앙에 위치한 원형과 방형의 회전축은 초창시의 원형이 그대로 유지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팔각 목조형 건축물 형식을 보이는 상단의 옥개와 중단의 난간 및 창호와 궁창 그리고 하단의 역삼각형 부분 등은 중수 당시에 해당되는 조선 중기 양식에 부합된다고 여겨진다. 더욱이 현재도 윤장대는 회전축을 밀면 움직이는 등 핵심 구조는 12세기의 원형이 17세기에 중수될 때에도 기능하여 오늘날까지 잘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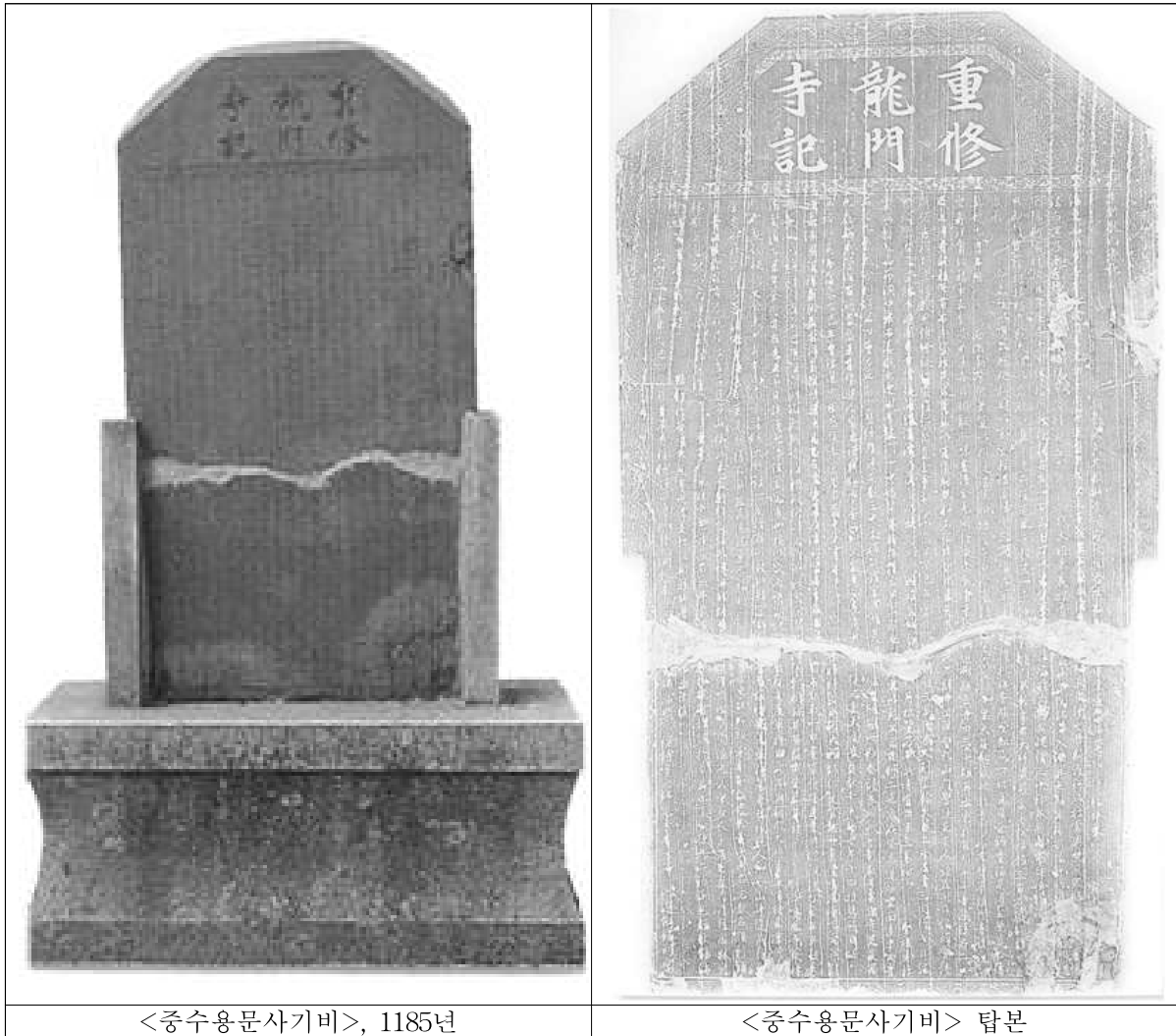
다만 목조 문화재의 특성상 오랜 세월을 지나는 동안 목재로 만들어 약해진 빗살창호나 꽃살창호, 난간 및 옥개 등의 일부 부재가 부러지거나 유실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 밖에 금속제 경첩이나 손잡이 및 장식이 파손되어 2003년 전면해체 수리하면서 문화재가 지닌 원형성이 훼손된 경향이 있어 향후 세부에 대한 면밀한 조사 연구를 통해 원형대로 복원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시기별 윤장대의 사진 모습>



○ 문헌자료(없을 경우 생략)



○ 기 타(소장 경위 등, 없을 경우 생략)

<붙임2>

###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용문사 대장전 윤장대의 역사적 가치는 1173년에 처음 제작되었으며, 윤장대 오른쪽 내부 창호의 울거미에서 발견된 ‘천계 5년’의 명문에 의거하여 1625년에 수리하였다는 절대연대가 확인되어 그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다. 특히 17-18세기 윤장대의 수리와 대장전의 중수는 3-40년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이뤄지는 것이 명문이나 사료기록으로 확인된다. 17세기에는 1625년 윤장대에 수리되었는데, 대장전은 그로부터 40년 뒤인 1665-70년 중건되었다. 18세기에도 윤장대는 1737년(건륭 2)에 부분적인 수리가 있었

고, 대장전의 중수는 1767년(영조 43)에 시행되어 30년의 격차가 있다. 이를 통해 대장전은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윤장대를 보호하기 위한 건물로서 기능하는 일체형으로 조영되었다는 점에서도 역사적 의미가 있다.

용문사 대장전 윤장대의 학술적 가치는 한중일 삼국에서 발달한 경장(經穢) 사상을 보여주는 동아시아 불교문화유산을 대표하는 유물이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중국의 것은 969년 용흥사 전륜장전이, 한국의 것은 1173년 용문사 대장전 윤장대가, 일본의 것은 1408년 안국사 경장이 현존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특히 용문사 윤장대의 조형적 예술적 가치는 좌우 1쌍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발견된다. 1쌍의 윤장대는 대장전 내부 좌우에 두지만 단순히 대칭적으로 배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조형적으로 오른쪽 것은 원형의 기둥에 간소한 빗살창호에 단아한 모습이고, 반면 왼쪽 것은 방형의 기둥에 화려한 꽃살창호에 장식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둥근 오른쪽은 하늘을 상징하고 네모진 왼쪽 것은 땅을 상징하며 천원지방(天圓地方)의 동양사상이나 더 나아가 음양(陰陽)의 개념을 조형의 기본원리로 삼아 시각적으로 구현하였다. 이러한 것은 중국이나 일본의 것에서 볼 수 없어 동아시아에서 오직 우리나라에만 있는 유일한 것이라는 점에서 조형적 가치가 매우 높다.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문헌 기록에 의하면 우리나라에는 많은 수의 여러 경장(經穢)이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지만, 용문사 윤장대는 유일하게 현존한다는 점에서 희귀성을 가진 불교 목공예품이라는 점에서 지정가치가 높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용문사 대장전 윤장대는 국보로서 승격 지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19.07.17	대상문화재	예천 용문사 윤장대	
조사자	성명	○○○	전공 분야	역사학(고문헌)
	소속		직위(직책)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문화재 명칭	예천 용문사 윤장대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9 년 9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윤장대 후대 가필 묵서(後代加筆墨書) 검토 의견

윤장대는 고려 중기인 1173년(명종 3)에 초창되어 윤장대 내부 묵서명에 의해 천계 원년(天啓元年, 1621)에 중수되었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윤장대의 높이는 4.2m, 둘레 3.5m로 몸체의 팔각형 평면에 따라 기둥을 세우고 창호를 설치하여 서측 윤장대는 꽃창살, 동측 윤장대는 교창을 설치하고 그 안에 경전을 보관한 상태이다.

윤장대는 옥개 부분인 상대와 경장(經藏) 부분인 중대 및 하대로 나뉘며, 기본적인 구조와 형태는 2기가 동일하다. 상대는 경장 부분인 중대의 위로 칸을 달아 기둥과 창방 평방을 두어 건축물을 형상화하고 평방 위에는 화려한 다포계 공포를 짜 올려 지붕을 겹쳐마로 하여 옥개부를 이루었다. 중앙의 경장 부분은 8면의 창호에 2면이 개폐되어 있고, 내부에는 경전을 쌓도록 단이 있다. 하대는 역삼각꼴 팔각원당형으로 모서리마다 초각 장식이 되어 있고, 전면에 용문양이 그려져 있다. 팔각 건축물 형태의 윤장대 문을 열면 8면에 서가처럼 단이 만들어져 있다.

윤장대에 쓰여진 후대의 가필 묵서는 상당히 다양한 곳에서 확인된다. 이에 대해서는 『용문사 윤장대 - 수리 및 실측보고서』(예천 용문사, 2015)를 통해서 일차 정리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살펴 보면 상대에서는 서까래와 부연 공포 및 기둥, 창방, 평방 그리고 끝을 꽃모양으로 마무리한 헛기둥 등에서 확인되고, 중대에서는 창호를 세우기 위한 기둥, 창호 귀틀 그리고 내부의 서가 및 천장 등에서 그리고 하대에서는 풍혈판과 낙양 등에서 확인된다.

금번 조사의 목적은 윤장대 내부 묵서명으로 확인되었던 ‘천계원년(天啓元年, 1621) 중수(重修)’라는 기록(김봉건, 『龍門寺大藏殿』 『韓國의 古建築』 12호, 문화재관리국, 1990, p. 23) 확인에 있었으나, 금번 이루어진 윤장대 묵서 조사는 물론 국립문화재 연구소에 소장된 윤장대 관련 자료들의 열람 조사를 통해서도 확인하지 못하였다. 다만, ‘천계5년(天啓五年, 1625)’이라 쓰인 기록은 동측 윤장대인 ‘교창살 윤장대’의 중대 창호 틀의 내부에서 확인되었다. 각각에서 확인되는 묵서의 내용을 유형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서측 윤장대(꽃창살 윤장대, 향좌)

1) 상대(옥개부)

위치	목서	비고
서까래	權子健 / 權□遠 / 權和汶 / 李完仲	
창방 및 평방	劉金祿	
헛기둥	權浚 龍州面 首谷里 四五二番地 四二九四年四月二日 丙寅十一月二十一 咸昌孫有迪	

2) 중대(經藏)

위치	목서	비고
판벽	同苦錄 林沃, 張龍彩, 林澱 己未 誌□ 辛命壽, 申克恒 己未 尋眞 李睦 叔和 戊寅 朴成翼 學榮 癸未 白受彩 有文 庚辰 戊戌初秋四日 丁未七月初三日 同苦錄 權駙大, 權鵬大 歲在辛未五月初三日 同苦錄 朴漢五, 申彩遜, 鄭祖慶 泮	
창호 틀	金興太九경왓던이한변구경갓차라	
창호 기둥	金成道/李星彬 庚寅七月二十日居 香山回心曲 安東金孟□ 南至 金必源 / 韓瑞□ / 全州 成慶得 李賢彬 / 李星彬	
경장 내부 (벽면/천장/서가)	同苦錄 李萬壽... 京畿 驪州 閔德渚, 閔斗實, 閔光載	



3) 하대

위치	도서	비고
판벽	『용문사 윤장대 - 수리 및 실측보고서』 (예천 용문사, 2015) 참고	
까치밭		

2. 동측 윤장대(교창살 윤장대, 향우)

1) 상대(옥개부)

위치	도서	비고
서까래	朴漢忠 / 權進弼 / 金玉根 / 金性根	
창방 및 평방	同苦 義城鳳亭里居金德周過此, □邑居黃峻海 同日過此 己亥三月日 大興寺暮春日過此 比丘宗□, 在寶	
헛기둥	권형만 / 金甲孫 / 金泰□ / 朴大吉 金五達	

2) 중대(經藏)

위치	도서	비고
판벽	同苦錄 權衆□, 權翼□, 張五□ 同苦錄 李弘璧, 南聖○, 李○○, 丁興慶, 同遊 權龍徵, 權天復, 權天養(?) 際 庚申四月日	
창호 틀	<b>天啓五年</b>	1625년
창호 기둥	平安江西 李宗瑞 尙州山陽縣里居 蔡允緝, 蔡洧 咸昌首山里居 申□ 樓立松松下 名山第一弘 洞深碧翠中 虛付釋人宮 偶 逢 全羅海南大菴寺僧□□, □□, 信澄, 永五 癸(?)未 三月初八 禮泉北邑內□□洞 裴振秀 辛丑潤三月十一日	

위치	목서	비고
내부 서가 경장 내부 (벽면/천장/기둥)	安州金成道 香山回心曲 甲子四月二十五日 丁丑九月初二日 同苦錄 李廷杰, 李廷瑞, 李廷萬 同苦錄 京中居 申完壽... 尹延孫 庚申 安東居 邊尙逸 丁丑九月初三日 宋可徵, 宋周徵 奉硯周仁 四月初九日	

### 3) 하대

위치	목서	비고
관벽	醴泉龍	
까치발	용문사 윤장대 - 수리 및 실측보고서』(예천 용문사, 2015) 참고	



‘天啓五年’(1625) 목서

이상 윤장대에 후대에 가필된 기록들은 대부분 간결한 인명 표기와 지명 그리고 간지 등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목서는 대부분 상당수가 퇴색되어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의 것도 많고, 더욱 내부의 보기 어려운 위치에 있기도 하다.

그 중 윤장대의 설립이나 중수에 관련된 직접적인 기록은 동측 윤장대(교창살 윤장대, 향우)의 창호 귀틀에 기록된 ‘天啓五年’(1625)의 기록이 유일하다. 그밖에 상당수의 간지가 남아 있으나 이들 기록의 대부분은 18세기 이후의 기록들로 추정될 뿐 정확한 연대를 추정하기는 쉽지가 않다.

금번 조사를 통하여 ‘天啓元年’이라는 중수 연대는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용문사 윤장대는 국내 유일한 유물로서 대장전과 더불어 일체화된 희귀한 문화유산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할 때 국보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19.07.17	대상문화재	예천 용문사 윤장대	
조사자	성 명	○○○	전공 분야	미술사(불교조각)
	소 속		직위(직책)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문화재 명칭	예천 용문사 윤장대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9 년 9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예천 용문사 윤장대 禮泉 龍門寺 輪藏臺

- 지정현황 : 보물 제684호
- 명 칭 : 예천 용문사 윤장대
- 소유자 : 대한불교조계종 용문사
- 소재지 : 경북 예천군 용문면 용문사길 285-30
- 수 량 : 2좌
- 규 격 : 동윤장대(향우측) 전체 높이 4,473mm, 지붕 폭 2,541mm  
서윤장대(향좌측) 전체 높이 4,428mm, 지붕 폭 2,525mm
- 재 질 : 목조
- 형 식 : 回轉式 經藏
- 조성연대 : 1173년 초창, 1621년~1625년 중창(추정)
- 작 자 : 미상
- 조사내용

윤장대는 중국 남조 양나라에서 善慧大士 傅翕이 창안하였다고 전하나, 문헌기록은 당나라부터 나타난다. 北宋 중엽 李誠(?~1108)의 『營造法式』에는 윤장대의 구체적인 구조와 수치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으며, 현존 유물로는 北宋 開寶 2년(969)에 조성된 河北 正定府 隆興寺의 轉輪藏, 四川 雲岩寺의 飛天藏, 남송대 大足石窟 北山에 조성된 石造輪藏臺 등이 있다.

용문사(龍門寺)는 신라 경문왕 10년(870) 杜雲禪師가 창건한 것으로 전해지며, 용문사 윤장대는 고려 명종 3년(1173)에 일어난 김보당 난 진압을 위해 祖膺大禪師가 발원하여 3칸의 대장전을 짓고 2좌의 윤장대를 별도로 설치하였다. 내부에 적힌 목서명에 의해 조선 광해군 13년(1621)에 중창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01년에는 국고보조사업으로 하대의 연화초각 및 판재, 중대의 난간, 풍혈, 문살, 경장의 궁판, 옥개부의 낙양 및 헛기둥의 연화, 공포, 암수기와 등 결실된 부분을 보수하였고, 2012년에는 전면 해체 수리하였다.

우리나라에 윤장대의 설치와 관련된 사례로는 금강산 장안사의 윤장대가 기록으로 전한다. 장안사 윤장대는 鐵臼와 鐵柱, 그리고 3층의 몸통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원나라 順帝와 奇皇后의 발원으로 제작된 것이다.<sup>78)</sup> 이외에도 과주 혜음원지(도 1, 2)와 양주 회암사지(도 3, 4), 그리고 영동 영국사(도 5) 등에서도 윤장대가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구가 확인된 바 있다. 이 중에서 용문사 윤장대가 현존 유일의 작품일 뿐

78) 南孝溫, 「遊金剛山記」, 『秋江先生文集』, “... 自彌陀行十餘里. 抵長安寺. …… 羅漢殿之南. 有一室. 室內有大藏經函. 刻木成三層. 屋中有鐵臼. 置鐵柱其上. 上層屋椽. 置函其中. 執屋一隅而搖之. 則三層自回可玩. 亦元帝所作. ……”

만 아니라 초창 연대도 가장 이르고, 한 쌍으로 제작된 것으로는 동아시아에서 유일한 사례로 알려져 있다.

용문사 윤장대는 남향한 대장전 내부 동·서 측면에 각 1좌씩 설치되어 있다. 불전의 중앙에는 불단이 마련되어 있고 불단 위에는 1684년에 제작된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보물 제989-1호) 주불로,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보물 제989-2호)이 후불화로 봉안되어 있다.



도 93 파주 혜음원지 대장전지



도 94 파주 혜음원지 윤장대 초석



도 95 양주 회암사지 대장전지



도 96 회암사지 대장전지 윤장대 초석



도 97 영동 영국사 대장전지 윤장대 초석

동·서 윤장대의 지붕은 서까래와 부연을 갖춘 겹처마 팔작지붕형태로 포와 기둥, 창

방과 평방을 두어 외 7출목의 화려한 다포계 건축물로 제작되었다. 세부 건축 요소들이 매우 정교하고 세련되게 표현되었고, 비만하지도 세장하지도 않아 단정하고 균형 잡힌 절제된 위엄을 갖추고 있다.(도 6, 7)



도 98 용문사 동 윤장대



도 99 용문사 서 윤장대

윤장대를 구성하고 있는 목재는 대부분 소나무이며, 중심축을 이루는 기둥은 두 기 모두 느티나무로 구성되었고, 서 윤장대의 꽃살문은 피나무속으로 분석되었다.

동·서 윤장대는 팔각의 전각형 목조건축물로 크게 옥개 부분인 상대와 경장 부분인 중대 및 지지부분인 하대로 나뉜다. 두 좌의 기본적인 구조와 형태가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하부 구조와 세부 의장에서 陰陽과 天圓地方의 동양적 사상이 작동되고 있다. 우선 東 윤장대의 하부구조는 확석, 확쇠, 신쇠 등 3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흙을 판 초석이 확석 역할을 하며, 여기에 확쇠를 설치하여 심주 하부에 끼워진 신쇠가 서로 맞추어져 회전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기둥은 원형이며, 몸체의 창호는 꾸미지 않은 단순한 빗살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둥 끝과 초석과 기둥 연결부위, 경장 궁관의 풍혈도 볼록형(凸)로 표현하여 ‘陽’과 ‘天’을 구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西 윤장대의 하부는 동측 윤장대의 구조보다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다. 하부는 2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화강석으로 만든 확석 위에 팽이처럼 생긴 신석(지도리돌)을 끼워 하부를 구성하였다. 경장 내부의 기둥은 동측과 圓形과 달리 方形이며, 창호는 어여쁜 꽃창살로 꾸며졌고 경장 내부 궁관의 풍혈도 오목형(凹)으로 표현하여 ‘陰’과 ‘地’를 구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두 윤장대의 하엽형의 난간은 예전의 남아 있는 자료를 근거로 최근에 수리·복원되었는데, 하엽의 주름이 간결하면서도 볼륨감 있게 표현된 점과 더불어 난간의 ‘十’字形 구름형 풍혈은 1629년 관룡사 대웅전 불상의 대좌(도 8), 1634년 표충사 관음보살좌상 대좌(도 9), 1635년 영광 불갑사 대웅전 불상의 대좌, 구미 수다사 지장보살상의 대좌(17세기 중반), 그리고 같은 대장전 내에 봉안된 아미타삼존불상의 대좌 등의 난간에서 보이는 조각 수법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17세기 조각 양식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도 100 창녕 관룡사 대웅전 불상대좌, 1629년



도 101 밀양 표충사 관음보살 대좌, 1634년

서 윤장대의 꽃살창호는 통판투조기법으로 제작되었는데, 각 면에는 살구, 모란, 연꽃, 짙레꽃, 국화(3꽃), 미늘꽃, 연지수금문 등 한국적인 정서의 정감 있는 문양을 선별하여 배치하고, 화려한 단청으로 마무리 하였다. 이곳에 표현된 꽃창살은 17세기 내소사 대웅보전, 통도사 대웅보전 등 17세기대로 추정되는 사찰 건축 창호와 표현 기법과 양식에서 유사하고, 특히 연못에서 물고기들이 노니는 서정적인 연지수금문은 1617년~1618년 사이에 중창된 창녕 관룡사 대웅전의 수미단(도 10), 1634년에 중건된 성혈사 나한전 꽃살문, 1654년에 제작된 직지사 대웅전 수미단 등 17세기 전반기에 크게 유행한 장엄문양과 시대적 특징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윤장대의 제작시기도 17세기 전반기로 비정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윤장대의 내부에서 확인된 “天啓元年”銘의 목서라든가 2019년 국보승격 보완 조사 때 확인된 “天啓五年”銘 등의 목서명도 윤장대의 존재가 이미 17세기 전반기에 존재하고 있었음을 말해 주는 증거이다.





도 102 창녕 관룡사 대웅전 수미단



도 103 김천 직지사 대웅전 수미단, 1654년

양식적인 편년과 달리, 윤장대의 연륜연대에서는 1520년 직후에 별채된 나무 조성된 것으로 추정였고, 기둥, 손잡이, 문살 등 윤장대의 주요에서 이루어진 방사선탄소연대 측정에서는 모두 1466년에서 1575년 사이의 구간에 위치하였다. 연륜연대와 방사선탄소연대를 종합한 결과 윤장대 2좌는 1520년 직후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윤장대의 꽃살문은 17세기 중반에 수리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는 16세기에 중창되어 유존해 오던 윤장대를 17세기 대에 다시 대대적으로 수리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 조사자 검토의견(승격 가치 있음)

용문사 윤장대는 1173년 동북면에서 일어난 김보당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 조웅대선사가 3만승재를 열고 3칸의 대장전을 지어 윤장대를 설치한 것이다. 이렇듯 용문사 윤장대는 1173년이라는 분명한 초창시기, 국난극복의 상징물로 제작되었다는 명확한 제작 목적, 그리고 조웅대선사라는 제작주체가 모두 밝혀져 있어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크다.

동·서 윤장대는 석가탑과 다보탑의 구성과 배치처럼 간결함과 壯麗함이라는 서로 다른 미적 감각을 대비가 되도록 조각하고 배치하였다. 이와 더불어 세부 구조와 의장에서 음양오행과 천원지방의 동양적 사상을 의도적으로 내재시켜 조형화시켰다는 점에서 그 독창성이 인정된다. 특히 동·서윤장대는 건축, 조각, 공예, 회화 등 당시의 기술과 예술적 역량이 總和된 종합 예술품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크며, 아직도 본래의 기능이 중단되지 않고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학술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이외에도 계자난간의 하엽과 난간 궁판의 십자형, 구름 모양의 풍혈 등은 17세기 전반기에 제작된 여러 불상의 대좌와 수미단에서 보이는 양식과 수법에서 시대적 특징을 공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에 비해서도 결코 뒤쳐지지 않는 뛰어난 조형성을 갖

추고 있다. 특히 서측 윤장대의 창호에 표현된 꽃살문은 17세기 佛殿 건축에 표현된 모든 꽃살문의 형식과 내용을 포괄할 만큼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고, 꽃문양도 우리 정서에 맞는 꽃들로 선별하여 수준 높은 예술세계로 승화시킨 점도 돋보인다.

결론적으로 국내 현존하는 유일의 윤장대라는 점, 아직도 그 기능이 중단되지 않았다는 점, 동아시아에서 제작된 윤장대 중에서 陰陽과 天圓地方的 원리가 구현된 유일한 雙輪藏이라는 점, 한국적 정서와 비대하지 않은 균형 잡힌 조형적 감각을 지니고 있다는 점 등에서 그 가치가 탁월하므로 국보로 승격할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김봉건, 「용문사 대장전」, 『한국의 고건축』 12, 문화재관리국, 1990

최영숙, 「용문사 윤장대 연구」, 『미술사연구』 21, 미술사연구회, 2007

『영동 영국사』 충청대학 박물관·영동군, 2008

민자영, 「예천 용문사 대장전 윤장대 꽃살문에 관한 연구」, 안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오세덕, 「예천 용문사 대장전과 윤장대」, 『문물연구』 21, 동아시아문물연구학술재단, 2012

『용문사 윤장대 수리 및 실측조사보고서』, 예천 용문사, 2015

## 12. 공주 계룡산 중약단 주변정비사업(공양간 개축 및 선방 개수) 검토

### 가. 제안사항

‘19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충남 공주시 소재 보물 「공주 계룡산 중약단」 주변 공양간 개축 및 선방 개수 공사에 대하여 부의 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19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충남 공주시 소재 보물 「공주 계룡산 중약단」 주변 공양간 개축 및 선방 개수 공사에 대하여 검토 받고자 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대상문화재 : 공주 계룡산 중약단
  - 소재지 : 충남 공주시 계룡면 양화리 산8번지
  - 지정일 : 1999. 03. 02.
- (2) 사업내용
  - 사업위치 : 충남 공주시 계룡면 양화리 산8번지
  - 사업지침
    - 노후 및 경관이 불량한 기존 건물 및 가설건물을 철거한다.
    - 철거 후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적정규모의 공양간을 개축하고, 인접한 매화당 내부를 개수(리모델링)하여 선방으로 활용한다.
  - 주요내용 : 공양간 개축 및 선방 개수
    - 공양간 개축
      - 건축면적(연면적) : 99.0㎡
      - 규모 : 정면 5칸, 측면 2칸

- 구조/지붕 : 한식목구조 / 맞배지붕
- 층수/높이 : 1층 / 6.76m
- 선방(기존 공양간) 보수
  - 기초공사 : (주방)토사다짐 후 무근콘크리트 타설(난방배관 설치)
  - 목공사 : 인방재, 문선, 주선 설치, 쪽마루 설치
  - 미장 및 수장공사 : 회벽설치, 도배, 장판, 단열재 및 목조벽체 설치
  - 창호공사 : 외부 한식세살창호 설치, 내부 플라스틱창호 설치
- 창고 철거
  - 면적 : 63.29m<sup>2</sup>
  - 구조 : 철근콘크리트, 한식목구조
  - 지붕 : 맞배지붕

##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규모 축소(측면), 배치 조정(기존 공양간과 이격) 등에 대해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행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조건부가결 8명

## 【보고사항】

안건번호 건축 2019-09-013

### 13. 창경궁 명정문 보수공사 추진계획 보고

#### 가. 보고사항

서울 종로구 소재 창경궁(사적 제123호) 내 보물 「창경궁 명정문 및 행각」 보수공사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합니다.

#### 나. 보고사유

- 창경궁 명정문 보수공사 추진 중 추녀 뒤뿌리 부러짐, 연목 일부 부식이 확인되어 선자연 및 연목의 해체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연목이상 해체 보수공사를 추진하고자 보고하는 사항임

#### 다. 보고내용

- (1) 신청인 : 문화재청장(창경궁관리소장)
- (2) 대상문화재 : 보물 「창경궁 명정문 및 행각」
  - 소재지 :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85
  - 지정일 : 1963. 01. 21.
- (3) 사업내용
  - 사업위치 : 창경궁(사적 제123호) 내 명정문
  - 주요 사업내용
    - 목공사 : 선자연 및 연목 해체, 일부 추녀 및 연목, 선자연 교체
    - 지붕공사 : 기와해체 후 재설치(신재보충 70% 이상), 일부 장식기와 교체
    - 단청공사 : 교체부재 단청
  - 사업기간 : 2019. 4. ~ 2020. 9.(예상)

## 라. 참고사항

- 관계전문가 자문의견(2019.06.12. / 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자문 시 현장공정 : 기와 해체 및 지붕트렌치 조사>
  - 보토는 전체를 걷어내어 지붕상황을 파악한다. 향후 산자를 해체하여 구조적 변형이 있는지 확인하고, 공사범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 기와는 수제기와로 제작하여 시공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기와 크기는 해체 후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장식기와 중 취두 및 용두는 동파로 균열이 많이 생긴 것은 재제작하고, 일반균열이 생긴 것은 성형 후 보존처리 하는 것이 적절하다.
  - 양성은 해체하여 수리하는 것으로 한다.
- 관계전문가 자문의견(2019.06.26. / 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자문 시 현장공정 : 보토이상 해체>
  - 산자를 해체하여 연목의 변이 현상을 확인하고 적심부재는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리 조사토록 한다.
  - 기와는 대와로 하되, 전후 좌우의 기와골수를 맞추는 것
  - 무늬는 용.봉으로 하되 잔존 비율이 많은 것을 제작기준으로 한다. 새로 제작하는 기와는 제작년도를 반드시 새기도록 한다.
  - 기와 교체율은 사용할 수 있는 기와 조사 후 결정하고 공장제 기와는 제거
  - 보토층은 강회다짐하지 말고, 보토만 시공하되 두께는 20cm이상으로 한다.
  - 장식기와 중 잡상은 위치에 맞는 형태로 재제작하여 설치토록 한다.
- 관계전문가 자문의견(2019.07.22. / 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자문 시 현장공정 : 산자이상(적심석 포함) 해체>
  - 두 본의 추녀가 파손되어 구조적인 문제가 예측되므로 서까래이상 해체하여 수리함이 타당함
  - 지붕은 산자여기를 유지하고, 철정은 전통철물로 제작하여 사용함
  - 잡상은 손행자는 재사용하고 나머지는 새로 제작함
  - 적심에서 출토된 부재와 해체부재에 대한 부재조사가 필요하고, 공사내용 및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한 수리보고서 발간이 필요함
  - 교체부재에는 모두 중수일자를 표기해야 함

**마. 향후 추진계획**

- 창경궁 명정문 설계변경용역 발주 : 2019. 9월 중(예정)

**바.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원안접수 8명

## 14.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처리결과 보고

### 가. 보고사항

경북 봉화군 소재 보물 「봉화 북지리 마애여래좌상」 주변 생활권 마을숲 조성사업 등 허가신청 16건에 대하여 자체검토회의 등을 거쳐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 나. 처리내용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소 계		16건	원안가결 13건 조건부가결 3건	
봉화 북지리 마애여래좌상	경북 봉화 (○○○)	<input type="checkbox"/> 생활권 마을숲 조성사업 ○ 위치 : 봉화군 물야면 북지리 701-180 외 11필지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50m 이격) ○ 사업내용 - 사업면적 : 1,973㎡ - 자연석 쌓기 : 0.3m*26m, 0.8m*84m, 1.2m*15m - 성토 : 122㎡ - 수목식재 : 교목 36주, 관목 1,000주	원안가결	'19.09.10
안동 이천동 마애여래입상	경북 안동 (○○○)	<input type="checkbox"/> 축사 양성화 ○ 위치 : 안동시 서후면 이송천리 78 * 제4구역(보호구역에서 428m 이격) ○ 사업내용 - 건축(연)면적 : 1,720.0㎡(5개동) - 구조 : 강파이프구조 - 규모/높이 : 지상1층/3.7m	원안가결	'19.09.10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안동 석빙고	경북 안동 (○○○)	<input type="checkbox"/> 근린생활시설 신축(소매점) ○ 위치 : 안동시 성곡동 826-3번지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108m 이격) ○ 사업내용 - 건축(연)면적 : 16.24㎡ - 구조 : 목구조 - 층수/높이 : 지상1층/4.82m	원안가결	'19.09.10																				
예산 수덕사 대웅전	충남 예산 (○○○)	<input type="checkbox"/> 후원 증축 ○ 위치 : 예산군 덕산면 사천리 19 * 보호구역 내 ○ 사업내용 - 연면적 : 94.69㎡ * 기존 목재기둥, 차양 및 외부 화장실 철거 후 증축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최고높이 : 3.06m	원안가결	'19.09.10																				
청도 석빙고	경북 청도 (○○○)	<input type="checkbox"/> 축사 양성화 ○ 위치 : 청도군 화양읍 서상리 152-15번지 외 5필지 * 제3구역(석빙고에서670m, 청도읍성100m 이격) ○ 사업내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퇴비사</th> <th>추인 축사1</th> <th>추인 축사2</th> <th>추인 가설 축사3</th> </tr> </thead> <tbody> <tr> <td>건축 연면적</td> <td>185.85㎡</td> <td>87.60㎡</td> <td>92.20㎡</td> <td>829.33㎡</td> </tr> <tr> <td>최고 높이</td> <td>5.7m</td> <td>4.6m</td> <td>4.6m</td> <td>7.7m</td> </tr> <tr> <td>구조</td> <td>강판/ 강파이 프</td> <td>강판/ 강파이 프</td> <td>강판/ 강파이 프</td> <td>강판/ 강파이 프</td> </tr> </tbody> </table>	구분	퇴비사	추인 축사1	추인 축사2	추인 가설 축사3	건축 연면적	185.85㎡	87.60㎡	92.20㎡	829.33㎡	최고 높이	5.7m	4.6m	4.6m	7.7m	구조	강판/ 강파이 프	강판/ 강파이 프	강판/ 강파이 프	강판/ 강파이 프	원안가결	'19.09.10
구분	퇴비사	추인 축사1	추인 축사2	추인 가설 축사3																				
건축 연면적	185.85㎡	87.60㎡	92.20㎡	829.33㎡																				
최고 높이	5.7m	4.6m	4.6m	7.7m																				
구조	강판/ 강파이 프	강판/ 강파이 프	강판/ 강파이 프	강판/ 강파이 프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울진 구삼리 삼층석탑	경북 울진 (○○○)	<input type="checkbox"/> 단독주택 신축(변경허가) ○ 위치 : 울진군 근남면 구산리 1464-1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320m 이격) ○ 사업내용 - 대지면적 : 372㎡→383㎡ - 건축면적(연면적) : 73㎡(73㎡) · A동 : 25㎡, B동 : 48㎡ * A,B동 건물위치 변경 - 구조 : 한식목구조/경량철골구조 - 층수/최고높이 : 1층/5.24m→1층/4.92m * 2019년 3월 자체회의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	'19.09.10
구미 황상동 마애여래입상	경북 구미 (○○○)	<input type="checkbox"/> 공장 증축(엘리베이터) ○ 위치 : 구미시 황상동 492 * 제2구역(보호구역에서 약 65m 이격) ○ 내용 : - 건축면적(연면적) : 21.72㎡(39.68㎡) - 구조 : 일반철골구조 - 높이 : 13.8m	원안가결	'19.09.10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경북 영주 (○○○)	<input type="checkbox"/> 농로포장공사 ○ 위치 : 영주시 부석면 북지리 372번지 일원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480m 이격) ○ 사업내용 : 콘크리트 포장 - 포장 : B=3.0m, L=284.0m - 수로관 : 0.6*0.6, L=144.0m	원안가결	'19.09.10
강진 월남사지 삼층석탑	전남 강진 (○○○)	<input type="checkbox"/> 축사 증축 ○ 위치 : 강진군 성전면 월남리 740-1, 740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약 310m 이격) ○ 내용 : 축사증축 - 건축면적 : 176㎡ - 최고높이 : 5.7m - 구조 : 경량철골구조	원안가결	'19.09.10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청주 계산리 오층석탑	충북 청주 (○○○)	<input type="checkbox"/> 농막 설치 ○ 위치 :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계산리 63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50m 이격) ○ 내용 : 농막 설치 - 건축면적 : 18㎡(3m×6m) - 층수/최고높이 : 1층/2.5~2.8m - 구조 : 컨테이너	원안가결	'19.09.10																								
천안 봉선홍경사 갈기비	충남 천안 (○○○)	<input type="checkbox"/> 공장 신축 ○ 위치 :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대흥리 232-9번지 외 3필지 * 제3구역(보호구역에서 약 410m 이격) ○ 내용 : 2개동 - 건축면적(연면적) : 2,048㎡(3,682.81㎡) - 구조 : 일반철골구조 - 층수/높이 : 3층/16.15m - 역L옹벽 : L=63m, H=0.3~1.5m - 보강토옹벽 : L=197m, H=0.3~4.8m	원안가결	'19.09.10																								
양산 통도사 대웅전 및 금강계단	경남 양산 (○○○)	<input type="checkbox"/> 경비실 정비사업 ○ 위치 :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 보호구역 내(문화재에서 10m 이격) ○ 사업내용 : 경비실(종합상황실) 정비 - 경비실 증축공사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구분</th> <th>기존</th> <th>변경</th> <th>증감</th> </tr> </thead> <tbody> <tr> <td>면적</td> <td>7.32㎡</td> <td>11.4㎡</td> <td>+4.08㎡</td> </tr> <tr> <td>높이</td> <td>3.6m</td> <td>좌동</td> <td></td> </tr> </tbody> </table> - 협문 및 담장 해체 후 재설치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구분</th> <th>기존</th> <th>변경</th> <th>증</th> </tr> </thead> <tbody> <tr> <td>폭</td> <td>2.13m</td> <td>1.26m</td> <td>-0.87m</td> </tr> <tr> <td>높이</td> <td>3.69m</td> <td>3.41m</td> <td>-0.28m</td> </tr> </tbody> </table> - 담장정비 : 연장 4.66m, 높이 1.35m	구분	기존	변경	증감	면적	7.32㎡	11.4㎡	+4.08㎡	높이	3.6m	좌동		구분	기존	변경	증	폭	2.13m	1.26m	-0.87m	높이	3.69m	3.41m	-0.28m	원안가결	'19.09.10
구분	기존	변경	증감																									
면적	7.32㎡	11.4㎡	+4.08㎡																									
높이	3.6m	좌동																										
구분	기존	변경	증																									
폭	2.13m	1.26m	-0.87m																									
높이	3.69m	3.41m	-0.28m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함양 교산리 석조여래좌상	경남 함양 (○○○)	<input type="checkbox"/> 함양중·고등학교 주변 도로환경 개선사업 ○ 위치 : 함양군 함양읍 함양배움길 11 * 제1, 3구역(보호구역에서 110m 이격) ○ 사업내용 : 도로환경 개선사업 - 도로폭 : 13~18m - 도로연장 : 518m - 회전교차로 - 기타 : 안전시설물, 석축(최고 2.6m), 옹벽(최고 5.3m)	원안가결	'19.09.10
울주 천전리 각석	울산 울주 (○○○)	<input type="checkbox"/> 농막 설치 ○ 위치 :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837-2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300m 이격) ○ 사업내용 : 농막설치 - 규모 : 가로4.5m, 세로4.3m, 높이2.4m - 구조 : 샌드위치판넬	조건부가결 (존치기간 한정)	'19.09.10
안동 조탑리 오층전탑	경북 안동 (○○○)	<input type="checkbox"/> 하천 재해예방 사업 ○ 위치 : 안동시 일직면 조탑리 152-2번지 외 9필지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25m 이격) ○ 사업내용 - 규모 : L=237m - 토공 · 흙깎기 : 1,552m <sup>3</sup> · 흙쌓기 : (다짐)1,280m <sup>3</sup> , (비다짐)91m <sup>3</sup> · 터파기 : 989m <sup>3</sup> · 되메우기 : 650m <sup>3</sup> - 배수공 : 배수관부설(D800) L=84m - 호안공 : 매트리스게비온설치 L=212m, A=2,269m <sup>2</sup> - 포장공 : 콘크리트포장(B=3.0m, L=237m), A=711m <sup>2</sup>	조건부가결 (관계전문가 입회 조사 - 사전조사, 터파기시)	'19.09.10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청도 석빙고	경북 청도 (○○○)	<input type="checkbox"/> 근린생활시설 신축(변경허가) ○ 위치 : 청도군 화양읍 동상리 45-1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230m, 청도읍성에서 20m 이격) ○ 내용 - 건축면적(연면적) : 145.8㎡→169.56㎡ - 건축구조 : 한식목구조(팔작지붕) - 층수 및 높이 : 지상1층 / 7.28m * 부1 창고 및 화장실 추가 - 건축면적(연면적) : 49.14㎡ - 건축구조 : 한식목구조(맞배지붕) - 층수/높이 : 1층/4.54m * 2016년 제4차 문화재위원회 원안가결	조건부가결 (도문화재 위원회 결과에 따라 시행)	'19.09.10

#### 다.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원안접수 8명